



KAN AUCTION

43rd AUCTION WITH KOREAN ART

2026. 6. 25^{THU}



KAN AUCTION

43rd AUCTION WITH KOREAN ART

경매 AUCTION

2026. 6. 25(목) 오후 4시

전시 PREVIEW

2026. 6. 15(월) — 6. 24(수)

건국빌딩 건국관1층 칸옥션 전시장

 KAN Auction

NOTICES

공지사항

경매약관	간옥션 미술품 경매는 간옥선의 약관 및 공지사항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응찰 희망자는 반드시 간옥선의 약관과 공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응찰을 희망하시는 분은 프리뷰 기간 중 본인의 책임 아래 작품의 상태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옥션은 응찰자가 직접 작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매도록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응찰자로부터 응찰을 수령합니다.
회원가입	간옥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간옥선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가입 신청은 간옥션 홈페이지와 경매도록에 첨부되어있는 회원가입 신청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찰	응찰 희망자는 간옥선의 경매약관에 따라 현장응찰,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응찰 및 전화 응찰 신청은 경매 1일 전 오후 7시까지 등록해주시어야 합니다. 모든 응찰 관련 내용은 녹음, 녹화 또는 기록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응찰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면, 현장 및 전화 응찰자가 동일 금액으로 응찰 한 경우 서면응찰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서면 응찰이 동일한 금액으로 중복될 경우 먼저 응찰서를 제출한 회원에게 낙찰됩니다.)
수수료	구매 수수료는 낙찰가의 15%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응찰시 수수료를 감안하신 후 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찰대금결제	낙찰자는 약관 및 공지사항에 따라 낙찰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총 구매대금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간옥션과 경매 이전에 구매가를 분할 지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11-338178 주식회사 간옥션
기타소득세(양도소득세)	2013년부터 개인이 서화, 골동품을 양도할 때, 그 양도 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라도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매작품의 보관 및 운송	낙찰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경매 물품을 인수하셔야 합니다. 낙찰자가 직접 방문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미술품의 특성 상 전문 운송회사를 이용하셔야 하며 운송비는 낙찰자 부담입니다. 작품 배송 일정에 관해서는 간옥션과 낙찰자가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행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시행됩니다. 관련 법에 의거하여 수수료와 부가가치세(VAT)의 금액만큼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 시행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GUIDE

안내사항

간옥션 경매에 출품된 모든 작품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출품되었습니다. 간옥션은 작품에 포함된 각종 정보와 부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작품 감상 및 응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매 도록에 제공된 사항들은 응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간옥션은 그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응찰 희망자는 프리뷰 기간 중 작품 상태와 도록에 포함된 정보 등을 본인의 책임 아래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도록에 실린 작품을 설명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정보 이외의 도록에 추가된 설명은 객관적 사실만을 서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호	작가의 대표적인 아호를 성명 앞에 쓰며, 한글과 한자를 함께 표기합니다.
작가명	작가의 성과 이름을 쓰며 한글과 한자를 함께 표기합니다.
생몰년	작가의 출생과 사망년도를 표기하며 -는 현재 생존, ?는 미상을 나타냅니다.
전통	관서나 인기가 없으나 작품의 경향(필치, 구도, 채색) 등이 해당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경우 전통을 사용합니다. 위창 오세창, 영운 김용진, 송은 이병직, 소전 손재형 등 감식안을 신뢰할 수 있는 선학의 배관, 제발, 소장인(감장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통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품명	기존의 작품명 등을 참고하며, 작품명이 없을 때는 시의 제목, 작품의 내용, 화제 등을 참고하여 표기합니다. 그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화는 생략합니다.
제작시기	간지로 된 것인 서기(간지)로 표기하며,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몇세기로 표기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월, 일까지 표기합니다.
재질, 재료, 기법	작가가 어떤 바탕(종이, 비단, 모시, 캔버스, 패널 등)에 어떤 재료(먹, 수묵, 채색, 유채 등)를 사용하여 어떤 기법으로 제작했는지 표기합니다.
크기	평면 : 세로x가로 cm 입체 : 도자기 - 고(높이)x구경(입지름)x저경(밑지름)cm 공예품 - 고(높이)x세로(깊이)x가로(폭) 기 타 - 얇고 길거나 골곡이 많은 작품(조각, 횃대 등)은 최대길이만, 같은 작품이 여러 점일 경우는 대표적인 것만 표기합니다.
형태	작품을 꾸민 방법을 기록합니다.예) 액자, 족자, 병풍, 가리개, 책, 배접 등
본관, 자	작가의 본관을 기록한 후, 표시 뒤에 대표적인 자호를 기록합니다.
추정가	회사가 미술 시장의 거래가격, 희소성, 자료의 가치, 미술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가격입니다. 추정가는 응찰의 참고 자료이며 회사가 보증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추정가는 낙찰가와 무관하며, 회사는 추정가가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품해설	관람자와 응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합니다.
출처, 감정서	작품수록 문헌의 서지사항, 감정서, 작품 소장 이력과 출처, 문화재 지정(국보, 보물 등)번호 등을 기록합니다.
탈초, 번역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며, 일반적인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경매 도록에 탈초, 번역이 되어있지 않은 작품에 대해 간옥션을 통해 탈초, 번역을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INDEX

색인

서·화 (작가명 가나다순)

고희동 春谷 高羲東	075	노원상 湖亭 盧元相	009	유길준 矩堂 俞吉濬	010, 064
권돈인 舜齋 權敦仁	029	목내선 睡翁 睦來善	035	유치봉 霞山 俞致鳳	102
권동수 石雲 權東壽	006	민경갑 西山 閔庚甲	050, 061	유희강 劍如 柳熙綱	014
김규진 海岡 金圭鎭	004, 067, 069, 072	민병석 詩南 閔丙奭	013	윤용구 石村 尹用求	013
김기창 雲甫 金基昶	060, 078	민유중 屯村 閔維重	035	이가원 淵民 李家源	019, 062
김대중 後廣 金大中	046	민정중 老峰 閔鼎重	035	이관징 芹谷 李觀徵	035
김돈희 惺堂 金敦熙	003	박노수 藍丁 朴魯壽	056	이광사 圓嶠 李匡師	032
김득후 東屏 金得厚	040	박두진 兮山 朴斗鎭	048	이남호 錦秋 李南浩	088
김만중 西浦 金萬重	035	박목월 朴木月	048	이덕무 靑莊館 李德懋	040
김석준 小棠 金奭準	023	박승무 深香 朴勝武	079, 097	이도영 賁齋 李道榮	011
김수항 文谷 金壽恒	035	배렴 霽堂 裴瀛	079	이방운 箕野 李昉運	082
김영삼 巨山 金泳三	047	변관식 小亭 卞寬植	054, 076	이방자 佳惠 李方子	129, 133
김예식 又荷 金禮植	094	서명균 保拙齋 徐命均	043	이범진 李範晉	091
김옥균 古筠 金玉均	012, 026	서세옥 山丁 徐世鈺	058	이병모 靜修齋 李秉模	040
김용진 九龍山人 金容鎭	057, 079	서희환 平步 徐喜煥	016	이병직 松隱 李秉直	079
김우범 石下 金愚範	126	성대중 靑城 成大中	040	이삼만 蒼巖 李三晩	031
김원룡 三佛 金元龍	055	성여학 雙泉 成汝學	039	이상범 靑田 李象範	052, 053, 070, 075
김유탉 守巖 金有鐸	022	성재후 豊谷 成在侏	083	이세백 靑沙 李世白	042
김은호 以堂 金殷鎬	013, 051, 084	손재형 素荃 孫在馨	015, 017, 020, 021, 079	이수징 李壽徵	035
김응원 小湖 金應元	064, 065	송시열 尤庵 宋時烈	033, 041	이승만 靑南 李承晩	045
김응현 如初 金膺顯	018	송준길 同春堂 宋浚吉	034	이영일 春泉 李英一	071
김일 華山 金駟	075	신상호 松南 申相浩	132	이완용 一堂 李完用	013
김정희 秋史 金正喜 필	028, 030	신익상 醒齋 申翼相	035	이왈중 李曰鍾	059, 093
김종학 金宗學	086, 087	신익희 海公 申翼熙	044	이용우 墨鷲 李用雨	098
김준근 箕山 金俊根	073	신헌 威堂 申楨	107	이용준 西洲 李容準	013
김준영 石年 金準榮	063	傅 심사정 玄齋 沈師正	103	이용노 顧菴 李應魯	085
김진우 金剛山人 金振宇	090	안동숙 吾堂 安東淑	096	이정구 月沙 李廷龜	038
김태석 惺齋 金台錫	025	양기훈 石然 楊基薰	074	이중상 一浪 李鐘祥	089
나수연 小蓬 羅壽淵	075	여성재 雲浦 呂聖齊	035	이징구 李徵龜	035
남관 南寬	131	오두인 陽谷 吳斗寅	035	이한복 無號 李漢福	013, 066, 075
노수현 心汕 盧壽鉉	062, 075, 095	오세창 葦滄 吳世昌	001, 002, 008, 098	이흥연 三竹 李弘淵	035
		원득정 聞喜 元得鼎	040	장우성 月田 張遇聖	077, 079

장일순 無爲堂 張一淳	128
정인보 齋園 鄭寅普	005
정지순 善息齋 鄭持淳	040
정학교 夢人 丁學教	007, 024
조맹 趙孟	027
조수익 趙守翼	027
조정기 趙廷機	027
조중묵 雲溪 趙重默	101
조지훈 趙芝薰	048
지성채 春艸 池盛彩	092
최복 毫生館 崔北	106, 108
최순우 兮谷 崔淳雨	049
최영림 崔榮林	130
최우석 鼎齋 崔禹錫	099
탄허 誕虛	075
허건 南農 許楗	079, 113, 114, 117, 120, 121, 122, 123
허련 小癡 許鍊	109, 111, 112
허목 眉叟 許穆	035
허백련 毅齋 許百鍊	115, 116, 119
허정 松湖 許珽	036
허형 米山 許滢	110, 118
현채 白堂 玄采	013
홍만용 洪萬容	035
홍석주 淵泉 洪奭周	037
홍세태 滄浪 洪世泰	105
홍순인 翠堂 洪淳仁	124
홍원섭 太湖 洪元燮	040
황성하 又淸 黃成河	068
황용하 美山 黃庸河	068

서·화 (작가미상 가나다순)

백동자도 10폭병풍 百童子圖十幅屏風	104
빈풍칠월도 8폭병풍 幽風七月圖八幅屏風	125
책거리 冊巨里 2점	100
호작 虎鵠	081
화조민화 6폭병풍 花鳥民畫六幅屏風	080
화조민화 8폭병풍 花鳥民畫八幅屏風	127

책·첩 (작품명 가나다순)

달구장운 達句長韻	040
서간첩 書簡帖	035
조맹趙孟·조정기趙廷機·조수익趙守翼 묘갈墓碣 및 묘표墓表 : 탁본첩	027
청록집 靑鹿集	048

공예·도자 (작품명 가나다순)

달 : 도자화	132
붓걸이 筆架	134
세한삼우일월연 歲寒三友日月硯	135
안개 : 도자서	049
청자나비형수저받침 靑磁蝶形匙箸臺 2점 세트	133





중도中道에서 큰 근본을 세우고,
한마디 말이라도 평생 실천하여야 한다.

001

위창 오세창 葦滄 吳世昌
해주海州, 중명중명 1864-1953

중도이대본립야 일언가종신행지
中道而大本立也 一言可終身行之
비단에 먹/ 가배첩
15.3x120cm

₩ 800,000-1,800,000



002

위창 오세창 葦滄 吳世昌
 해주海州, 중명仲銘/ 1864-1953

시고 詩稿 2점
 1937년(정축)
 종이에 먹/ 축자
 131.5x31.1cmx2

₩ 1,200,000-2,600,000

風定餘花猶自落 雲移小雨未全晴

바람이 그쳐도 남은 꽃은
 저절로 떨어지고,
 구름이 옮겨가도 가랑비는
 아직 다 개지 않았네.

목은 이색牧隱 李穡 「즉사即事」中

芙蓉零落秋池雨 楊柳蕭疏曉岸風

가을 못에 비 내리니
 부용꽃은 시들어 떨어지고,
 새벽 강가에 바람 부니 버드나무는
 성글어 쓸쓸하네.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연주류현이원의克州留獻李員外」中



003

성당 김돈희 惺堂 金敦熙
 경주慶州, 공숙公叔/ 1871-1937

청금헌 聽琴軒
 종이에 먹/ 액자(유리없음)
 73.5 x 205cm

₩ 2,000,000-4,500,000



004

해강 김규진 海岡 金圭鎮
남평南平, 용삼容三/ 1868-1933

절려망연 絶慮忘縁
종이에 먹/ 액자
32.5x1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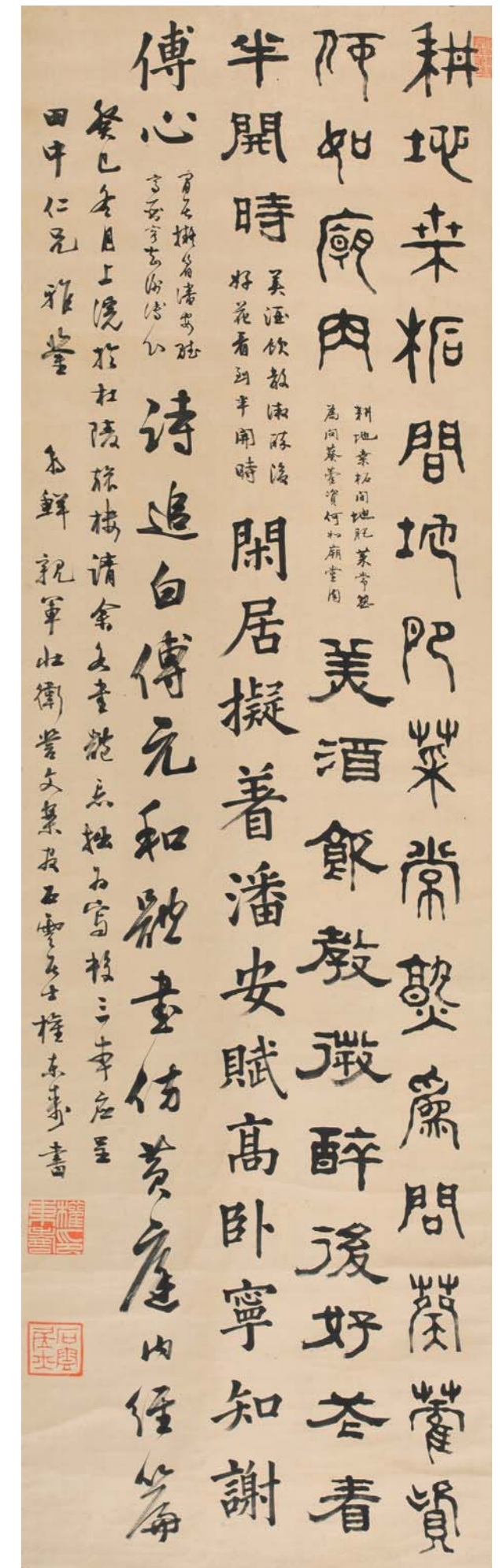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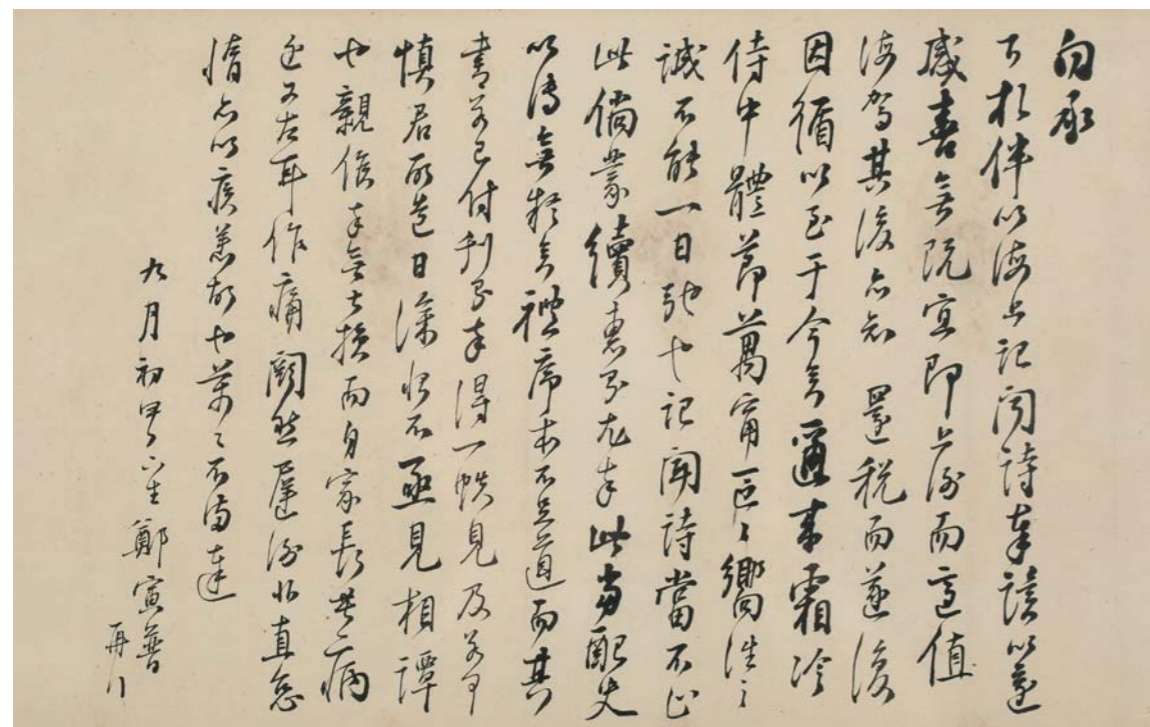
₩ 800,000-2,000,000

005

담원 정인보 蒼園 鄭寅普
동래東萊, 경업經業/ 1892-1950

서간 書簡
종이에 먹/ 액자
24x38cm

₩ 800,000-2,200,000



006

석운 권동수 石雲 權東壽
안동安東, 치영致永/ 1842-?

사체시고 四體詩稿
1893년(계사)
비단에 먹/ 족자
173.2x52cm

₩ 800,000-2,000,000



007

몽인 정학교 夢人 丁學教
나주羅州, 화경化境/ 1832-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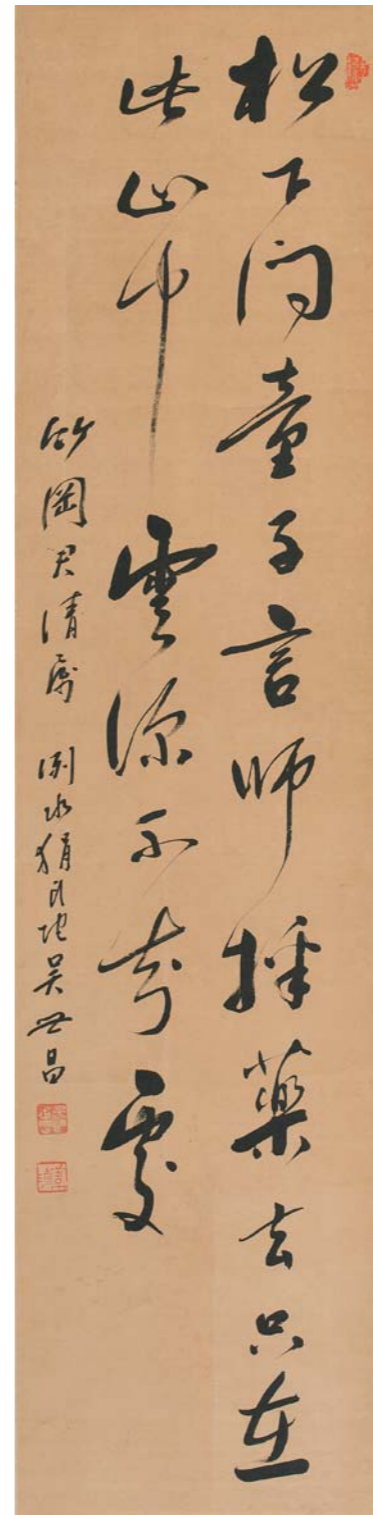
복기 福基·선근 善根 대련
종이에 먹/ 가배접
123x28.8cmx2

₩ 1,000,000-2,500,000

留 有 餘 不 盡 福 基 培 方 興 未 艾 善 根

여유를 남겨 다 쓰지 않음으로써
복의 터전을 보존하고,
막 일어나 아직 다하지 않은
선한 뿌리를 길러 나간다.

松下問童子 言師採藥玄 只在此山中 雲深不知處
소나무 아래 동자에게 물었더니, 스승은 약초 캐러 갔었다 하네.
이 산속 어딘가에 계시련만, 구름 깊어 계신 곳을 알 수 없다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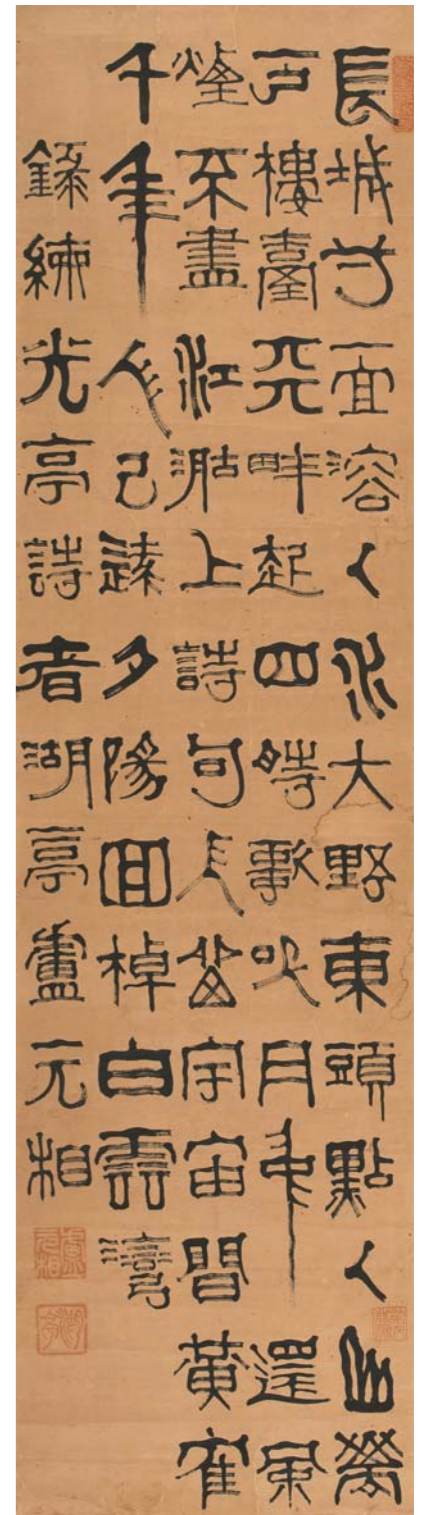


008

위창 오세창 葦滄 吳世昌
해주海州, 중명仲銘/ 1864-1953

시고 詩稿
종이에 먹/ 족자
134x32.2cm

₩ 600,000-1,400,000



009

호정 노원상 湖亭 盧元相
풍천豐川/ 1871-1926

시고 詩稿
종이에 먹/ 족자
120x32cm

₩ 500,000-1,400,000

君子養身莫善于靜，如止水有如的鏡。
水止乃澄鏡明斯應。

海南牧生子金玉均

012

고군 김옥균 古筠 金玉均
안동安東, 백은伯溫/ 1851-1894

시고 詩稿
종이에 먹/ 가배접
121.4x26.2cm

₩ 1,000,000-2,500,000

君子養身 莫善于靜
靜如明鏡 靜如止水
水止乃澄 鏡明斯應

군자가 몸과 마음을 수양함은
고요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고요함은 밝은 거울과 같고,
멈춘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은 멈추어야 비로소 맑아지고,
거울은 밝아야 이에 사물을 그대로 비춘다.

是歲十月見月心聖步自雷堂將歸于臨泉二客過黃泥坂既降木葉盡脫何
地何見月心聖步自雷堂將歸于臨泉二客過黃泥坂既降木葉盡脫何
日者薄暮顧而樂之巨口細鱗已如魚之遊於固壁而下流有聲千尺高
小龍石出日待子綱魚之需於江與松江之遊於固壁而下流有聲千尺高
水將攀石出日待子綱魚之需於江與松江之遊於固壁而下流有聲千尺高
夜亦四亦樓房幽以待子綱魚之需於江與松江之遊於固壁而下流有聲千
容將攀石出日待子綱魚之需於江與松江之遊於固壁而下流有聲千尺高
視不答亦見其履嘻飛一知之士矣疇咎過飛鳴而過我非耶赤遊笑乎木
東坡先生亦辭夜遊後第十有四回壬戌之春正月既望四憶先生千載之風流文章忘拙書此 別求李道榮

011

관재 이도영 貫齋 李道榮
연안延安, 중일중- / 1884-1933

후적벽부 後赤壁賦
1922년(임술)
종이에 먹/ 족자
125.2x44cm

₩ 500,000-1,300,000

我屋小如舟臥話滄海水 乘桴萬里心 泛泛無時已
桴萬里心泛泛無時已

矩堂 俞吉濬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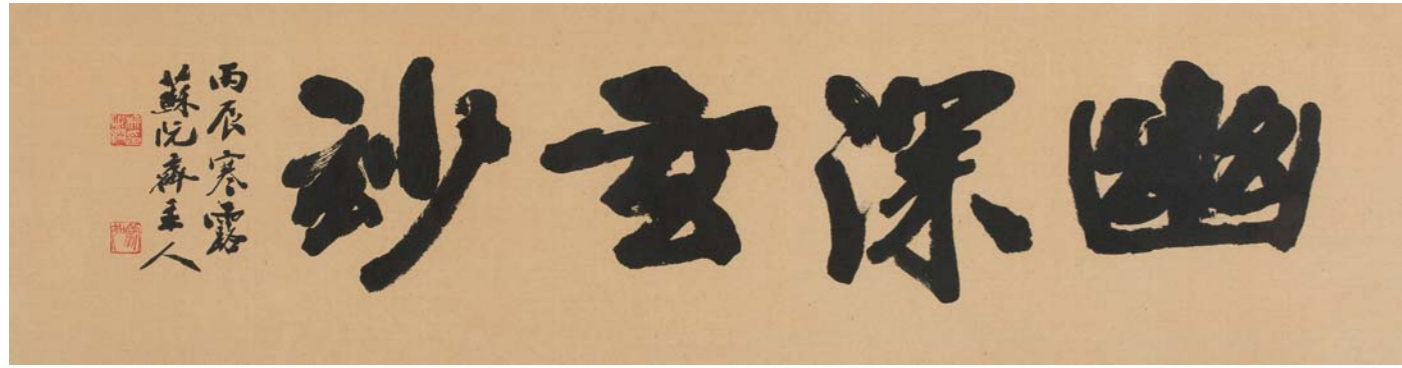
구당 유길준 矩堂 俞吉濬
기계杞溪, 성무聖武/ 1856-1914

시고 詩稿
종이에 먹/ 족자
131x32.8cm

₩ 800,000-1,800,000

我屋小如舟臥話滄海水 乘桴萬里心 泛泛無時已

내 집은 작아 조각배 같고, 누워서 푸른 바다 이야기를 나누네.
벉뚝 타고 만 리를 떠가고 싶은 마음, 동심동심 떠다니며 그칠 줄 모르네.



014

검여 유희강 劍如 柳熙綱
진주晉州/ 1911-1976

유심현묘 幽深玄妙
1976년(병진)
종이에 먹/ 액자
32.5x127cm

₩ 1,000,000-2,600,000

작품수록처 |
『검여 유희강 서예집 제2집』, (일지사, 1983),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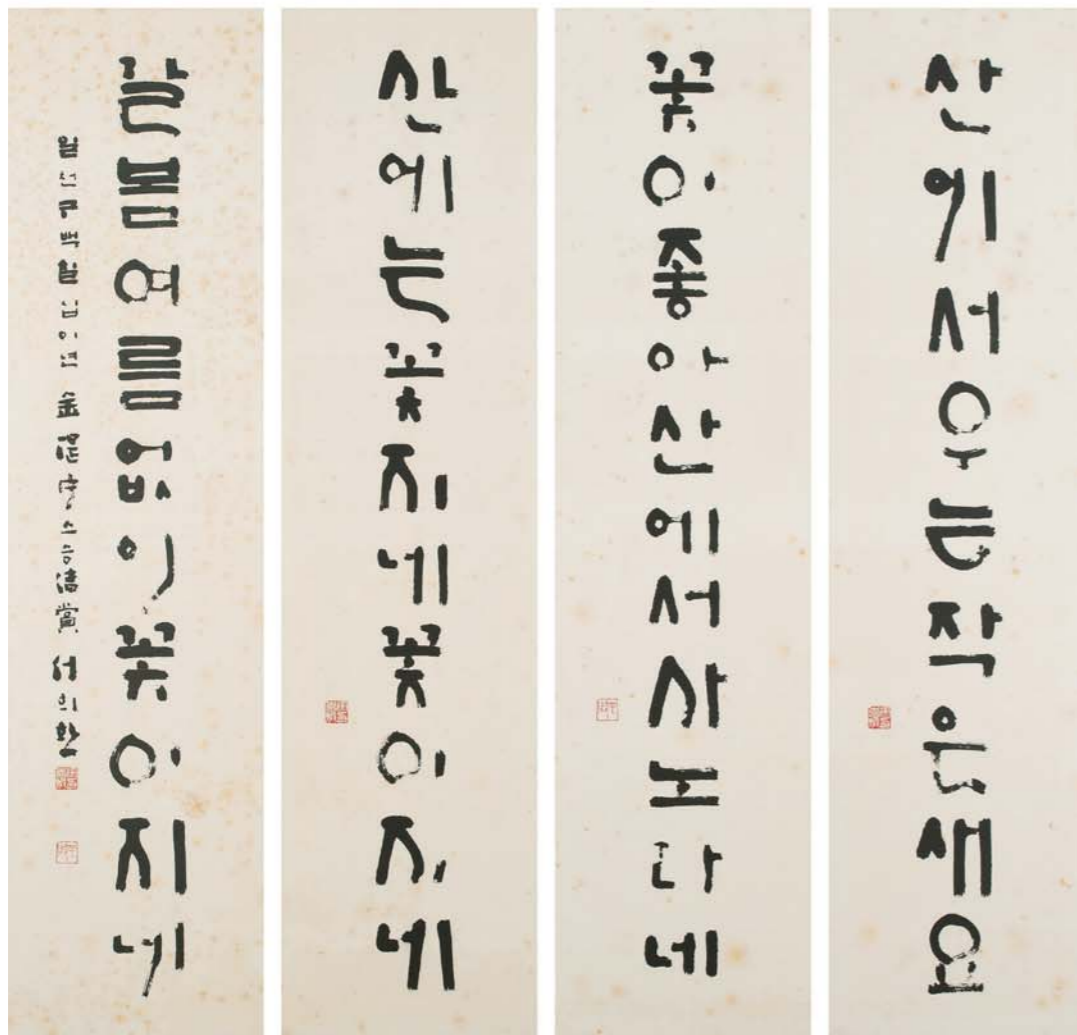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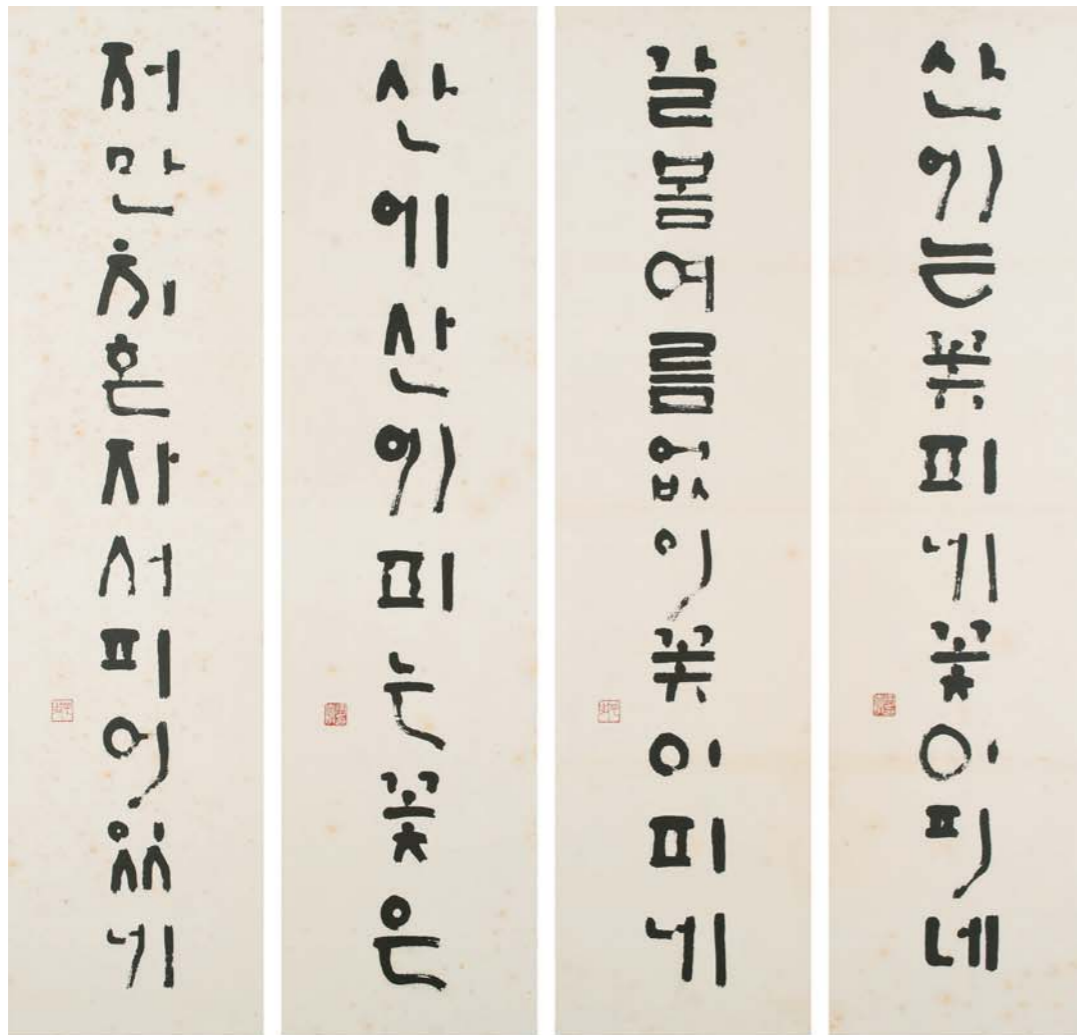
015

소전 손재형 素荃 孫在馨
밀양密陽/ 1903-1981

시고 8폭병풍 詩稿八幅屏風
종이에 먹/ 병풍
129.5x32cmx8

₩ 3,000,000-7,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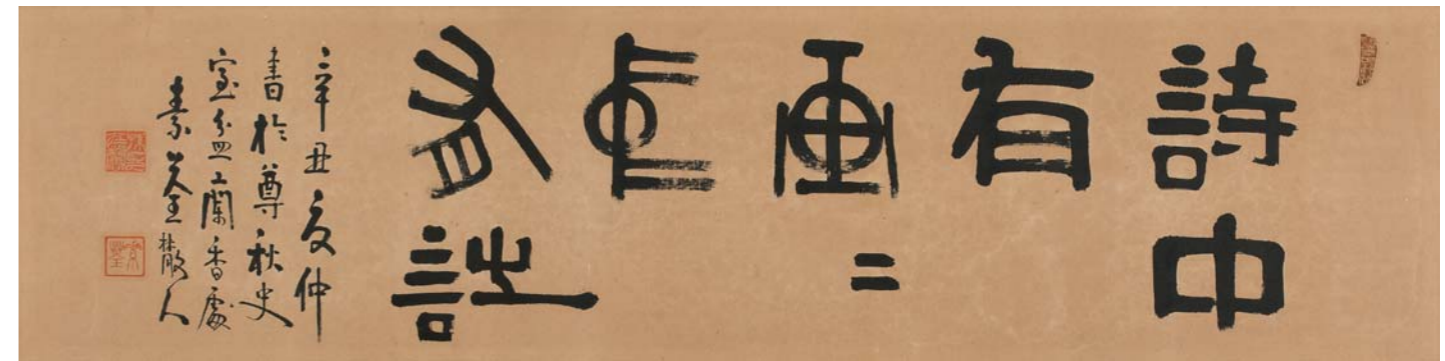


016

평보 서희환 平步 徐喜煥
이천利川/ 1934-1998

산유화 山有花 : 김소월 金素月 시
1972년
종이에 먹/ 병풍
128.5x32cmx8

₩ 4,000,000-1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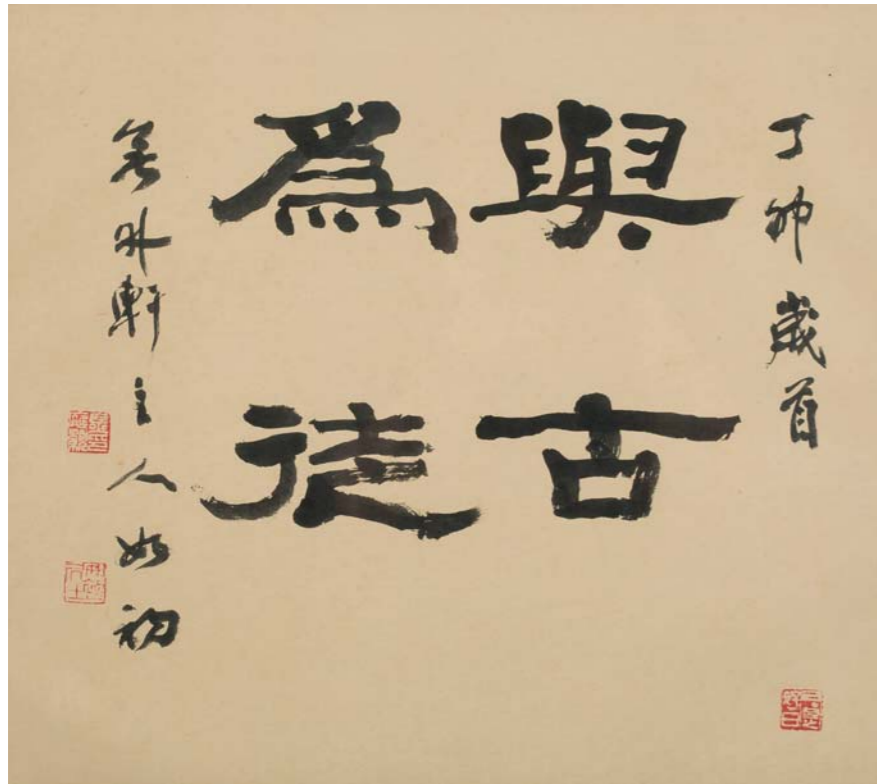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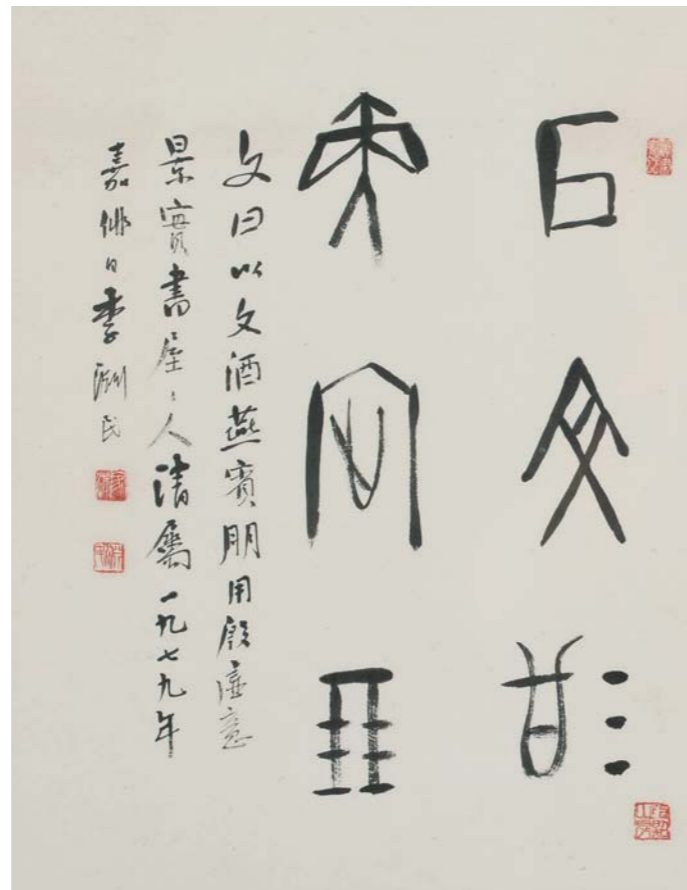
소전 손재형 素荃 孫在馨
밀양密陽/ 1903-1981

시중유화 畫中유시 詩中有畫 畫中有詩
1961년(신축)
종이에 먹/ 액자
31.8x127.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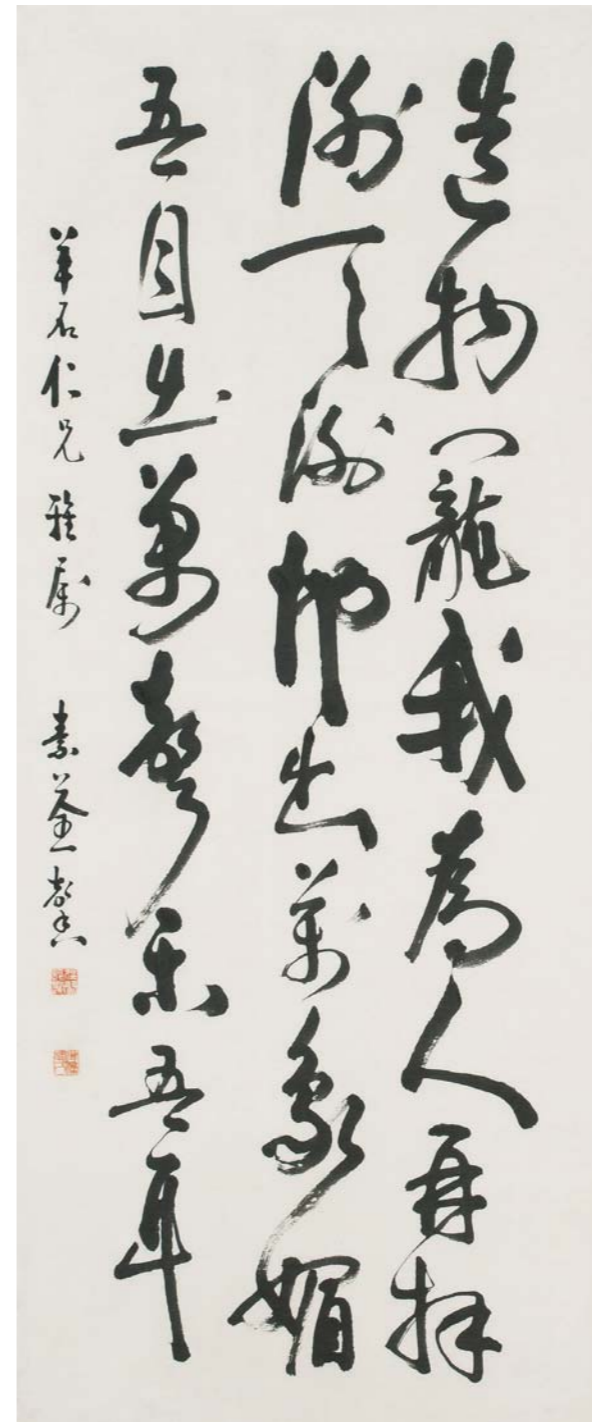
₩ 500,000-1,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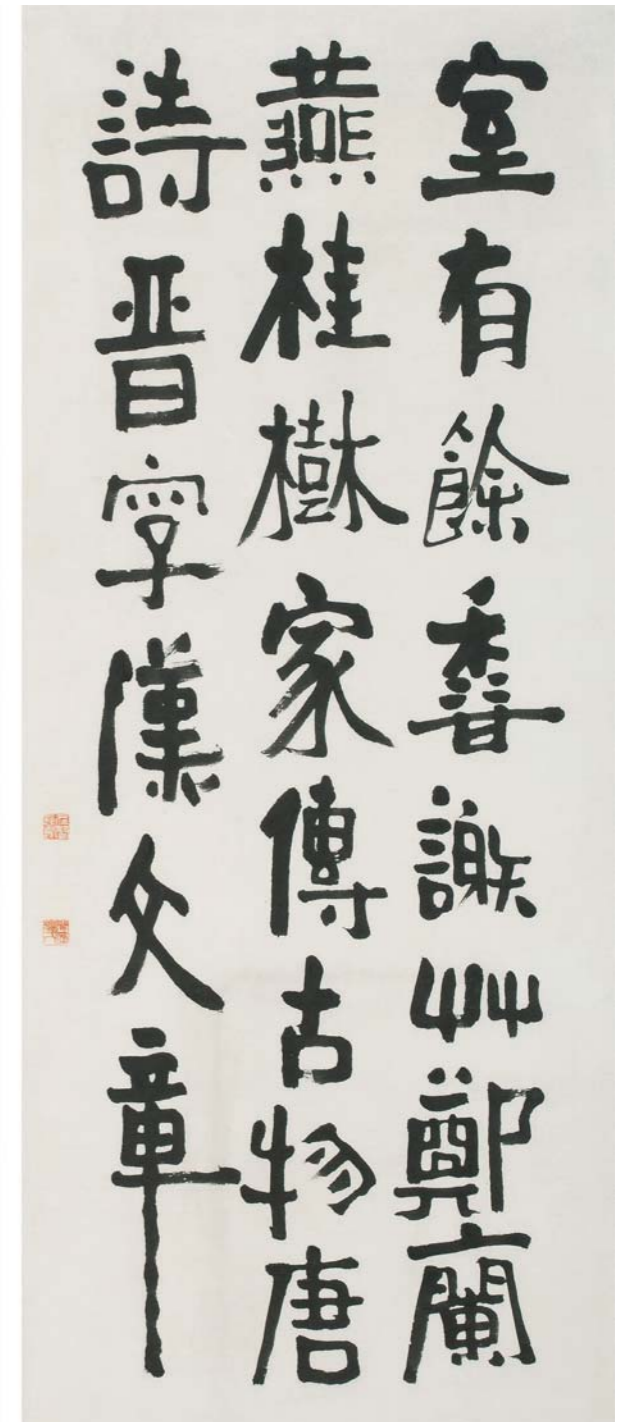
018
 여초 김응현 如初 金膺顯
 안동安東, 선경善卿 / 1927-2007
 여고위도 與古爲徒
 1987년(정묘)
 종이에 먹/ 액자
 41x46cm
 ₩ 400,000-1,200,000



019
 연민 이가원 淵民 李家源
 진보眞寶 / 1917-2000
 이문주연빈봉 以文酒燕賓朋
 1979년
 종이에 먹/ 액자
 35x26.9cm
 ₩ 300,000-800,000



020
 소전 손재형 素荃 孫在馨
 밀양密陽 / 1903-1981
 시고 詩稿 2점
 종이에 먹/ 가배첩
 129.8x54cmx2
 ₩ 1,500,000-3,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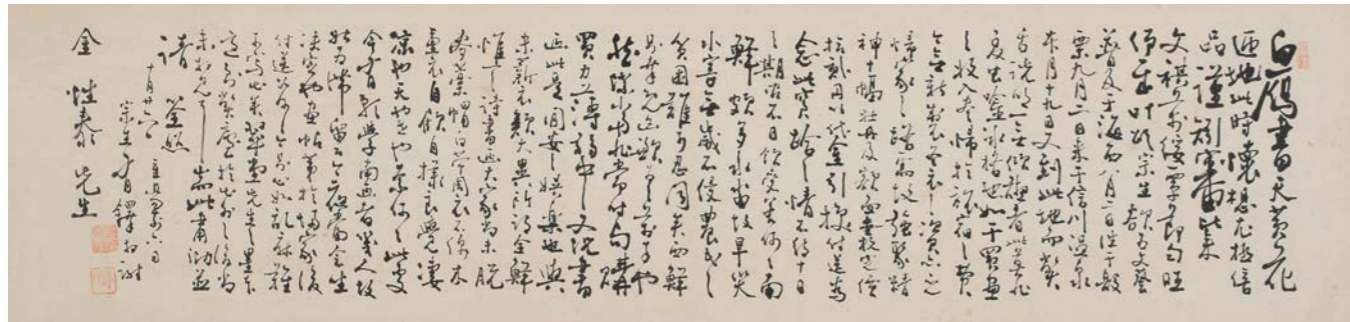


021

소전 손재형 素荃 孫在馨
밀양密陽/ 1903-1981

정중관물화 靜中觀物化
1957년(정유)
종이에 먹/ 액자
31x119cm

₩ 500,000-1,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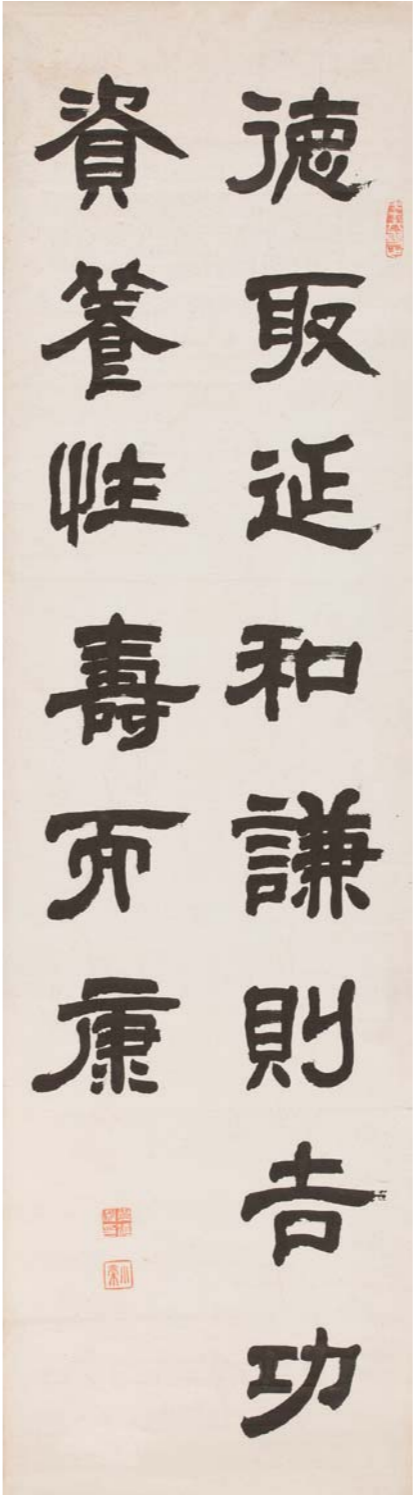


022

수암 김유탉 守巖 金有鐸
1875-1956년 이후

서간 書簡 : 김성태 金性泰 선생께
1901년(신축)
종이에 먹/ 액자
26x110cm

₩ 500,000-1,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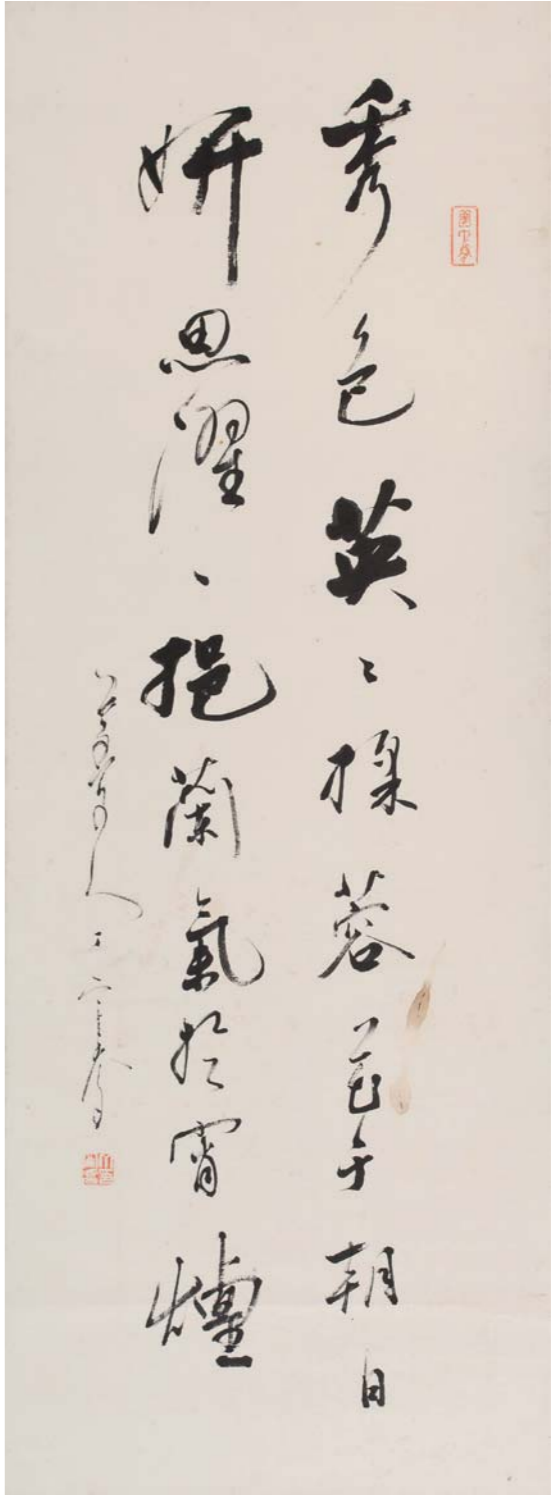


023

소당 김석준 小棠 金奭準
선산善山, 희보姬保/ 1831-1915

시고 詩稿
종이에 먹/ 가배집
131x35.2cm

₩ 800,000-1,800,000



024

몽인 정학교 夢人 丁學教
나주羅州, 화경化境/ 1832-1914

시고 詩稿
종이에 먹/ 족자
107.5x39.2cm

₩ 1,000,000-2,300,000

秀色英英採 簾蓉于朝日
妍思濯濯挹 蘭氣投宵燭

아름다운 자태 빼어나고 빛나니,
아침햇살 속 부용화 같도다.
고운 생각이 맑고 깨끗하게 떠오르니,
난초 향기 밤안개에 드리운 듯하네.

幼內外凶恭肅靜嚴謹歸音
 亦身自是是寺木貴指財薄
 與喪而族久甲輪也擇賢授
 廉潔貴紳與婦來洲也勿計
 與內外凶恭肅靜嚴謹歸音
 亦身自是是寺木貴指財薄
 與喪而族久甲輪也擇賢授
 廉潔貴紳與婦來洲也勿計
 與內外凶恭肅靜嚴謹歸音
 亦身自是是寺木貴指財薄
 與喪而族久甲輪也擇賢授
 廉潔貴紳與婦來洲也勿計

厚匿見富貴而主詔商賈
 可也對資賤而性驕慈商賤
 莫早居富貴者爭訟 = 財終凶
 氣世齊多言 = 多財老無恃
 勢所不獲福所屬喪貪日賤
 不獲福性貪亦僻自是獲福
 亦多獲福自甘富猶難族神
 眼翠少久以有累必成老
 族裔財可相於輕錢幣言肉
 鹹米欠之讓怒當忍三喪
 因事相爭肉和果我之不是
 自于也細想族裔易念有累
 莫命月事當司餘坤得竟不
 自再往欠司喜慶不可止好
 幸之也善能欠問不是真善
 聖神允知得是火琴見虎而
 記推也報在善慶慶而不用
 暗箭禍延甲孫家門鹹眼雖
 驚覺不繼惜司餘權國課早
 自的薰薰齋餘自得真樂讀
 壽者在聖賢為自也存同國
 自分肉資財時總不為欠苛
 此庶民欲焉

晉三丙子小春月右臨朱柏廬治家要訣
 惺齋金台錫

025

성재 김태석 惺齋 金台錫
 경주慶州/ 1875-1953
 주백려치가요결 朱柏廬治家要訣
 1936년(병자)
 종이에 먹/ 가병풍
 138.5x34.5cmx12
 ₩ 3,000,000-6,000,000

勤明所起灑掃庭除內外
 蠶織所司經緯關鎖門戶
 親目點檢寸蠶寸飯當寒來
 氣上未易半絲半縷恆念
 力上惟觀凶末雨不綢繆
 斷澗不坵井台養以復檢
 食廉切勿留神器具質而潔
 百由騰於金玉飾命約而精

厚匿見富貴而主詔商賈
 可也對資賤而性驕慈商賤
 莫早居富貴者爭訟 = 財終凶
 氣世齊多言 = 多財老無恃
 勢所不獲福所屬喪貪日賤
 不獲福性貪亦僻自是獲福
 亦多獲福自甘富猶難族神
 眼翠少久以有累必成老
 族裔財可相於輕錢幣言肉
 鹹米欠之讓怒當忍三喪
 因事相爭肉和果我之不是
 自于也細想族裔易念有累

026

고균 김옥균 古筠 金玉均
 안동安東, 백은伯溫/ 1851-1894
 시고 詩稿
 종이에 먹/ 족자
 134.5x32.4cm
 ₩ 1,000,000-2,300,000

群仙邀我入山扉 物態繽紛映夕暉
 十里芙蓉花尚早 時看白鳥兩三飛

上田 玉均
 古筠 金玉均

群仙邀我入山扉 物態繽紛映夕暉
 十里芙蓉花尚早 時看白鳥兩三飛
 연못 신선이 나를 불러 산문 안으로 들게 하니,
 온갖 경물은 어지러이 저녁 햇살에 비치네.
 십 리 연못의 연꽃은 아직 피기 이른데,
 이따금 흰 새 두세 마리 날아가는 것을 보네.



027

조맹 趙孟·조정기 趙廷機·조수익 趙守翼
묘갈 墓碣 및 묘표 墓表 : 탁본첩

종이에 탁본/ 첩
36x27.5cm(41면)

₩ 1,500,000-3,200,000

풍양 조씨의 시조인 조맹趙孟(?-?)의 묘갈 일부와 조정기趙廷機(1535-1575), 조수익趙守翼(1565-1602) 부자의 묘갈과 묘표의 탁본을 모은 첩이다.

조맹은 고려 개국공신이자 풍양 조씨의 시조이다. 조정기는 조맹의 31대손으로 승정원주서, 홍문관수찬·교리 등을 지냈고 아들 조수익은 사헌부지평, 여러 조의 정랑, 홍문관수찬·부교리, 임천군수 등을 지냈다. 사후에는 임진왜란 때의 호종 공로로 호성선무중훈녹권感聖宣武從勳錄券이 내려졌다.

조맹의 묘갈은 조선 중기의 문장가로 이름난 계곡 장유谿谷 張維(1587-1638)가 비문을 지었고, 이현李鉉(?-?)이 글씨를 썼다.

조정기의 묘갈은 청음 김상현金尙憲(1570-1652)이 비문을 짓고, 본문은 낙전당 신익성金樂堂 申翺聖(1588-1644)이 썼으며, 전액은 선원 김상용金尙容(1561-1637)이 썼다.

조수익趙守翼의 묘표는 신익성이 지었다. 한편 조수익의 묘표에는 신익성의 아버지인 상촌 신희象村 申欽(1566-1628)이 조수익의 묘지墓誌를 지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어, 신희와 신익성 부자가 풍양 조씨 가문의 비지碑誌 제작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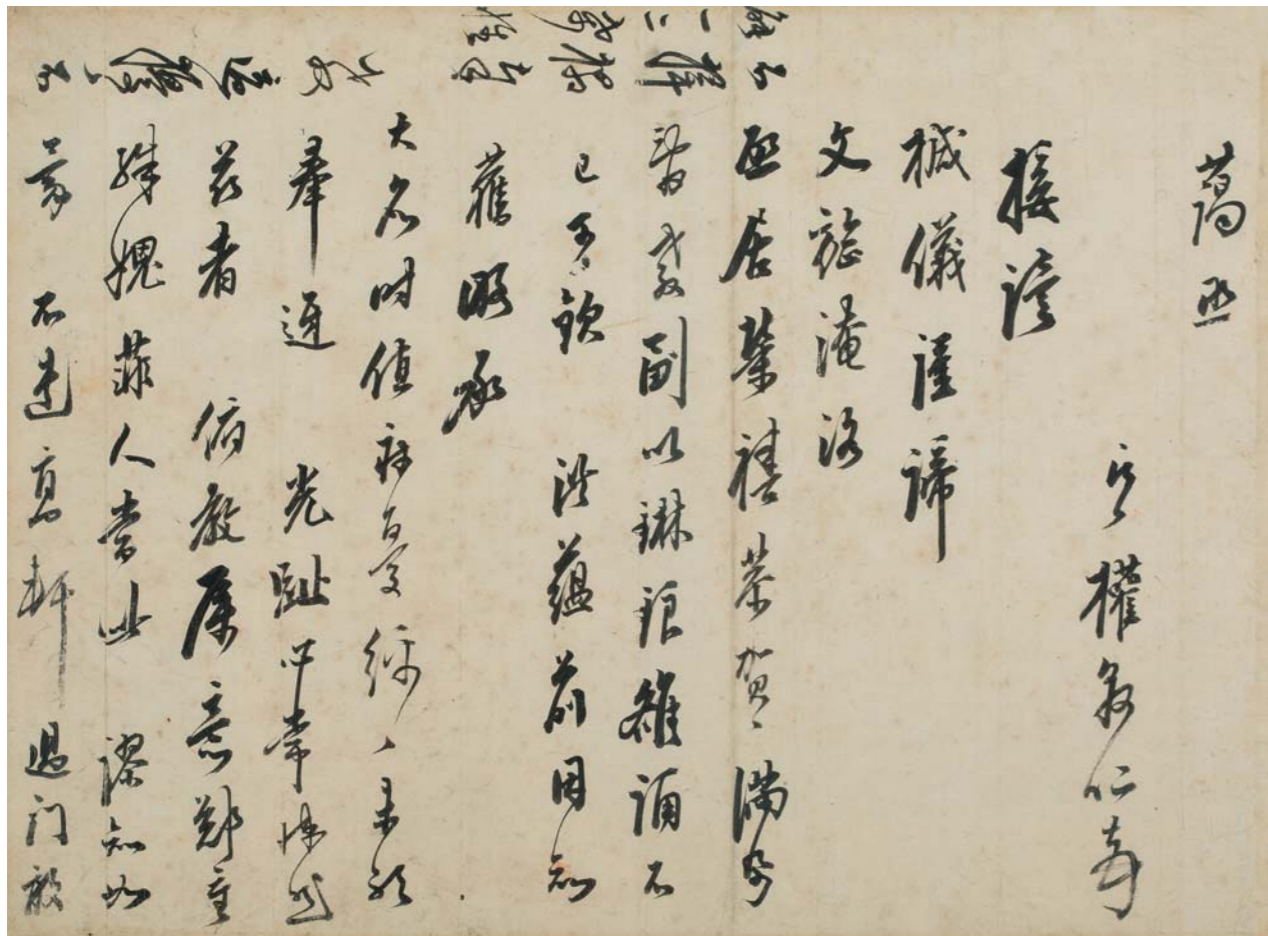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필
경주慶州, 원춘元春/ 1786-1856

효제역전 孝弟力田 : 편액
나무에 서각, 채색/ 편액
38x145.5cm

₩ 1,500,000-4,000,000

‘효제孝悌’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을 뜻하며, 고대 동양 사회의 기본 도덕규범이자 유교적 교화의 출발점으로 여겨졌다. ‘역전力田’은 농사에 힘쓰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농업 생산 활동과 관련된다.

‘효제역전孝悌力田’은 한·말 나라 때 백성의 도덕적 실천과 생업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인재 선발의 기준이자 국가 정책의 하나였다. 조선에서도 이는 유교적 도덕성과 농업을 바탕으로 한 국가 운영의 근본을 함께 보여주는 개념으로 자주 인용되었다.



029

이재 권돈인 彝齋 權敦仁

안동安東, 경희景義/ 1783-1859

서간 書簡

종이에 먹/ 액자
37x50cm

₩ 800,000-2,000,000



030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필

경주慶州, 원춘元春/ 1786-1856

편액 扁額

나무에 서각/ 편액
29.5x63.5cm

₩ 3,000,000-8,000,000

莊周以後 見性如鏡 淪入禪理 芸台拈此 召諸字 如日中天

장주莊周(장자莊子) 이후로 성품을 보는 것이 거울처럼 밝더니, 선리禪理에 빠져 들어가 운대芸台(완원阮元)가 『서경書經』 소고召誥의 글자를 드러내자 마치 해가 중천에 솟은 것 같이 밝아졌구나.

阮堂

完當

본 현판의 글씨는 본래 '절성節性'이라는 큰 글씨에 붙은 제발題跋로, 김정희의 스승 완원阮元(1764-1849)이 강조한 덕목을 표현한 것이다.

완원은 운대芸台 이외에도 '절성노인節性老人'이라는 호와 '절성제節性齋'라는 당호를 사용하였다. 절성은 성을 절제한다는 뜻으로, 『서경書經』 「소고召誥」에는 “은연나라 관리들을 복종시켜 우리 주나라 관리들과 친근하게 하면, 그들의 성을 절제하게 되어 그들이 날로 발전할 것이다. 節性惟日其邁”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왕제王制」에는 “사도가 육례를 닦아서 백성들의 성을 절제한다. 司徒修六禮 以節民性”고 하였다.



참고도판 |

〈절성 현판〉 사진 인화본(후지츠카 치카시 사진), 『추사박물관 개관도록』, (추사박물관, 2013), p.239

孟夏草木長 繞樹扶疎

초여름이라 초목들이 자라고,
집 둘레에는 수목이 무성하네.

衆鳥欣有託 吾亦愛吾廬

못 새들은 깃들 곳이 있어 기뻐하고,
나 또한 나의 초가를 사랑하네.

既耕亦已種 時還讀我書

밭 갈아 씨를 뿌리고,
집에 돌아와 책을 들추어 읽네.

窮巷隔深輦 頗迴故人車

후미진 곳이라 벼슬아치 발길 멀지만,
옛 벗의 수레가 이따금 돌아 찾아오네.

歡然酌春酒 摘我園中蔬

기쁜 마음으로 봄술을 따르고,
내 뜰의 채소를 따네.

微雨從東來 好風與之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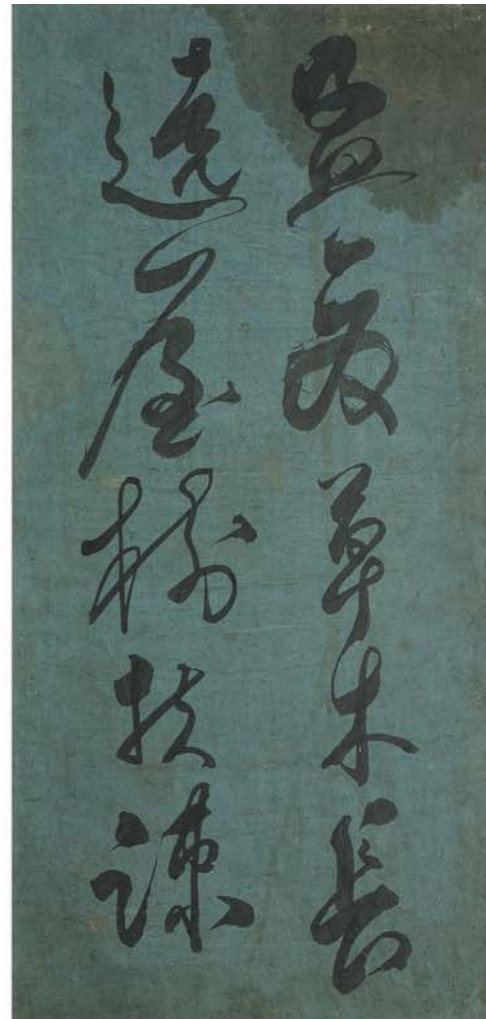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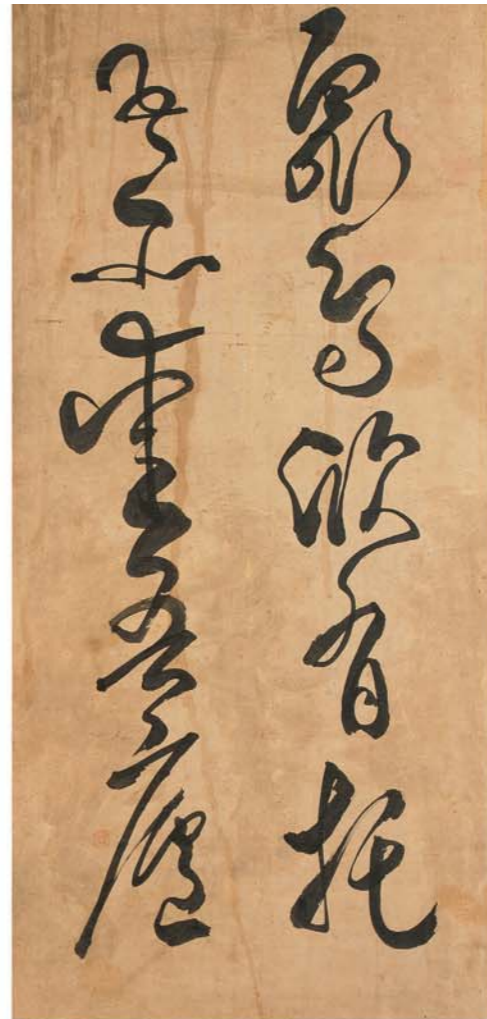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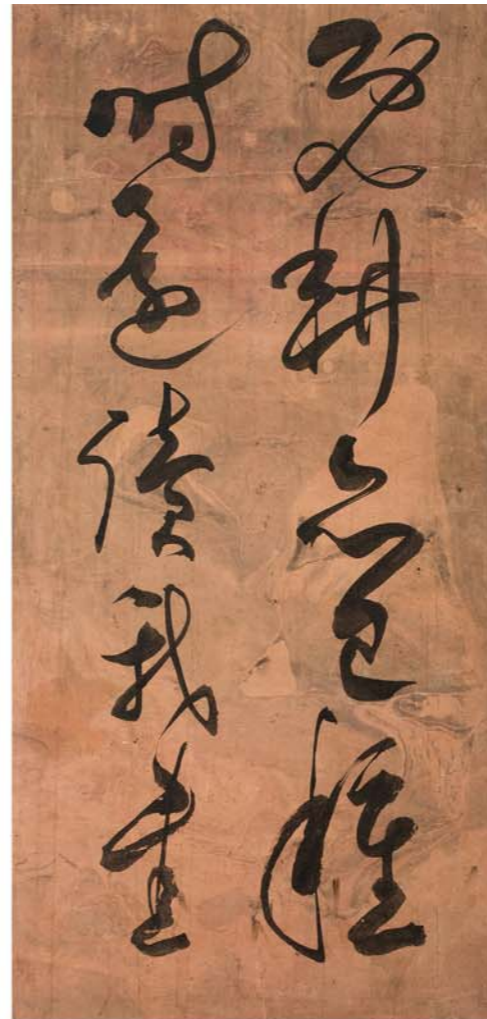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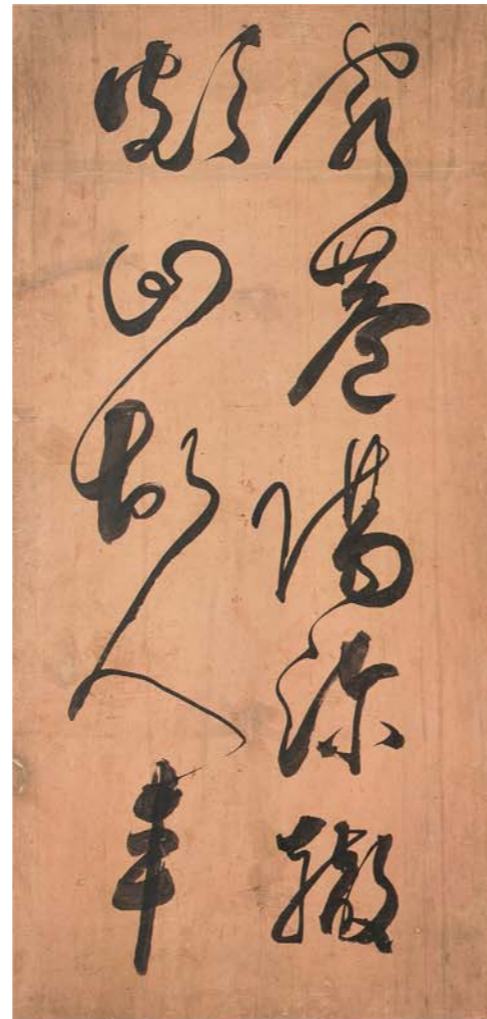
보슬비 동쪽에서 내려오고,
훈훈한 바람이 함께 불어오네.

汎覽周王傳 流觀山海圖

주왕전을 두루 펼쳐 보고,
산해경의 그림을 따라 흘러가듯 살펴보네.

俯仰終宇宙 不樂復何如

아래위로 고개돌려 우주를 꿰뚫으니,
즐겁지 않다면 또 무엇이 즐거우랴.



031

창암 이삼만 蒼巖 李三晩

전주全州, 윤원允遠 / 1770-1847

시고 8폭병풍 詩稿八幅屏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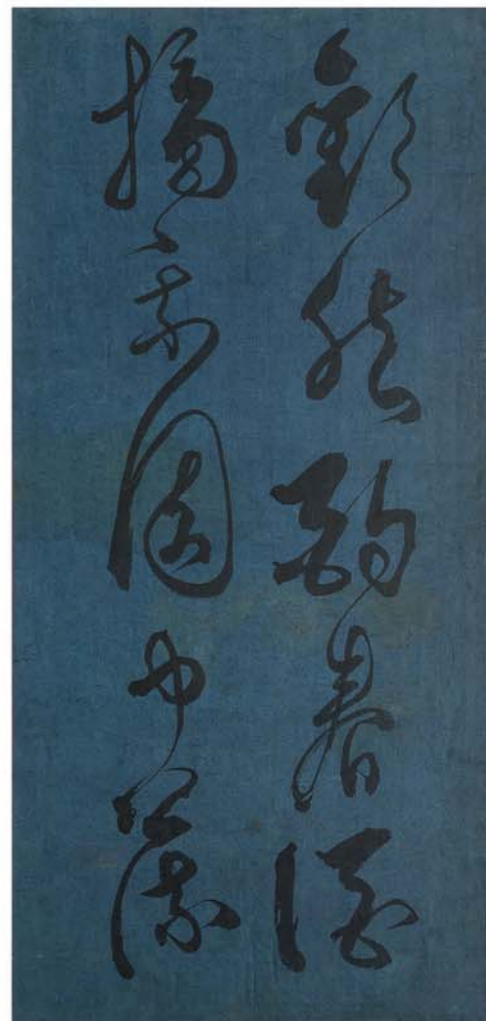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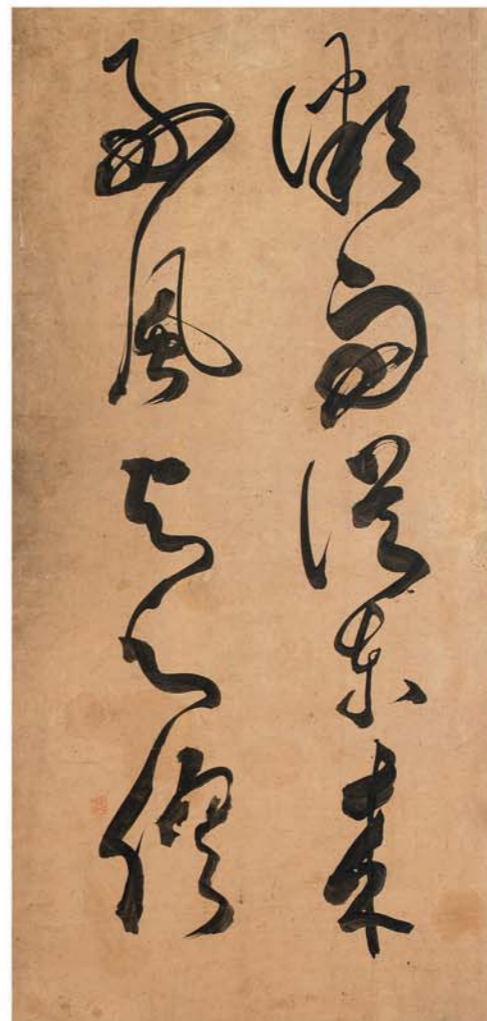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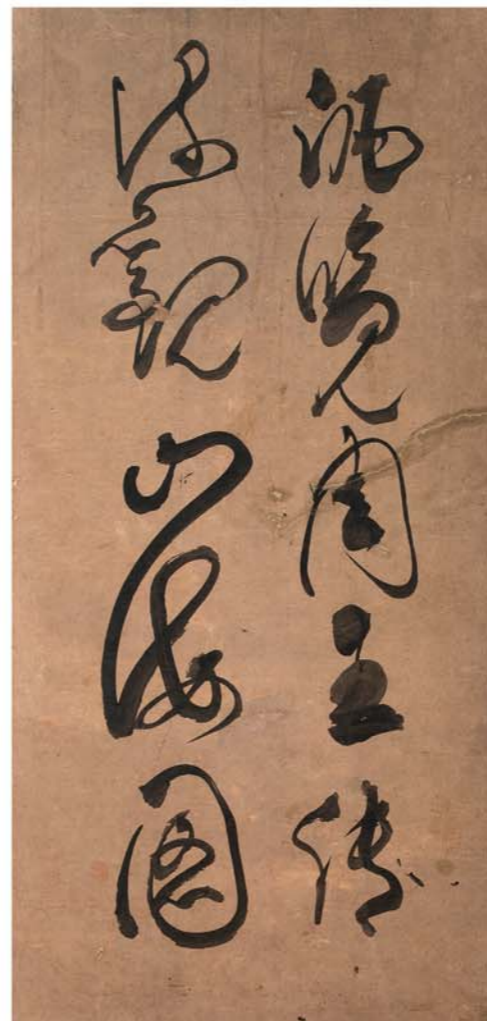
종이에 먹/ 병풍
98.5x46.7cmx8

₩ 5,000,000-15,000,000

출품작은 조선 후기의 명필 창암 이삼만蒼巖 李三晩이 도연명陶淵明의 「독산해경讀山海經」 제1수를 쓴 대자 초서 병풍이다. 여덟 폭으로 구성된 화면에는 각 폭마다 두 줄의 글씨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으며, 시구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작품은 큰 자형과 빠른 운필을 바탕으로 한 이삼만 초서의 활달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획의 굵고 가는 변화, 먹의 농담, 비백飛白의 효과와 연면連綿되는 필세가 어우러지며 화면에 생동감 있는 리듬을 만든다. 대자大字로 쓴 초서임에도 자유로운 필법과 안정된 구성감이 함께 드러나는 점에서 이삼만 서예의 개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서로 다른 색지色紙를 사용한 점도 이 병풍의 특징이다. 담갈색, 황토색, 청록색, 남색 계열의 바탕이 폭마다 교차되어 서예 작품으로서의 구성에 장식적인 효과를 더한다. 도연명 시의 한적한 정취와 창암 초서의 활달한 필치가 어우러져, 조선 후기 대자 초서 병풍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032

원교 이광사 圓嶠 李匡師

전주全州, 도보道浦 / 1705-1777

수북진적 壽北眞蹟

종이에 먹/ 첩
36.7x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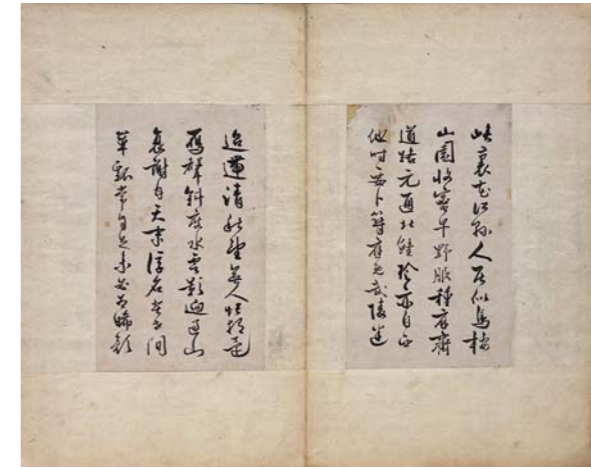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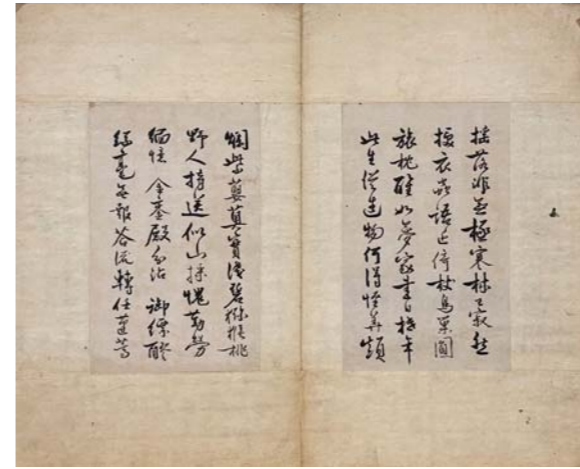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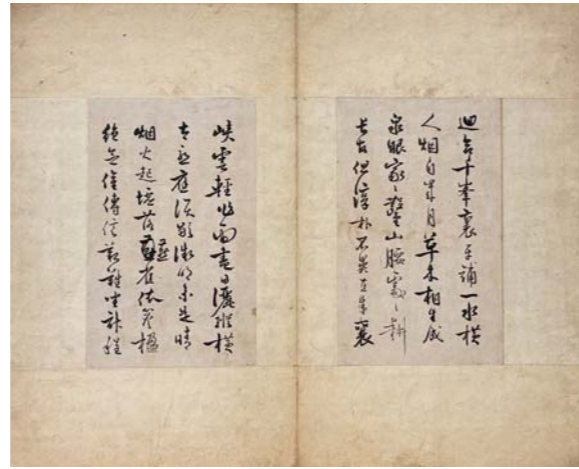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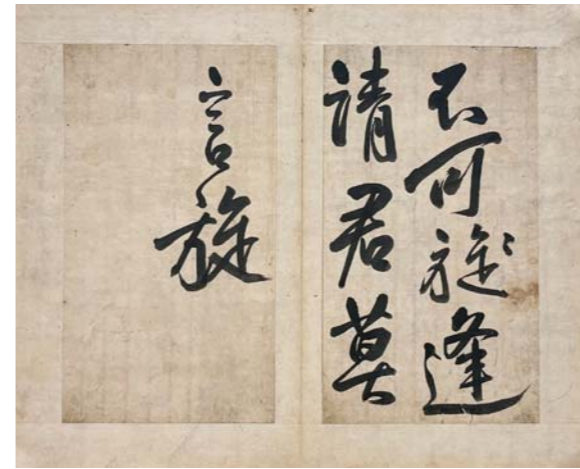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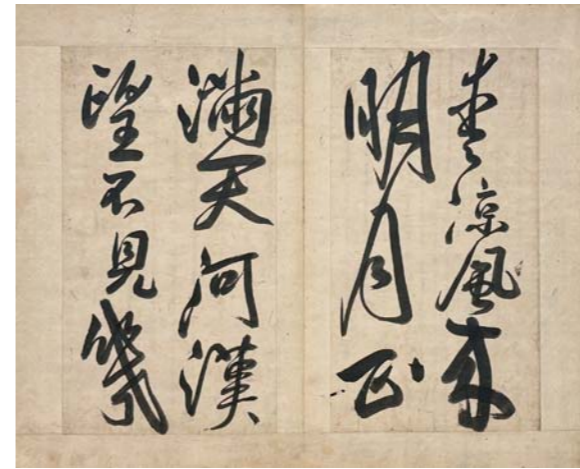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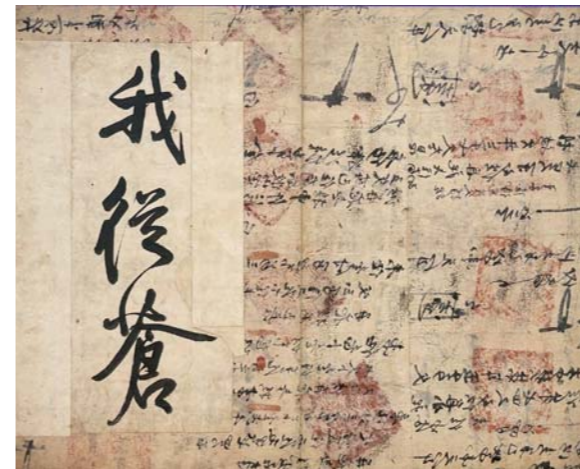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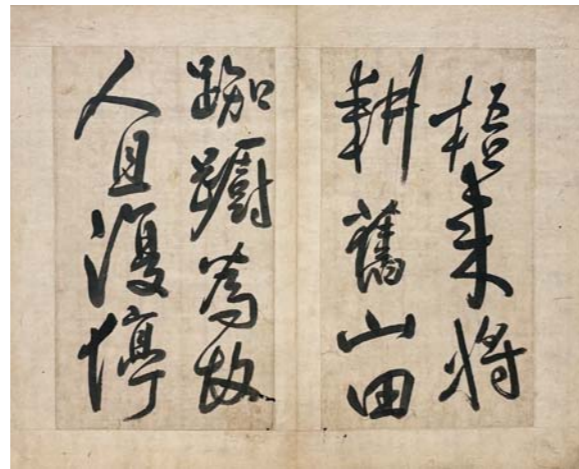
₩ 4,000,000-10,000,000

출품작은 조선 후기 문인 서화가이자 명필로 알려진 원교 이광사의 필첩이다.

원교 이광사는 조선 후기 문인이자 화가로 백하 윤순(白下 尹淳, 1680-1741)의 문하에서 필법을 익혔다. 왕희지(王羲之)의 글씨로 대표되는 육조시대(六朝時代)의 서풍을 수용하여 윤순과 비슷하면서도 더 활달한 획의 변화가 있는 글씨를 썼으며 자기만의 독특한 서체인 원교체(圓峯體)를 이룩하였다.

이 첩은 표지에 '수북진적(壽北眞蹟)'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으며, 총 21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에는 비교적 큰 글씨의 행서체로 당대(唐代) 시인인 원결(元結)의 「류시어월야연회(劉侍御月夜讌會)」의 전문을 썼으며, 그 뒤로는 금대(金代) 이가환(李家煥)의 오언시 「화강만흥(花江漫興)」을 비롯한 오언시 8수를 각 면에 한 수씩 작은 행서체로 썼다.

원교체의 진수는 그의 행서에서 나타나는데, 이 작품은 이광사가 큰 글씨와 작은 글씨의 행서로 오언시 9수를 적은 필첩으로 그의 유려하고 활달한 행서 서풍을 잘 보여준다.



道表乎哉

至居言堙

不有先覺

孰聞象人

書不名言

危不名言

月風名急

危字名舉

矩名視方

繩直準平

允矣君子

辰也大成

希帛之文

菲粟之味

知德者稀

孰達其貴

早悅孫吳

脫逃佛老

勇撤鼻比

一及至危

潛思力踐

妙契疾書

訂頑之刻

示我廣居

033

우암 송시열 尤庵 宋時烈
은진원주, 영보영남/ 1607-1689

육선생화상찬 六先生畫像讚
종이에 먹/ 병풍
104x73.5cmx8

₩ 60,000,000-100,000,000

출품작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1607-1689)이 주자(朱子)가 지은 「육선생화상찬(六先生畫像贊)」 가운데 옆계 주돈이(濂溪 周敦頤), 이천 정이(伊川 程頤), 횡거 장재(橫渠 張載)에 대한 찬문을 쓴 서예 작품이다.

송시열은 율곡 이이(栗谷 李珣(1536-1584)와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1548-1631)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畿湖學派)의 학통을 계승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유학자이다.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1606-1672)과 함께 '양송(兩宋)'으로 불리며 학문과 정치 양면에서 큰 영향력을 지녔고, 주자학을 사상적 근거로 삼아 예(禮)의 실천과 유교적 명분, 도리를 중시하는 학문을 전개하였다. 사후에는 문묘에 배향되며 조선 성리학의 정통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였다.

송시열의 학문에서 주자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었다. 그는 주자의 학설을 조선 성리학의 정통으로 인식하고, 경전 해석과 예론(禮論), 의리론(義理論) 전반에서 주자의 사상을 깊이 탐구하였다. 본 작품이 주자의 「육선생화상찬」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송시열의 이러한 학문적 지향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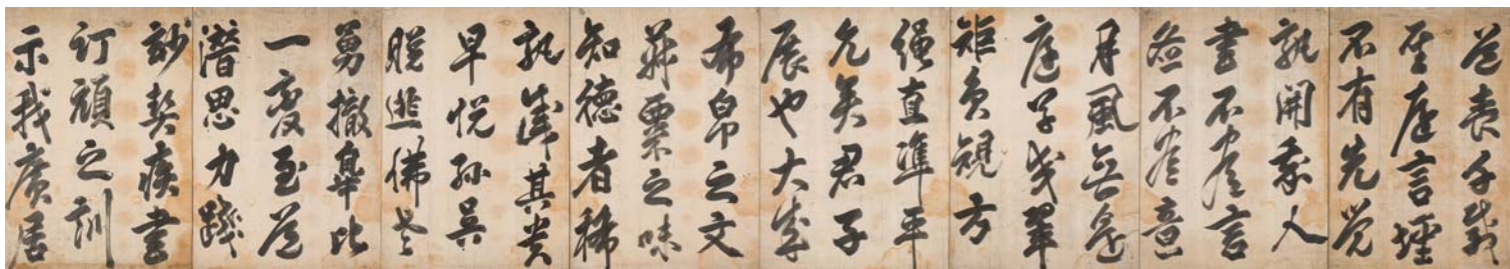
「육선생화상찬」은 주자가 북송 성리학의 주요 인물들을 기리며 지은 찬문이다. 출품작에는 그 가운데 성리학의 형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돈이, 정이, 장재 세 인물에 대한 찬이 담겨 있다. 주돈이 찬은 도가 쇠하고 성인의 말씀이 멀어진 시대에 선각자가 지닌 의미를 말하며, 정이 찬은 법도와 기준, 군자의 완성된 인격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장재

찬은 병가(兵家)와 불로(佛老)의 학문을 거쳐 유학의 도에 이른 과정을 언급하며, 실천적 수양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북송 성리학의 계보를 주자의 시각을 통해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송시열이 중시한 주자학적 도통(道統) 의식과도 연결된다.

송시열의 서예는 석봉 한호(石峯 韓濩(1543-1605)의 석봉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안진경체(顔眞卿體)의 영향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서, 행서, 초서가 두루 전하며, 특히 비문(碑文)과 편액(扁額), 대자서(大字書)에서 굵은 필획과 안정된 결구, 장중한 구성이 두드러진다. 송시열의 글씨는 글자의 골격을 굳게 세우고 획의 힘을 크게 드러내는 데 장점이 있으며, 문장 전체를 압도하는 중후한 기세가 특징이다.

출품작 역시 가로로 긴 화면에 큰 글씨로 쓴 행초서 작품으로, 송시열 대자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글자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필획의 연결과 운필에 속도감이 더해져 긴 화면이 단조롭게 보이지 않는다. 획의 굵기와 방향, 붓이 나아가는 힘이 그대로 드러나며, 행초서의 유연한 흐름 속에서도 글자의 골격은 단단하게 유지된다. 굵고 힘 있는 필획과 안정된 구성이 어우러져 송시열 글씨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중후하고 웅건한 기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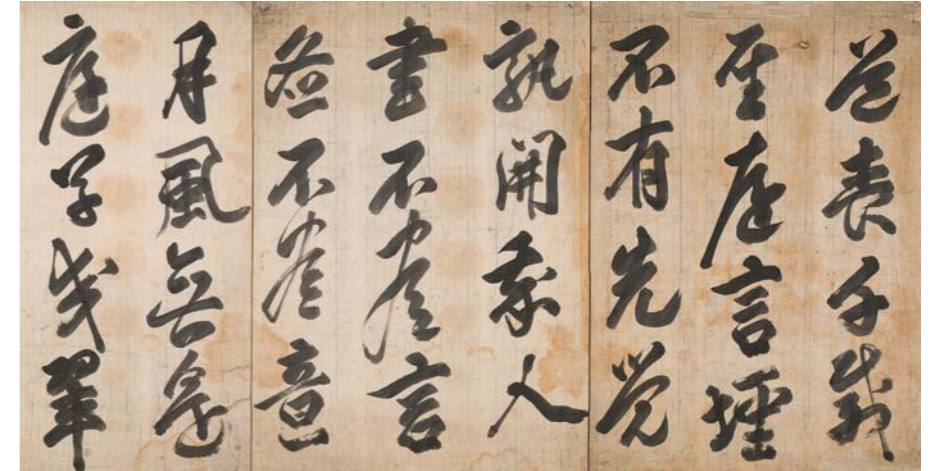
작품수록처 | 「2006-2007 동춘당-우암선생 탄생 400주년 기념-송준길-송시열」 (예술의전당, 2007), pp.78-81



옆계 주돈이

道喪千載 聖遠言堙 不有先覺 孰開我人
書不盡言 圖不盡意 月風無邊 庭草交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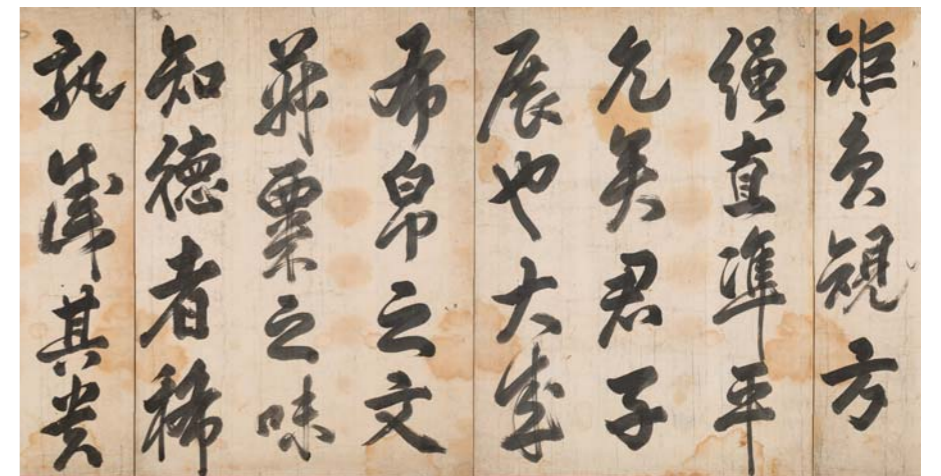
천년동안 도가 없어졌으니
성인은 멀고 말씀도 사라졌네.
선각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깨우쳐 주리.
글은 말을 다 할 수 없고
그림도 생각을 다 하지 못하네.
달빛과 바람은 가이 없는데
뜨락의 풀이 서로 푸르구나.



이천 정이

矩員規方 繩直準平 允矣君子 展也大成
布帛之文 菽粟之味 知德者稀 孰識其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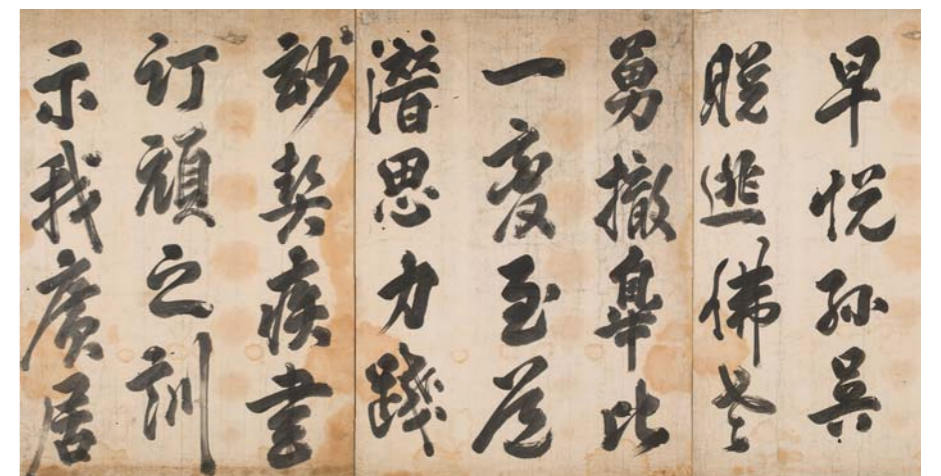
그림쇠는 원, 곱자는 각을
먹줄은 직선 수준기는 평평하네.
진실로 군자여서
참으로 크게 이루셨네.
배와 비단 같은 문장에
콩과 좁쌀의 맛이지만
덕은 아는 사람 드무니
누가 그 귀함을 알아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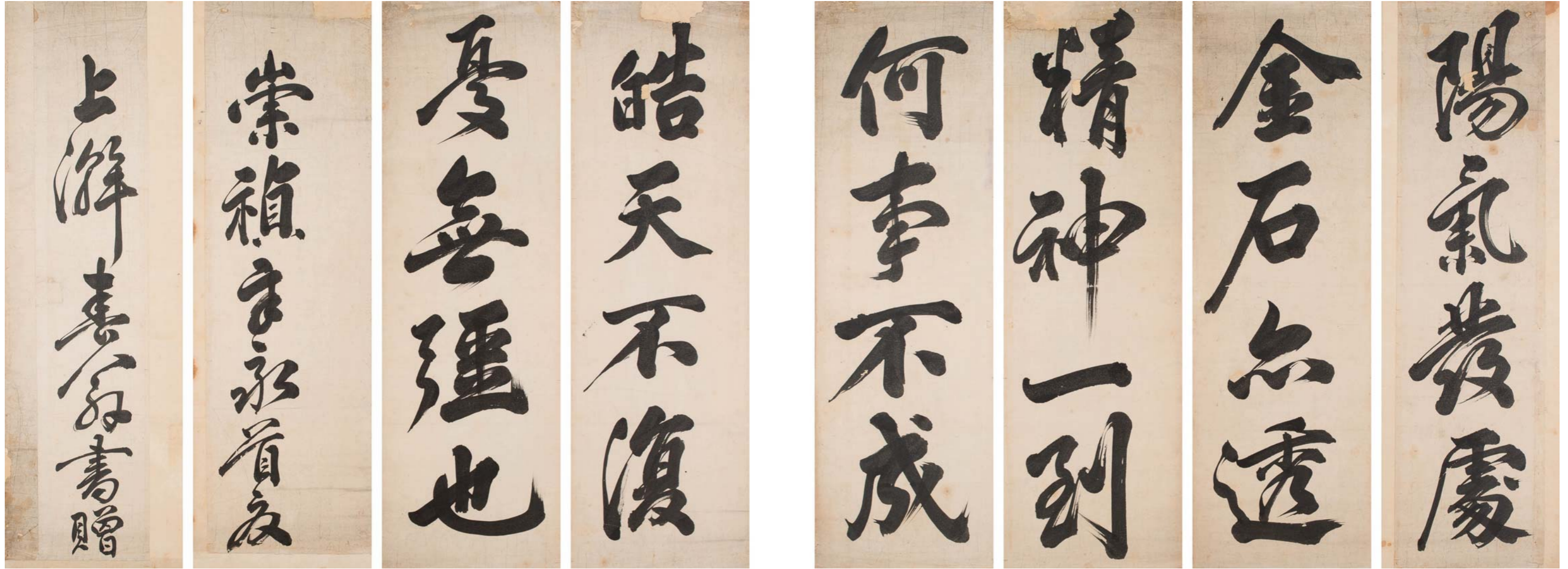


횡거 장재

早悅孫吳 晚逃佛老 勇撤皋比 一變至道
潛思力踐 妙契疾書 訂頑之訓 示我廣居

일찍이 손자(孫子)와 오자(吳子)를 좋아하다가
만년에 불학(佛學)과 노장(老莊)으로 피했네.
용감하게 강단(講壇)을 떨치고
한 번 변하여 도에 이르렀네.
정밀하게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며
절묘하게 계합되면 급히 적었네.
정원(訂頑)의 훈계가
나에게 광거(廣居)를 보여주셨네.





034

동춘당 송준길 同春堂 宋浚吉

은진 恩津, 명보 明甫 / 1606-1672

양기발처 陽氣發處

1671년(신해)
종이에 먹 / 병풍
113x36cmx8

₩ 45,000,000-80,000,000

陽氣發處 金石亦透
精神一到 何事不成
皓天不復 憂無疆也

양기가 발發하는 곳에 금석도 뚫을 수 있다.
정신을 한결같이 하면 어떤 일이든 이루지 못하겠는가?
밝은 하늘이 회복되지 않으니 근심이 그지없도다.

崇禎辛亥 首夏 上澣 春翁書贈
송정 신해년(1671) 음력 5월 상한에 춘옹이 써주다.



참고도판 | 대전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생애길' 석재 조형물 사진 ©대전마케팅공사

출품작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성리학자인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1606-1672)이 『주자어류朱子語類』와 『순자荀子』 『부편賦篇』의 구절 일부를 대자大字로 쓴 서예 작품이다.

송준길은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1548-1631)과 신독재 김집慎獨齋 金集(1574-1656)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율곡 이이栗谷 李珥(1536-1584)로 이어지는 기호학과畿湖學派의 학통을 계승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유학자이다.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1607-1689)과는 한 살 차이로 어려서부터 함께 수학하였고, 이후 학문적·정치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두 사람은 17세기 서인 학통을 대표하는 인물로, '양송兩宋' 시대를 전개하였다.

송준길은 서예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그의 글씨는 송시열의 글씨와 함께 '양송체兩宋體'로 불리며 기호학과 문인들과 은진 송씨가문을 중심으로 계승되었다. 송준길의 글씨는 단정한 골격과 군센 필세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문인 서예 특유의 온화한 기운을 지닌다. 행서와 초서에 능하였고, 특히 큰 글씨와 비갈碑碣의 글씨에서 그 장점을 잘 드러냈다. 송시열의 글씨가 중후하고 웅장한 필세를 특징으로 한다면, 송준길의 글씨는 활달한 운필 속에서도 부드럽고 온화한 정취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출품작은 송준길이 1671년에 쓴 대자 행초서 8폭 병풍으로 송준길 만년의 필치를 잘 보여준다.

이 작품은 큰 자형을 사용하면서도 글자의 폭을 과도하게 넓히거나 과장하지 않고 각 글자의 중심을 유지하여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획의 굵기에는 변화가 있고 붓의 흐름에는 속도감이 느껴지지만 전체적인 결구는 흐트러지지 않고 균형을 이룬다. 굵은 획에서는 힘 있는 필세가, 이어지는 획에서는 행초서 특유의 유연한 운필이 드러나 글자마다 생동감을 더한다.

이처럼 큰 글씨가 주는 시각적 힘과 행초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함께 나타나면서도, 작품 전반에는 단정하고 절제된 분위기가 유지된다.

이 작품은 문구의 출전과 내용을 통해 성리학자로서 송준길의 학문적 기반을 엿볼 수 있으며, 글씨의 구성과 필치에서는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도 획의 힘과 글자의 중심이 분명하게 유지되어 송준길의 서예적 역량을 함께 보여준다. 송준길 글씨가 가지는 온화하면서도 강건한 성격, 그리고 '양송체'로 대표되는 17세기 조선 사대부 서예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동춘당생애길'의 석재 조형물에도 이 병풍의 내용 전문이 새겨져 있다.

작품수록처 | 『2006-2007 동춘당 우암선생 탄생 400주년 기념-송준길-송시열』 (예술의전당, 2007), pp.42-43



036

송호 허정 松湖 許珽

양천 陽川, 중옥 仲玉 / 1621-?

일와 逸窩

종이에 먹 / 액자
41x65cm

₩ 1,000,000-2,300,000

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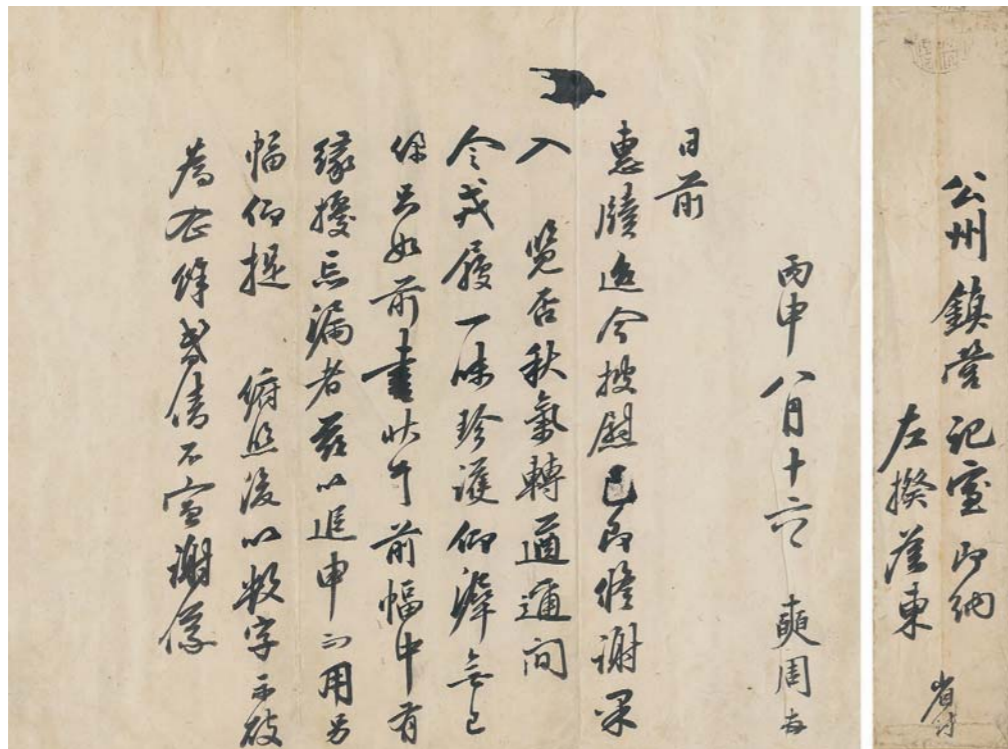
연천 홍석주 淵泉 洪奭周

풍산 豊山, 성백 成伯 / 1774-1842

서간 書簡

1836년(병신)
종이에 먹 / 가배첩
34.5x45cm

₩ 400,000-1,000,000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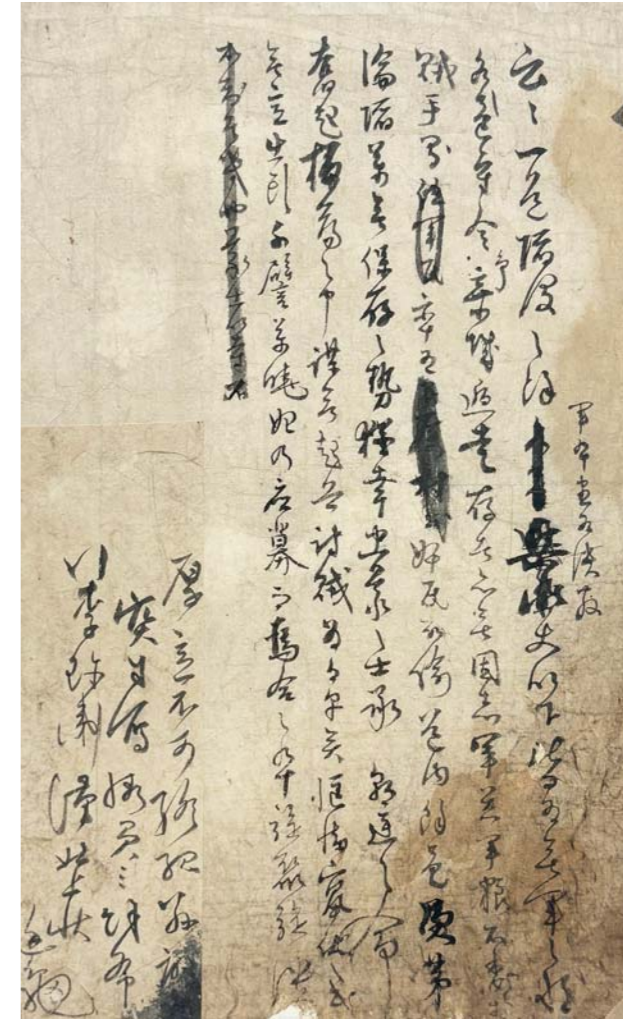
월사 이정구 月沙 李廷龜

연안 延安, 성징 聖徵 / 1564-1635

서간 書簡·시고 詩稿

종이에 먹 / 가배첩
40x24.5cm

₩ 700,000-1,500,000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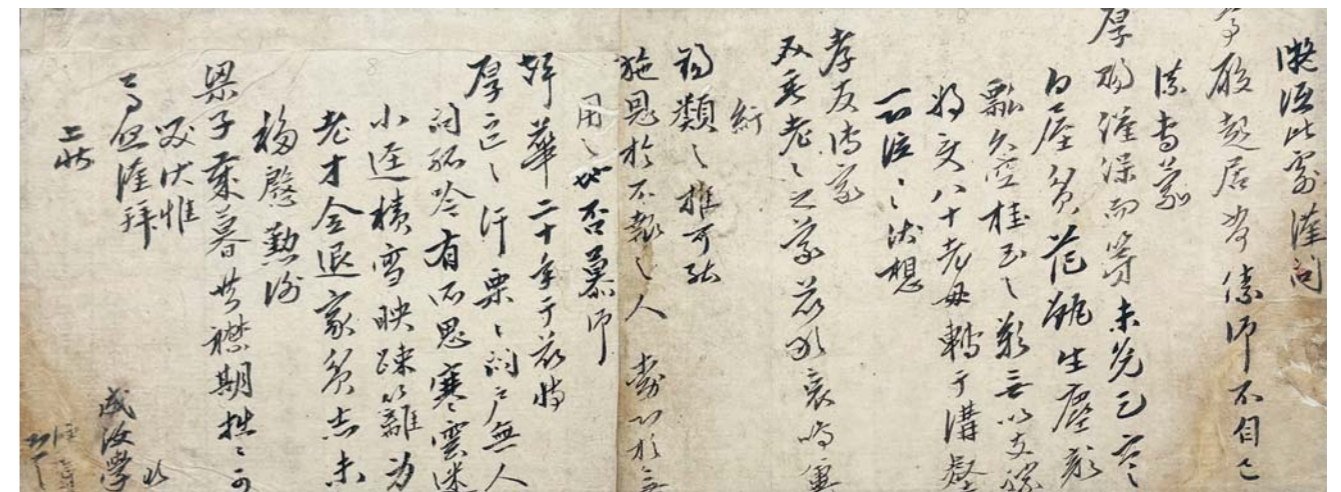
쌍천 성여학 雙泉 成汝學

창녕 昌寧, 학안 學顔 / 1558-?

서간 書簡

종이에 먹 / 가배첩
17.3x35cm

₩ 500,000-1,300,000



040

달구장은 達句長韻

종이에 먹/ 두루마리
37x1372.2cm

₩ 12,000,000-30,000,000



『달구장은 達句長韻』은 청장관 이덕무靑莊館 李德懋, 청성 성대중靑城 成大中, 태호 홍원섭太湖 洪元燮, 정수재 이병모靜修齋 李秉模, 선식재 정지순善息齋 鄭志愼, 문희 원득정聞喜 元得鼎과 동병 김득후東屏 金得厚가 1783년 대구에서 서로 잇달아 차운하여 쓴 연작시를 모아 만든 시축이다.

1783년 이덕무는 사근도 찰방沙斤道 察訪, 성대중은 곡강 군수曲江 郡守(흥해興海의 별칭)로, 홍원섭은 달성 통판達城 通判으로, 이병모는 경상도 관찰사慶尙道 觀察使로, 정지순은 주천 태수酒泉 太守로 재직중이었고 모두 대구에서 순차적으로 대면하게 되었다.

『달구장은』은 이덕무가 영재 유득공冷齋 柳得恭의 시에 차운하여 규장각 직제학이었던 철재 정지검徹齋 鄭志儉에게 올린 7언 고시를 홍원섭의 관소인 매죽헌梅竹軒에서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이덕무가 떠난 후 성대중이 홍원섭을 방문했는데, 두 사람은 떠난 이덕무를 그리워하며 그의 시에 차운하여 각각 시 한 수씩을 지었고, 홍원섭의 문객文客으로 있던 지역 문사 원득정도 함께 시를 남겼다. 원득정은 이덕무, 홍원섭, 성대중의 시에 자신의 것을 모아 '술자리 풍류의 성대함이 근래에 보기 드문 것'이라 칭하며 이병모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이병모가 또한 차운시를 쓴 뒤 정지순과 김득후에게 모임에 합류하여 화답시를 쓰도록 청해 총 7명의 차운시가 모이게 되었다.

홍원섭은 이 만남에 대해 '이처럼 기이한 만남은 백년에 한 번 허여한 일[名都往往邂逅奇, 此事百年天一與]'이라고 했고 성대중은 '달구장축은 교남의 성사[達句長軸, 亦嶠南盛事]'라고 자부하였으며 성대중이 남긴 김득후의 행장에 따르면 김득후는 임종을 앞두고 달구장을 펴놓게 했다고 한다. 당대 저명한 문사였던 저암 유한준著菴 俞漢準은 「달구장은」을 보고 읊조리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기록도 전한다.

이덕무, 성대중, 홍원섭, 이병모, 정지순은 각각 규장각의 각 신과 검서관, 교리 등을 역임하며 중앙무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고 김득후와 원득정은 경상도 지역 출신으로 문명文名을 떨친 인물들로 사제간이었다. 김득후와 원득정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김득후의 경우 이덕무, 성대중, 홍원섭, 유한준의 문집에 그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특히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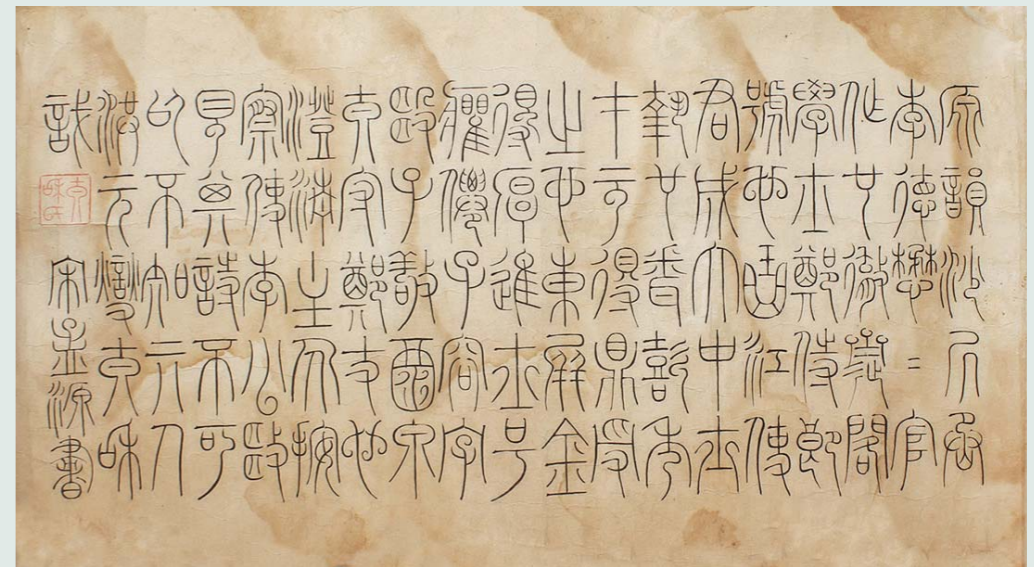
의 시제詩才를 칭찬하는 내용이 많다. 원득정은 중앙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지방 출신으로, 정지검과 한계 민중현寒溪 閔鍾顯의 청으로 홍원섭의 문객이 되어 이덕무, 성대중, 이병모 등의 인물들과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시축의 가장 앞에는 정지순이 행서로 '달구장은'을 썼고, 그 다음에는 시를 쓴 인물들의 간략한 정보를 밝히는 글이 전서체로 쓰여있다. 말미에 '송맹원서宋孟源書'라고 글씨를 쓴 이가 기록되어 있고 '태화씨太和氏'라는 인장이 찍혀있는데, '태화太和'는 홍원섭의 자字이다. 『청장관전서』 부록 상의 기록에 따르면 글은 홍원섭이 짓고, 송필연이라는 인물이 소전으로 쓴 것인데, 송필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의 자는 '맹원孟源'이고 홍원섭, 성해응, 위백규의 문집에 간략한 일화와 함께 '은진일사恩津一士', '신안포의新安布衣'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정조대 문인들과 가까이 교류했던 은진 송씨로 추정되나 벼슬은 하지 않았던 인물로 보인다.

이어서 성대중이 여러 색의 종이에 7명의 시 전문을 쓴 것이 십여미터 가량 펼쳐진다. 이덕무의 시를 시작으로 홍원섭, 성대중, 원득정, 이병모, 김득후, 정지순의 시가 차례로 기록되어 있고 이는 시를 쓴 순서와 동일하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와 성대중의 『청성집靑城集』, 홍원섭의 『태호집太湖集』에 '달구장은' 혹은 '달구장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청장관전서』에는 「달구장은」의 서문과 함께 7편의 시가 모두 전재全載되어있으나 그 실체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또, 『청장관전서』에 공개된 7편의 연작시 외에 홍원섭, 원득정, 성대중의 또 다른 시가 각 1수씩 더 첨부되어있어 흥미롭다.

『달구장은』은 규장내외각 출신으로 당시 경상도 지역에 재임하고 있던 지방관들의 해후邂逅와 지역 출신 문인들의 모임이라는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일시적 모임이었지만 이를 모방한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당대와 후대의 문사들에게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7명 중 이병모, 원득정, 김득후의 문집이 전하지 않아 세 인물의 시문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原韻 沙斤丞李德懋愨官作也 徹齋 閣學士鄭侍郎(志儉)號也 曲江 使君成大中士執也 聞喜 秀才元得鼎受之也 東屏 金得厚進士號 癯仙 子容 字也 子敬 酒泉太守鄭丈(持淳)也 澄清主人 按察使李公秉模也 得其詩 不可以不知其人 洪元燮太和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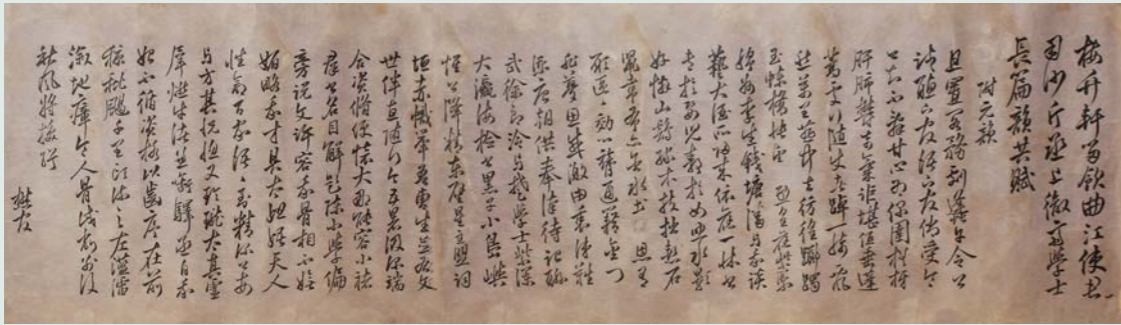
宋孟源書

원운原韻은 사근역승沙斤驛丞 이덕무 무관李德懋 愨官이 지은 것이며, 철재徹齋는 각학사閣學士 정시랑 지검鄭侍郎 持儉의 호이다. 곡강曲江은 사근使君 성대중 사집成大中 士執이고 문희聞喜는 수재秀才 원득정 수지元得鼎 受之이다. 동병東屏은 진사 김득후金得厚로 호는 구신癯仙, 자는 자용子容이고, 자경子敬은 주천태수酒泉太守 정지순鄭持淳이고 징청주인澄清主人은 안찰사按察使 이공 병모李公 秉模이다. 그 시를 보면서 그 지은 사람을 몰라서는 안 되기에 홍원섭 태화洪元燮 太和가 적었다.

송맹원宋孟源 쓰다.

Lot.040 달구장은 達句長韻

• 청장관 이덕무 靑莊館 李德懋	전주全州/ 무관懋官	1741-1793
• 청성 성대중 靑城 成大中	창녕昌寧/ 사집士執	1732-1812
• 태호 홍원섭 太湖 洪元燮	남양南陽/ 태화太和	1744-1807
• 문희 원득정 聞喜 元得鼎	원주原州/ 수지受之	1750-?
• 동명 김득후 東屏 金得厚	청풍淸風/ 자용子容	1724-1784
• 선식재 정지순 善息齋 鄭時淳	동래東萊/ 자경子敬	1723-1795
• 정수재 이병모 靜修齋 李秉模	덕수德水/ 이칙彝則	1742-1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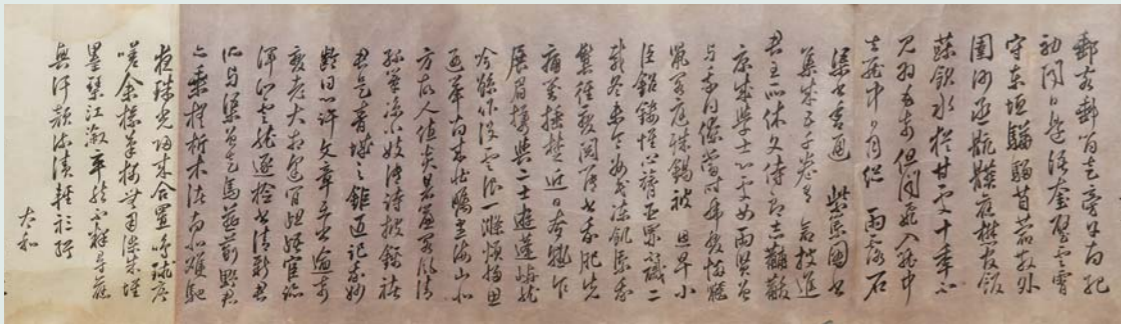


이덕무의 시

梅竹軒 留飲曲江使君 用沙斤丞上徹齋學士長篇韻 共賦 附元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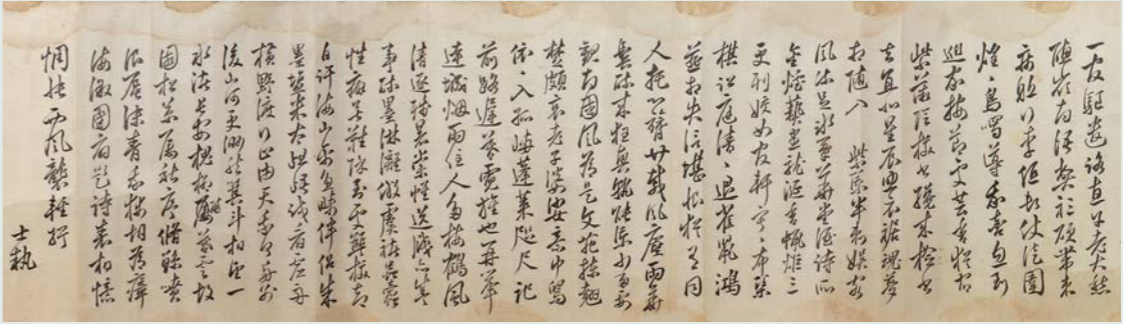
매죽헌에 곡강사군曲江使君(성대중)을 머물게 하고 술을 마시면서 사군승沙斤丞(이덕무)이 철재徹齋학사(정지검)에게 올린 장편시의 운을 따라 함께 시를 짓다. 원운에 붙여.

시축에는 이덕무의 시 앞에 쓰여있으나 본래는 홍원섭이 이덕무의 시를 분취 성대중과 만나 차운시를 지으며 쓴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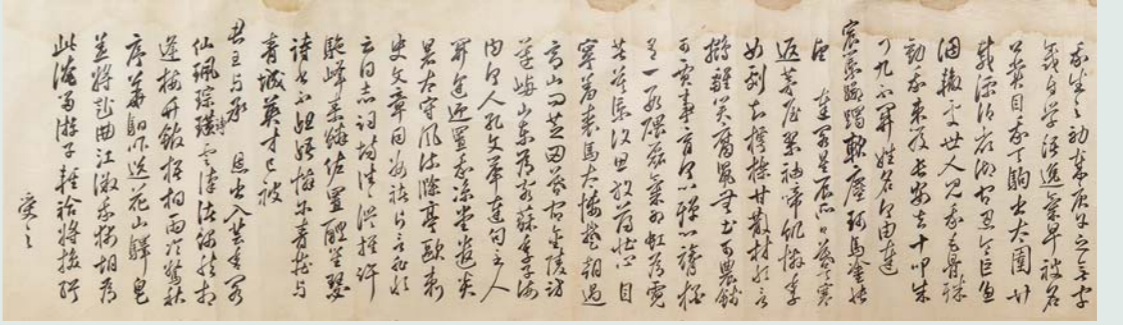


홍원섭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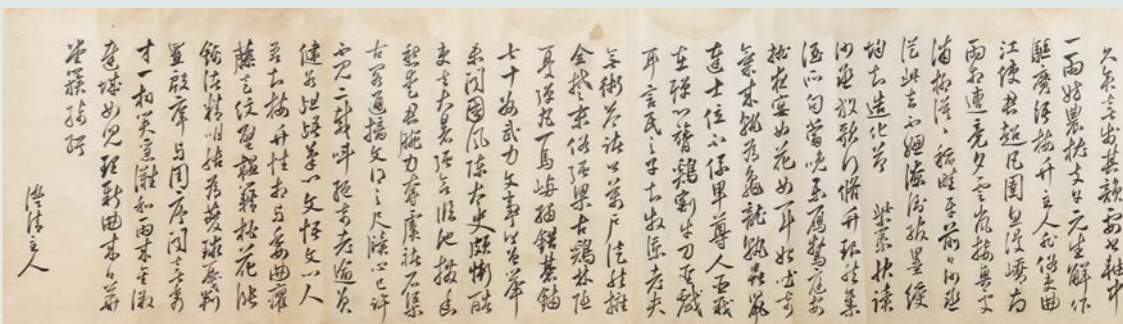
元生 袖示通判與曲江使君 次沙斤丞長句 仍說酒席 風流之盛 近時無此事久矣 喜步其韻 要書軸中



성대중의 시



원득정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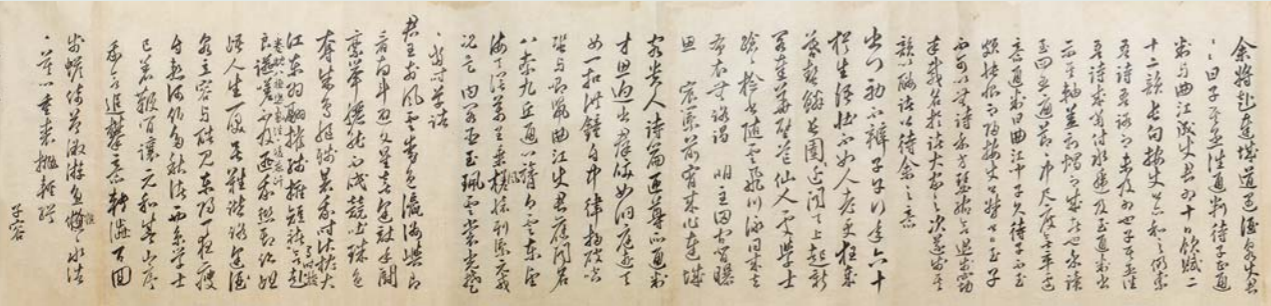


이병모의 시

元生 袖示通判與曲江使君 次沙斤丞長句 仍說酒席 風流之盛 近時無此事久矣 喜步其韻 要書軸中

원생元生(원득정)이 소매에서 통판通判(홍원섭)과 곡강사군曲江使君(성대중) 사군승沙斤丞(이덕무)의 장구長句를 차운한 시를 내보이고, 이어서 주석酒席 풍류의 성대함이 근래에 보기 드문 것이었음을 말하기에 기꺼이 그 운을 따라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시축에 쓰기를 청하였다.

Lot.040 달구장은 達句長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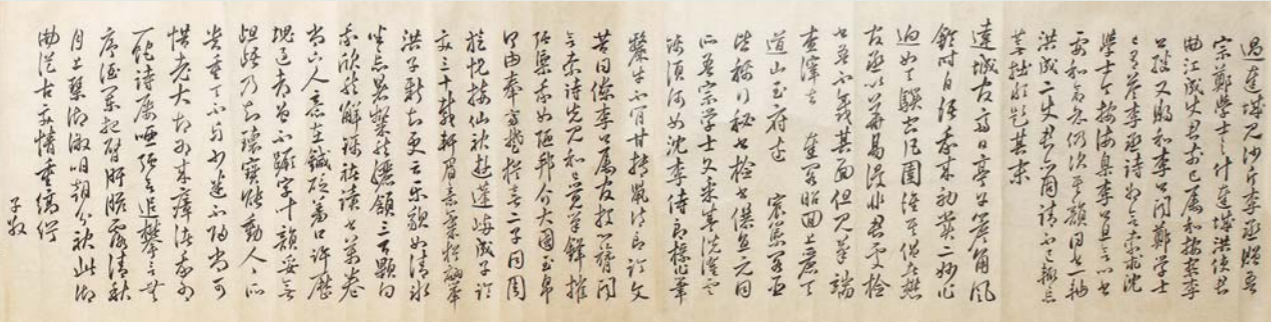


김득후의 시

余將赴達城 道遇酒泉使君 日子其亟往通判 待子甚 通判與曲江成使君 各賦二十二韻長句 按使公亦和之 仍索吾詩 吾諾而未及爲也 子其亟往 吾詩成當付水遞 及至通判 示其詩曰 此皆刻爛而就者也 余讀至四五遍 節節中尺度 無倉卒意 通判曰 曲江聞子久待 子不至 頗恨而歸 按使公督書日至 子不可以無詩 余方瑟縮退步 竊幸載名大家之次 遂步其韻 以酬諸公待之之意

내가 달성達城으로 가는 길에서 주천사군酒泉使君(정지순)을 만났다. 사군이 나에게 '자네는 급히 가보게. 통판通判(홍원섭)이 자네 오기를 기다리고 있네. 통판과 곡강曲江 성사군成使君(성대중)이 각기 22운韻 장구長句를 짓고, 감사공監司公(이병모)도 이에 화답하는 시를 지었네. 그리고는 내게 화답하는 시를 지으라 하기에 대답은 해놓고 미처 짓지 못했네. 자네는 급히 가보게. 내 시가 완성되면 수체水遞편에 보내겠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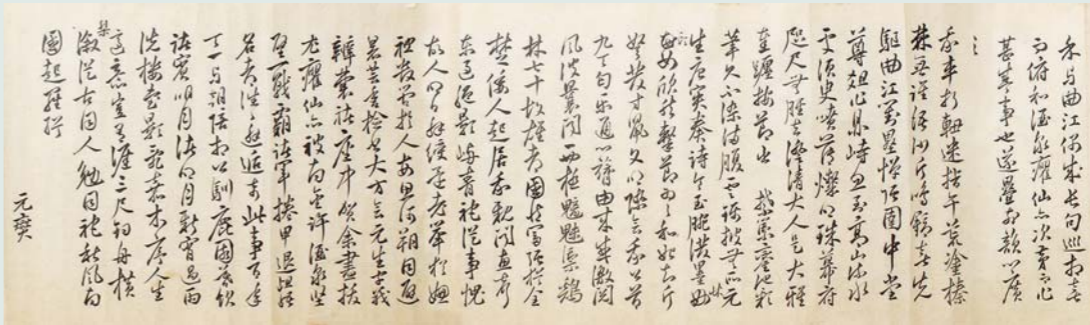
내가 달성에 도착하니, 통판이 그 시들을 내 보이며 '이 시는 모두 각축刻爛하고 지은 거라네.' 하였다. 내가 이 시들을 너댓 번 읽어보니, 구절구절이 모두 법도에 맞아서 전혀 차출간에 지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통판이 내게 '곡강曲江이 자네가 온다는 말을 듣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섭섭하게 여기며 돌아갔네. 또 감사공의 시 짓기를 독촉하는 편지가 매일 오다시피하니, 자네가 시를 짓지 않을 수 없네.' 하였다. 나는 막 위축되어 물러서다가 대가들의 서열에 이름을 함께 실는 것을 요행으로 여기고 곧 그 운을 따라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제공謄公이 내게 기대하는 뜻에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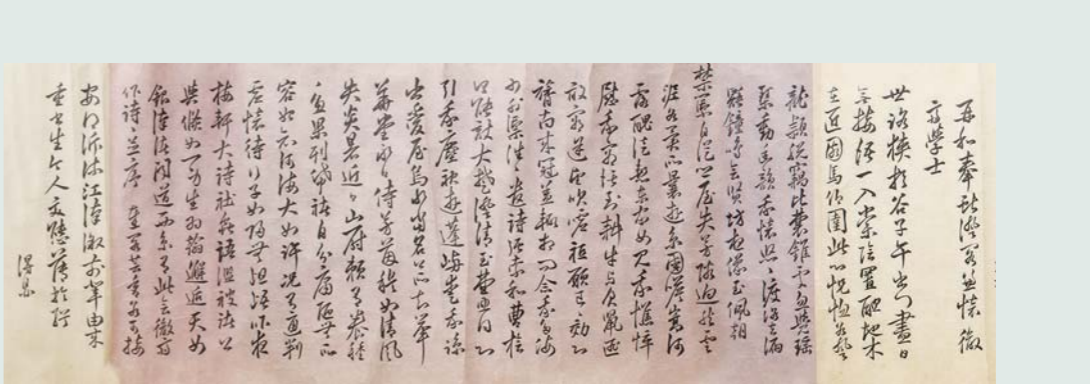
정지순의 시

過達城 見沙斤李丞 贈吾宗鄭學士之什 達城洪使君曲江 成使君 前已屬和 按察李公 繼又賜和 李公聞鄭學士已有答李丞詩 將欲索求 而沈學士今按海臬 李公且欲以書要和 命余次其韻 同書一軸 洪，成二使君 亦固請不已 輒忘蕪拙 敢題其末

달성達城에 들렀다가 사군沙斤 이 승李丞(이덕무)이 우리 종씨인 정 학사鄭學士(정지검)에게 준 시를 보았다. 달성 홍사군達城 洪使君(홍원섭)과 곡강 성사군曲江 成使君(성대중)은 이미 이에 화답하는 시를 지었고 감사 이공李公도 뒤를 이어 화답하였다. 또 이공(이병모)은 정학사鄭學士(정지검)가 이미 이승(이덕무)의 시에 화답한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시를 찾아서 구하고 심 학사沈學士(심영조)가 현재 황해감사로 있으므로 이공이 편지를 보내 화답을 청하였고 또 나에게도 그 시를 차운해서 시를 지어 함께 시축에 쓰기를 명하였다. 홍洪·성成두 사군도 굳이 나에게 화답을 청하므로 천박한 재주를 생각지 않고 감히 다음과 같이 그 끝에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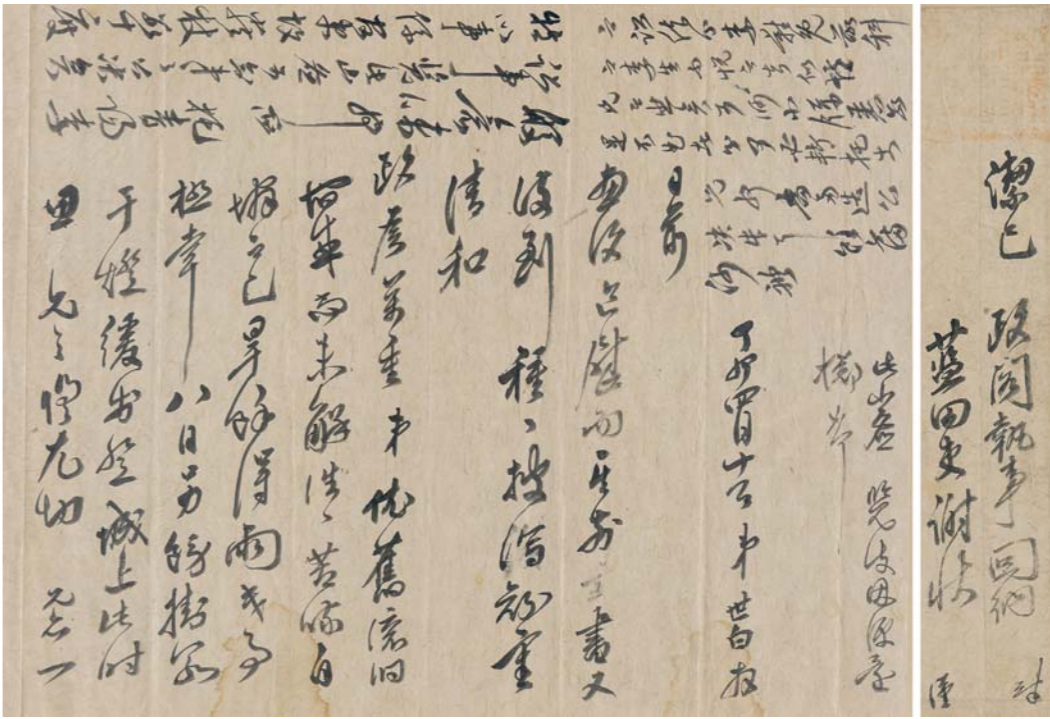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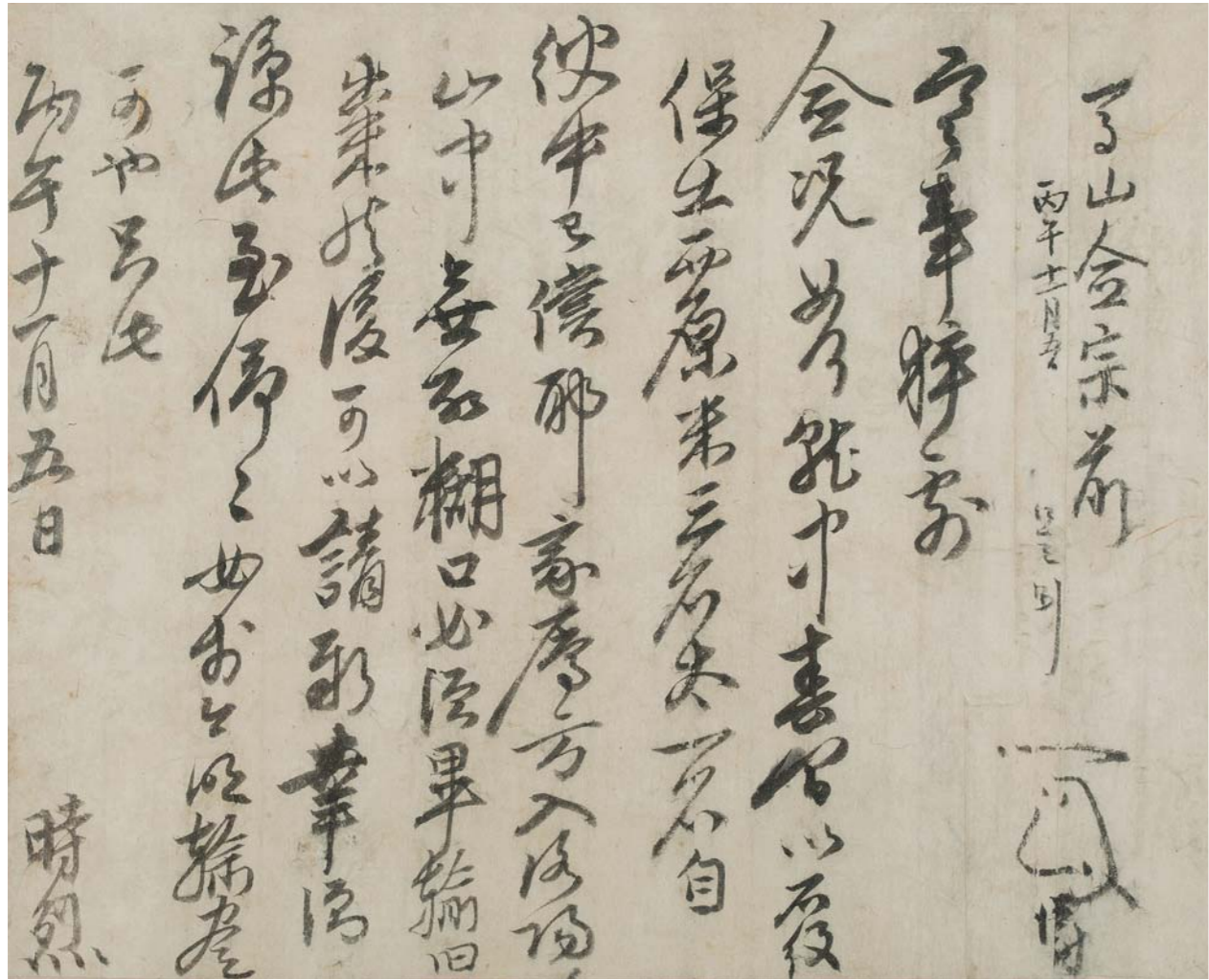
홍원섭의 시



원득정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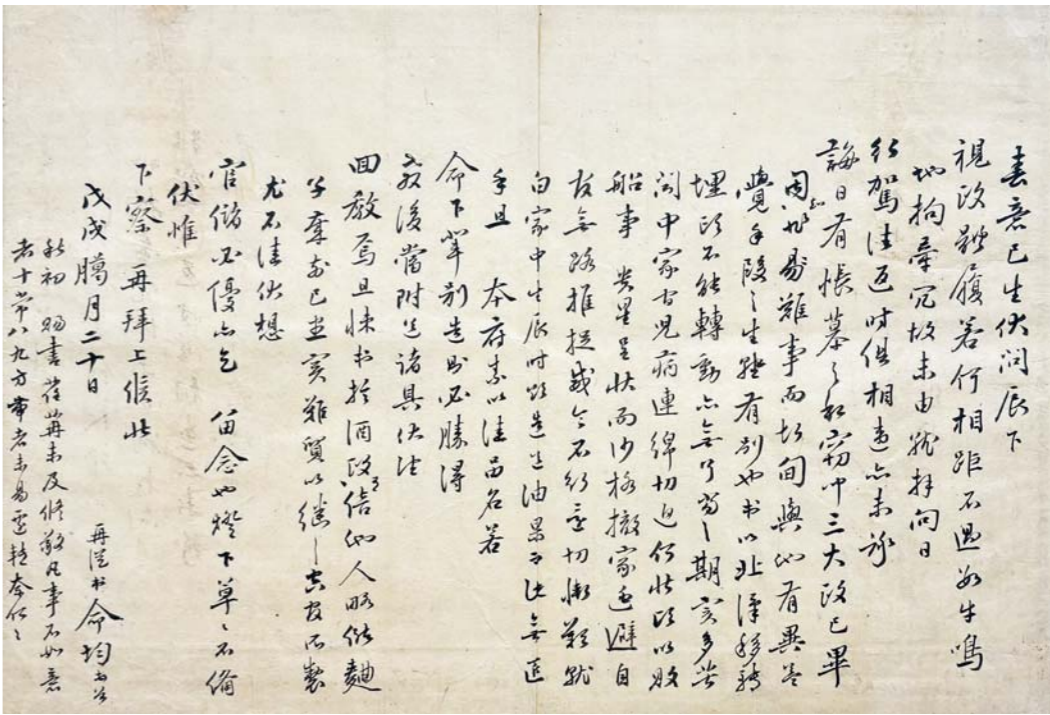
성대중의 시



041
우암 송시열 尤庵 宋時烈
은진恩津, 영보英甫/ 1607-1689
서간 書簡
1666년(병오)
종이에 먹/ 액자
20.6x25.2cm
₩ 800,000-2,000,000

042
우사 이세백 霧沙 李世白
용인龍仁, 중경仲庚/ 1635-1703
서간 書簡
1687년(정묘)
종이에 먹/ 가배집
30.5x38.5cm
₩ 400,000-1,200,000

043
보拙齋 서명균 保拙齋 徐命均
달성達城, 평보平甫/ 1680-1745
서간 書簡
1718년(무술)
종이에 먹/ 가배집
35.6x51cm
₩ 500,000-1,2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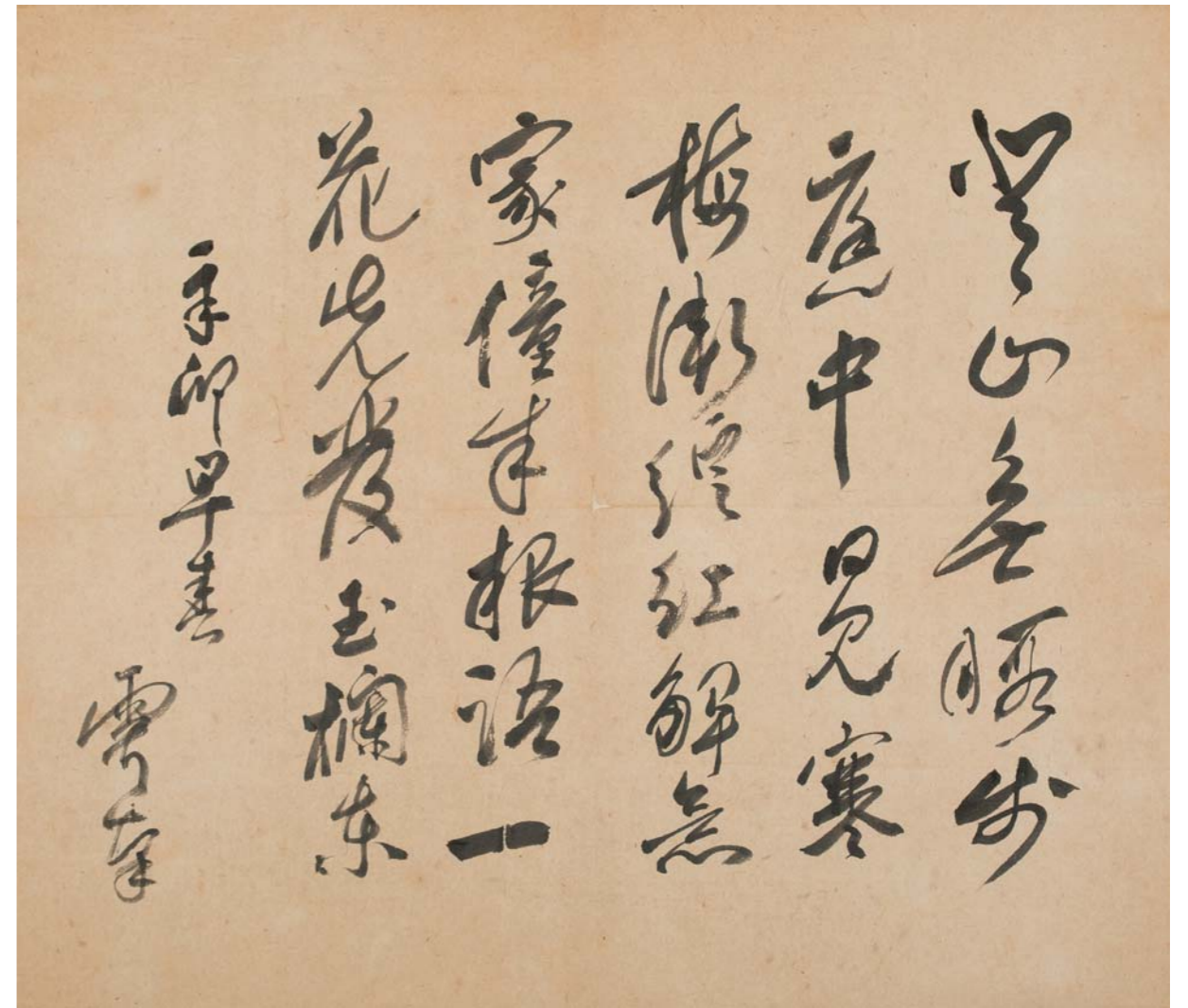


044

해공 신익희 海公 申翼熙
 평산 平山, 여구 汝壽 / 1894-1956

백촌 栢村
 종이에 먹 / 액자
 33x90cm

₩ 1,000,000-2,200,000



045

우남 이승만 雲南 李承晩
 전주 全州 / 1875-1965

이른 봄 早春
 1951년(신묘)
 종이에 먹 / 액자
 38.7x44.4cm

₩ 10,000,000-25,000,000

登山無暇步庭中 日見寒梅漸紅
 解意家僮來報語 一花先發玉欄東

산에 오를 겨를도 없이 뜰 안을 거니는데,
 날마다 보니 찬 매화가 점차 붉은빛을 더하네.
 알아차린 집 아이가 와서 알려주기를,
 옥난간 동쪽에 한 송이가 먼저 피었다 하네.

작품수록처 |
 『이승만한시선』 (배재대학교출판부, 2007), p.166에
 「이른 봄 早春」으로 수록



046

후광 김대중 後廣 金大中
김해金海/ 1924-2009

경천애인 敬天愛人
1985년
종이에 먹/ 액자
32x13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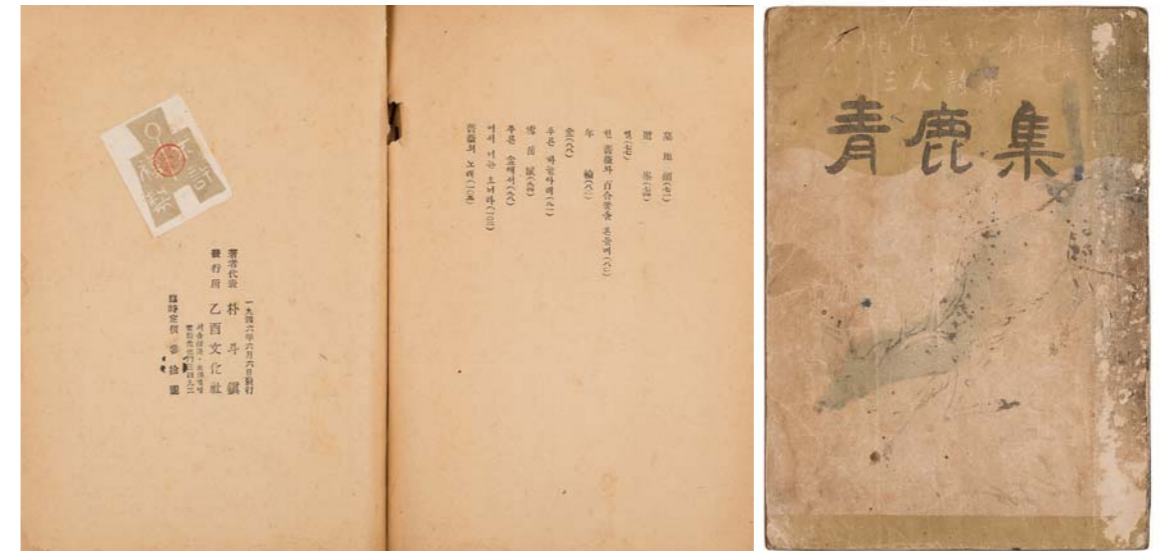
₩ 1,800,000-4,000,000

047

거산 김영삼 巨山 金泳三
김녕金寧/ 1928-2015

대도무문 大道無門
1981년(신유)
종이에 먹/ 액자
32.5x126cm

₩ 1,000,000-2,500,000



048

청록집 靑鹿集

1946년(초판본)
을유문화사
20.9x14.7cm

₩ 1,500,000-3,200,000

049

혜곡 최순우 兮谷 崔淳雨
양천陽川/ 1916-1984

안개 : 도자서
도자에 안료
34x17.7x12cm

₩ 300,000-800,000



뒷면



앞면



050

유산 민경갑 酉山 閏庚甲
 여흥驪興/1933-2018

장미 薔薇
 1976년(병진)
 종이에 수묵담채/액자
 60x45cm

₩ 600,000-1,400,000



051

이당 김은호 以堂 金殷鎬

상산 商山 / 1892-1979

낮잠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42x50.2cm

₩ 1,200,000-2,800,000



052

청전 이상범 靑田 李象範

전주 全州 / 1897-1972

추경 秋景

1930년(경오)
비단에 수묵담채 / 액자
33.6x118cm

₩ 2,500,000-5,500,000



053

청전 이상범 靑田 李象範
전주全州/ 1897-1972

춘경 春景
1965년(을사)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6.5x52cm

₩ 5,000,000-10,000,000



054

소정 변관식 小亭 卞寬植
초계草溪/ 1899-1976

춘경 春景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0x26cm

₩ 2,500,000-5,000,000



055

삼불 김원룡 三佛 金元龍
의성義城/ 1922-1993

신라승조신지환몽도 新羅僧調信之幻夢圖
1982년(입술)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4.5x49cm

₩ 1,500,000-3,500,000

「조신지몽調信之夢」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에 수록되어있는 일장춘몽을 주제로 한 설화이다.

신라시대 때 낙산사洛山寺의 중이었던 조신調信이 명주태수溟州太守 김흔金昕의 딸을 보고 반하였는데, 얼마 후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출가하자 잊지 못하고 울며 그리워했다. 하루는 부처를 원망하다 잠이 들었다가 꿈속에서 그녀를 만나 결혼하여 고향에 돌아가 함께 살았는데, 자식을 다섯이나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이기지 못하여 서로 헤어지려는 찰나 잠에서 깬다. 이후 조신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우치고 불도佛道에 진력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조신과 부인이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각각 자식들을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려 하는 모습을 그리고 조신지몽의 줄거리를 쓴 것이다.



056

남정 박노수 藍丁 朴魯壽
밀양密陽/ 1927-2013

봉래향운 蓬萊香雲
1959년(기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5x47.5cm

₩ 2,000,000-4,500,000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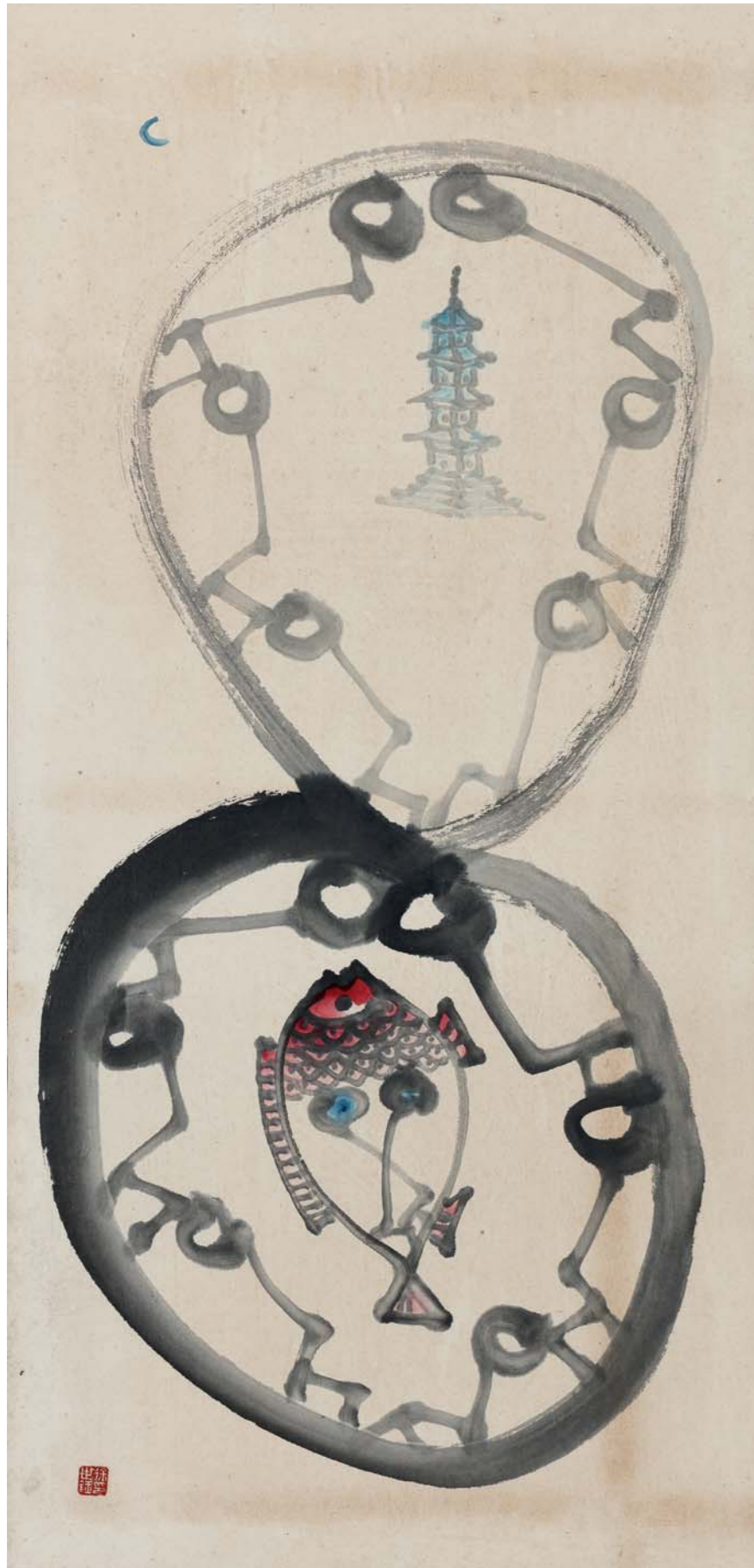
구룡산인 김용진 九龍山人 金容鎭

안동(安東), 성구(聖九) 1878-1968

화훼도 10폭 병풍 花卉圖十幅屏風

1954년
종이에 수묵담채 / 병풍
129x32.6cmx10

₩ 4,500,000-9,000,000



058

산정 서세옥 山丁 徐世鈺
달성 達城 / 1929-2020

어담도 魚塔圖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68.4x33.2cm

₩ 1,200,000-2,800,000



059

이알종 李曰鍾
1945-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45x55.7cm

₩ 2,500,000-5,000,000



060

운보 김기창 雲甫 金基昶

김해金海/ 1913-2001

목련과 참새

종이에 수묵담채/ 가배접
24.2x33.2cm

₩ 500,000-1,300,000

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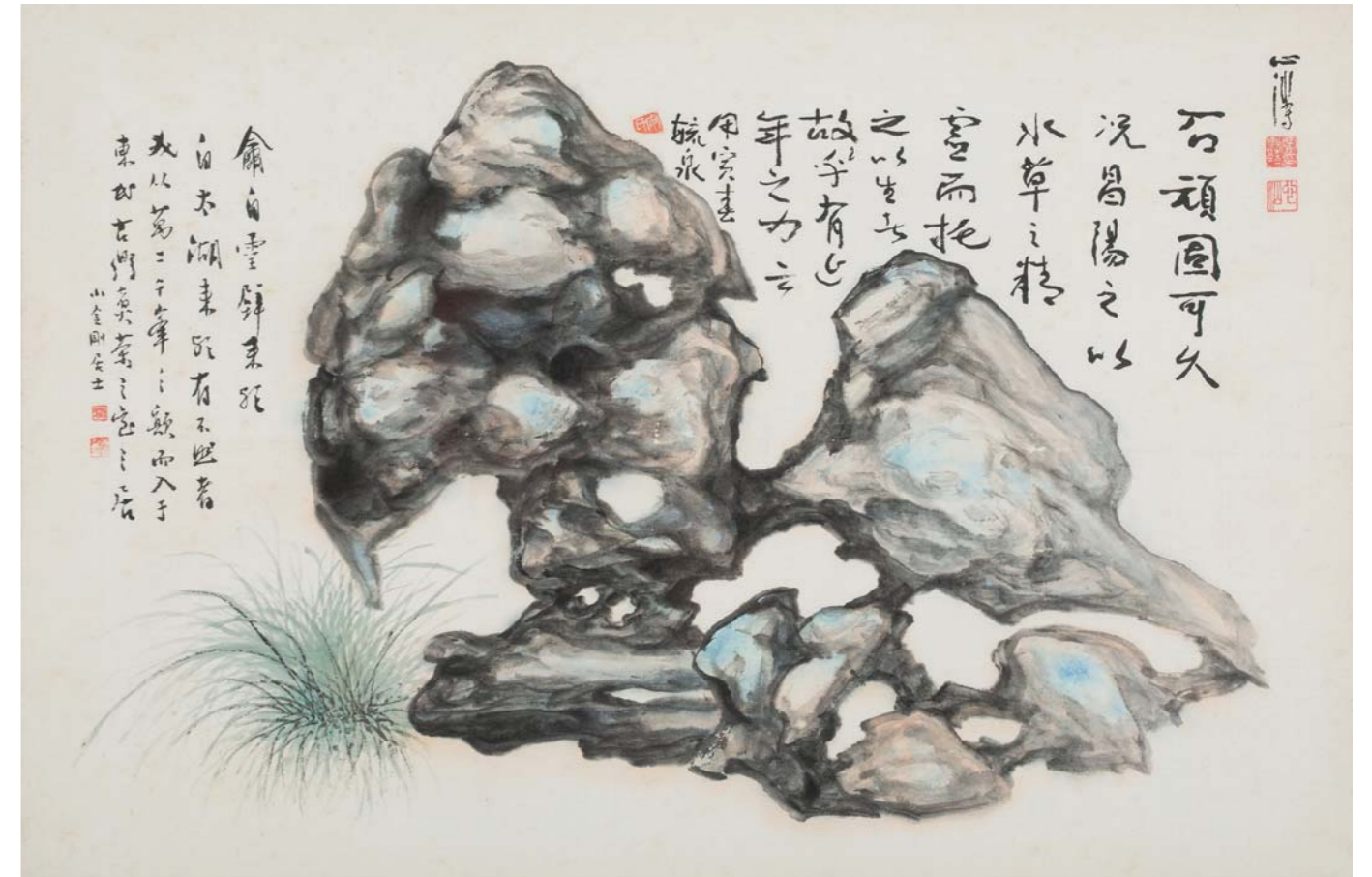
유산 민경갑 酉山 閔庚甲

여흥羅興/ 1933-2018

철쭉 : 길상장춘 吉祥長春

1981년(신유)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4x55cm

₩ 700,000-1,600,000



062

심산 노수현 心汕 盧壽鉉 화

광주光州/ 1899-1978

연민 이가원 淵民 李家源 제

진보眞寶/ 1917-2000

괴석 怪石

1974년(갑인)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5x67.5cm

₩ 700,000-1,6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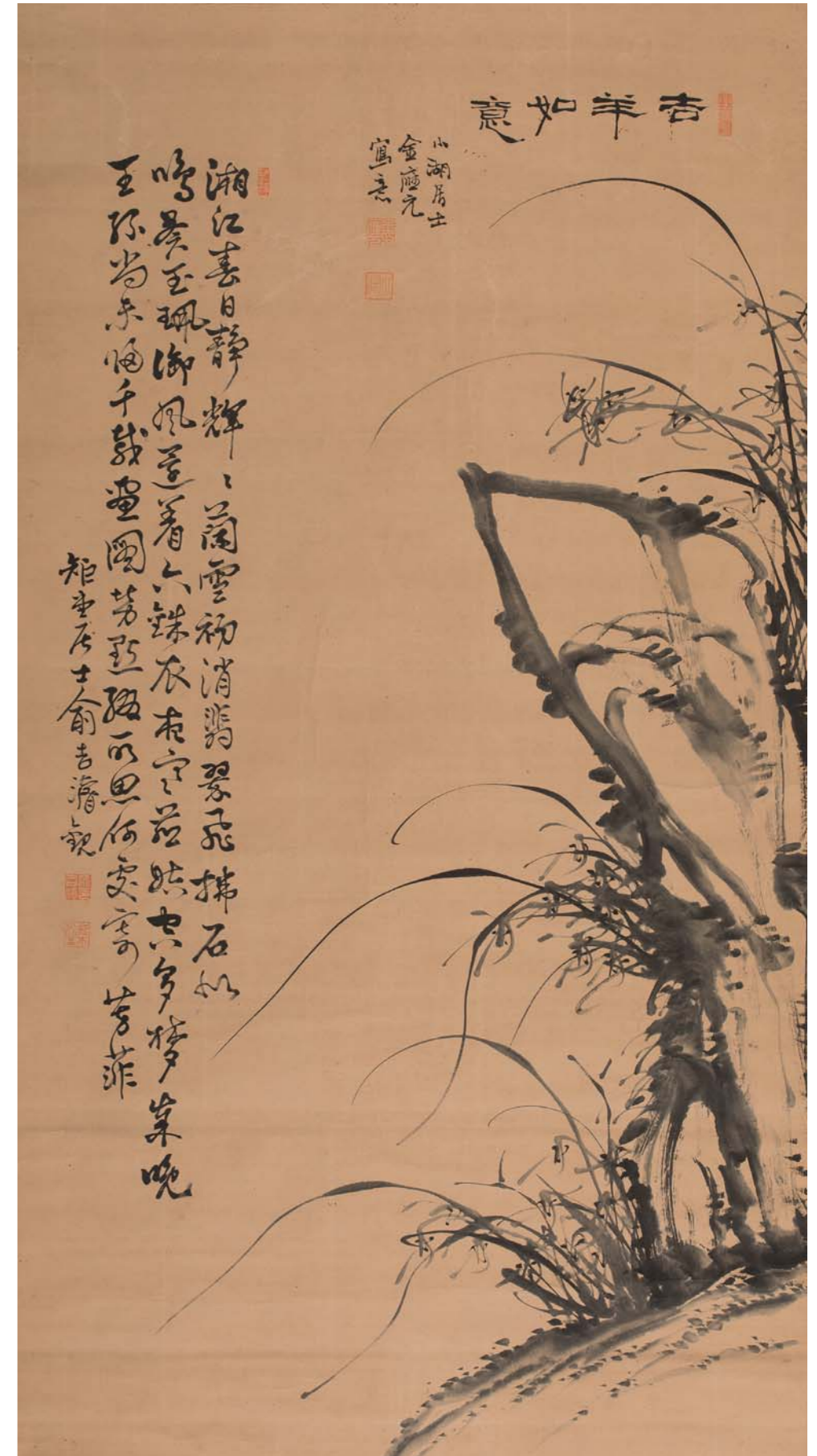


063

석년 김준영 石年 金準榮
개성開城, 치규致規 / 1842-?

괴석매화 怪石梅花
1902년(임인)
종이에 수묵담채 / 족자
129.5x32cm

₩ 1,200,000-3,000,000



064

소호 김응원 小湖 金應元 화
김해金海, 석범錫範 / 1855-1921
구당 유길준 矩堂 兪吉濬 제
기계杞溪, 성무聖武 / 1856-1914

석란 石蘭 : 길상여의 吉祥如意
종이에 수묵담채 먹 / 족자
146.5x79.2cm

₩ 2,500,000-5,000,000



065

소호 김응원 小湖 金應元
김해金海, 석범錫範/ 1855-1921

석란 石蘭
종이에 수묵/ 액자
39.5x135cm

₩ 1,000,000-2,500,000



066

무호 이한복 無號 李漢福
전의全義/ 1897-1944

모란 牡丹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25x31.2cm

₩ 500,000-1,400,000



067

해강 김규진 海岡 金圭鎭
남평南平, 용삼容三/ 1868-1933

묵죽 墨竹 대련
1919년(기미)
종이에 수묵/ 족자
130.4x20cmx2

₩ 1,300,000-2,600,000



출품작은 황성하黃成河가 그림을 그리고 황용하黃庸河가 화제를 쓴 산수인물도 10폭 병풍이다. 화제는 매천 황현梅泉 黃玹(1855-1910)의 『매천집梅泉集』에 수록된 「제병화십절題屏畫十絶」을 옮겨 쓴 것이다. 「제병화십절」은 제목 그대로 병풍 그림에 붙인 열 수의 절구로, 본 작품은 이 시의 구성에 맞추어 10폭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제병화십절」은 매복梅福, 관녕管寧, 장한張翰, 도잠陶潛, 사공도司空圖, 양진梁震, 가현翁家鉉翁, 사고謝翱, 고염무顧炎武, 위희魏禧 등 중국 역사 속 은사와 유민, 절의의 인물을 차례로 읊은 연작시이다. 이들은 대체로 왕조가 어지럽거나 나라가 바뀌는 시기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거나, 망국의 신하로서 절개를 지킨 인물들이다. 각 폭에는 시에서 노래한 인물과 그 행적을 연상시키는 산수인물 장면이 배치되어 있어, 화제의

내용을 화면으로 옮겨낸 구성을 보인다. 넉넉한 여백과 절제된 채색은 화면 전체에 고요하고 담박한 분위기를 부여하며, 화제의 내용이 각 폭의 산수인물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황성하와 황용하는 황종하黃宗河, 황경하黃敬河와 함께 이른바 '황씨 사형제'로 불리며 근대기 서화계에서 주목받았다. 네 형제는 모두 서화가로 활동하여 1923년 경성미술구락부에서 열린 '황씨사형제전'을 시작으로 인천, 군산, 마산, 대구 등지를 돌며 전람회를 개최하였다. 이 병풍은 1927년 11월 대구에서 열린 「황용하화백서화전람회」 출품작으로 전한다. 당시 전람회에는 황용하의 작품뿐 아니라 황씨 사형제의 작품도 함께 출품되었는데, 본 작품은 형제가 그림과 글씨를 나누어 맡은 합작의 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068

우청 황성하 又淸 黃成河 화

부평富平, 은경嚴卿/ 1891-1965

미산 황용하 美山 黃庸河 제

부평富平, 윤중允中/ 1899-?

고사인물도 10폭병풍 故事人物圖十幅屏風

1927년(정묘)

종이에 수묵담채/ 가배접

124x34.5cmx10

₩ 3,000,000-7,000,000

069

해강 김규진 海岡 金圭鎭
남평南平, 용삼容三/ 1868-1933

묵죽 墨竹
비단에 수묵/ 족자
131x42.7cm

₩ 1,000,000-2,500,000



070

청전 이상범 靑田 李象範
전주全州/ 1897-1972

추경 秋景: 선면
1958년(무술)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5.7x51cm

₩ 2,500,000-5,000,000

071

춘천 이영일 春泉 李英一
전주全州/ 1903-1984

화조 花鳥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20.8x21.5cm

₩ 500,000-1,300,000



072

해강 김규진 海岡 金圭鎭
남평南平, 용삼容三/ 1868-1933

목모란 墨牡丹:
대부귀길상 大富貴吉祥
1931년(신미)
종이에 수묵/ 족자
131x43.5cm

₩ 1,500,000-3,000,000



하늘 가득히 성긴 비가 내리니, 꿈은 강남으로 향하네.

滿天疎雨夢江南



073

기산 김준근 箕山 金俊根
?-?

노안 蘆雁
삼베에 수묵/ 족자
130.7x34cm

₩ 1,500,000-3,500,000

그윽한 향기란 은이슬의 따듯고, 달이 황혼에 걸려있네.
暗香浮動月黃昏



074

석연 양기훈 石然 楊基薰
중화中和, 치남痴南/ 1843-?

매조 梅鳥
비단에 수묵/ 족자
129.4x37cm

₩ 800,000-2,000,000



075

탄허 誕虛 4점
?-?

무호 이한복 無號 李漢福
전의全義/ 1897-1944

소봉 나수연 小蓬 羅壽淵
나주羅州/ 1861-1926

심산 노수현 心汕 盧壽鉉
광주光州/ 1899-1978

춘곡 고희동 春谷 高羲東
제주濟州/ 1886-1965

남해도인 南海道人
?-?

천계산인 天桂山人
?-?

화산 김일 華山 金駟
1880-1938이후

청전 이상범 靑田 李象範
전주全州/ 1897-1972

합작 12폭병풍 合作十二幅屏風
1924년(갑자), 1925년(을축)
종이에 수묵담채/ 병풍
131x31cmx12

₩ 10,000,000-23,000,000

076

소정 변관식 小亭 卞寬植
초계草溪 / 1899-1976

노안 蘆雁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66.3x37.5cm

₩ 500,000-1,300,000



077

월전 장우성 月田 張遇聖
단양丹陽 / 1912-2005

소림한월 疏林寒月
1968년(무신)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48x65.2cm

₩ 700,000-1,600,000



078

운보 김기창 雲甫 金基昶
김해金海 / 1913-2001

바보화조 花鳥
1976년(병진)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60.2x68.3cm

₩ 3,000,000-6,500,000

079

월전 장우성 月田 張遇聖

단양丹陽/ 1912-2005

남농 허건 南農 許楗

양천陽川/ 1907-1987

송은 이병직 松隱 李秉直

전주全州/ 1896-1973

제당 배렴 齋堂 裴濂

성산聖山/ 1911-1968

구룡산인 김용진 九龍山人 金容鎭

안동安東, 성구聖九/ 1878-1968

심향 박승무 深香 朴勝武

반남潘南/ 1893-1980

소전 손재형 素荃 孫在馨 화

밀양密陽/ 1903-1981

구룡산인 김용진 九龍山人 金容鎭 제

안동安東, 성구聖九/ 1878-1968

독지신래 讀之神快: 합작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0.6x123cm

₩ 700,000-1,600,000



080

화조민화 6폭병풍 花鳥民畫六幅屏風

종이에 채색/ 병풍
51.4x31.4cmx6

₩ 2,500,000-5,000,000





081

호작 虎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27.3x64cm

₩ 2,000,000-5,000,000



082

기야 이방운 箕野 李昉運

함평咸平, 명고명考/ 1761-1815 이후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 액자
47.4x45.5cm

₩ 7,000,000-15,000,000

小艇閒人語 林亭逸士迎

작은 배에는 한가로운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숲속 정자에서는 은밀한 선비가 맞이하네.



083

풍곡 성재휴 豊谷 成在然
창녕昌寧/ 1915-1996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1.5x66cm

₩ 1,500,000-3,000,000



084

이당 김은호 以堂 金殷鎬
상산商山/ 1892-1979

화훼 花卉
1928년(무진)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3.5x65cm

₩ 1,000,000-2,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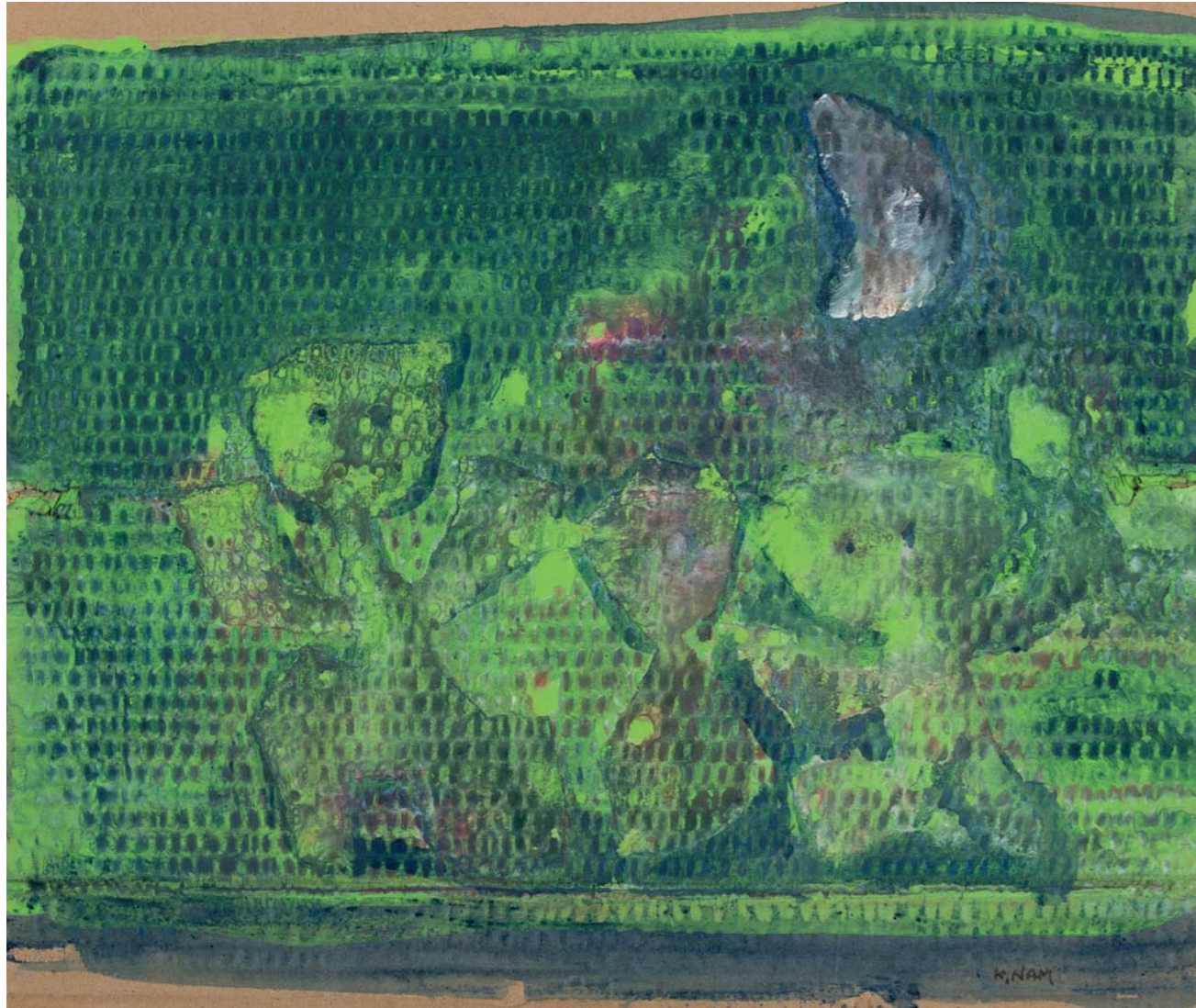


085

고암 이응노 顧菴 李應魯
전의全義/ 1904-1989

영라 榮螺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6.5x55.3cm

₩ 1,300,000-2,800,000



086

남관 南寬
영양英陽/1911-1990

무제 無題
보드에 유채/ 액자
33.3x39.5cm

₩ 1,000,000-2,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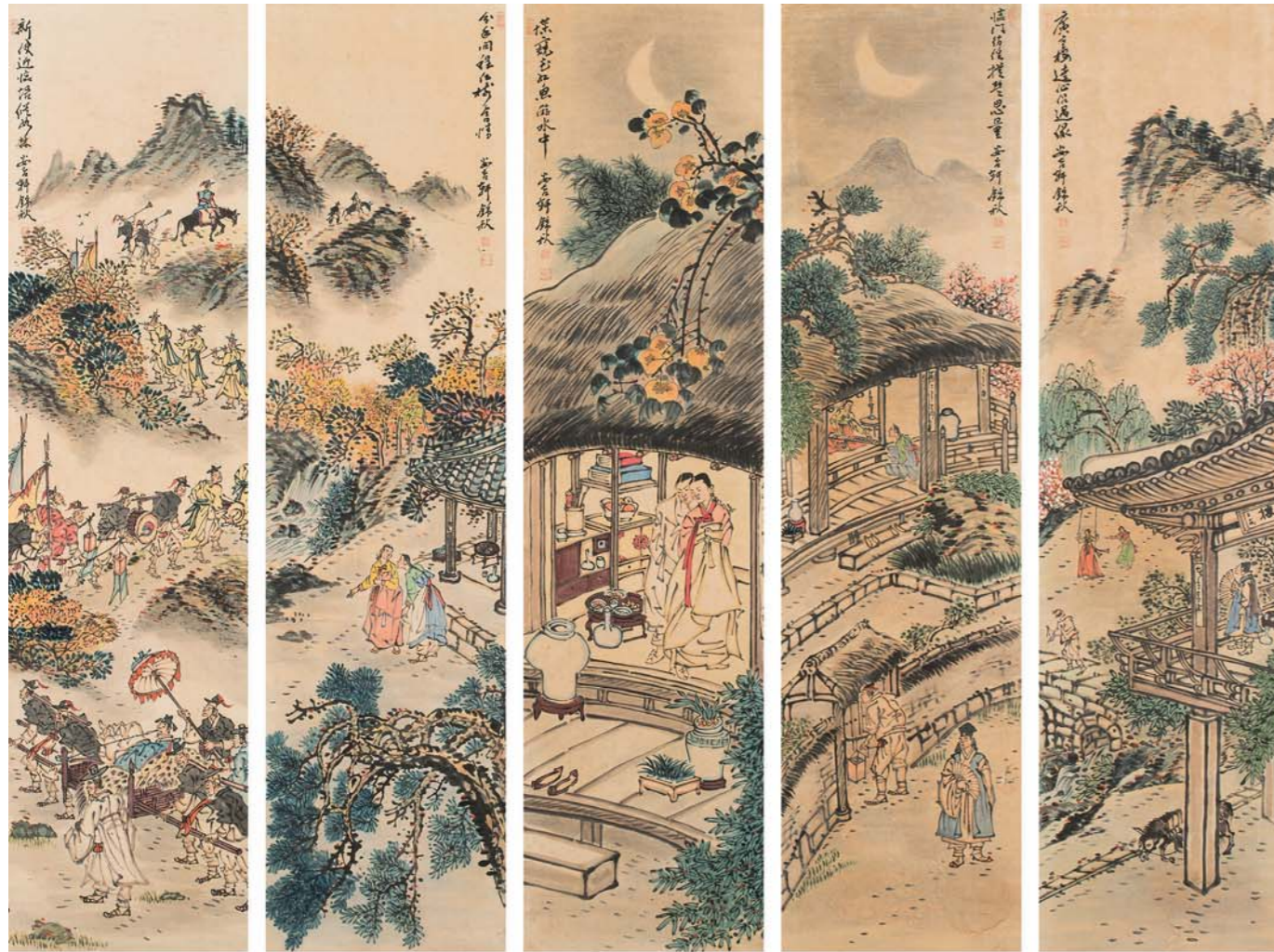


087

김종학 金宗學
1937-

여인상 女人像
2010년
종이에 수채/ 액자
35.5x21cm

₩ 3,000,000-6,000,000



088

금추 이남호 錦秋 李南浩
1908-2001

춘향전도 10폭병풍 春香傳圖十幅屏風
종이에 수묵담채/ 병풍
132.2x33.2cmx10

₩ 1,600,000-3,500,000



089

일랑 이종상 一浪 李鐘祥
1938-

동인천 東仁川
1974년(갑인)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1x64.5cm

₩ 2,000,000-4,500,000

090

금강산인 김진우 金剛山人 金振宇

강릉江陵, 군협君協/ 1883-1950

괴석묵죽 怪石墨竹

종이에 수묵/ 액자
112x30.6cm

₩ 500,000-1,300,000

斜陽雖萬變終不改清陰

지는 해가 비록 만 번을 바뀌어도,
푸른 그들은 끝내 변하지 않네.



091

이범진 李範晉

전주全州, 성삼聖三/ 1852-1911

석란 石蘭

종이에 수묵/ 족자
111x33.7cm

₩ 9,000,000-16,000,000

이범진은 흥선대원군 집권기 포도대장 등을 역임했던 이경하李景夏의 아들로 태어나 이조참판·형조참판·공조참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1879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고종의 신임을 받았으며, 을미사변 이후에는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킨 아관파천에 관여하였다. 이후 법무대신에 임명되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진상 규명에 힘썼고, 주미공사와 주러 전권공사 등을 지내며 대한제국의 외교적 자주권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뒤에도 이범진은 귀국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남아 비공식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대한제국 특사단을 파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차남 이위중李璠鍾을 이상설李相高·이준李儁과 함께 헤이그에 동행하게 하였다. 또한 연해주 지역의 항일 의병 활동과 신문 발간을 후원하는 등 국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다.

1910년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하자 이범진은 이듬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순국하였다. 그의 생애는 망국의 현실 속에서도 외교적 저항과 독립운동 지원을 멈추지 않았던 대한제국 지식인의 삶을 보여준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출품작은 대한제국기 정치가이자 외교관, 순국지사였던 이범진李範晉이 그린 묵란도이다.

작품 상단에는 다음과 같은 화제를 적었다.

墨池餘瀋 寫出沈悶滯寂之氣

남은 먹으로 침잠하고 적막한 정취를 그려내네.

화제 끝 부분에는 왕실에서 내려준 별호 천운이라는 뜻의 '어사서호천운御賜書號川雲' 주문방인과 '이범진인李範晉印' 백문방인 두 방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천운川雲'은 1885년 명성황후가 이범진에게 내려준 당호이다.

이범진의 글씨와 그림은 전하는 예가 드문데, 이 작품은 그의 서화 작품으로서 희소성이 있을 뿐 아니라, 묵란의 형상에 화제의 내용이 더해져 단순한 문인화적 감상을 넘어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의 고독한 심회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욱 귀하다.





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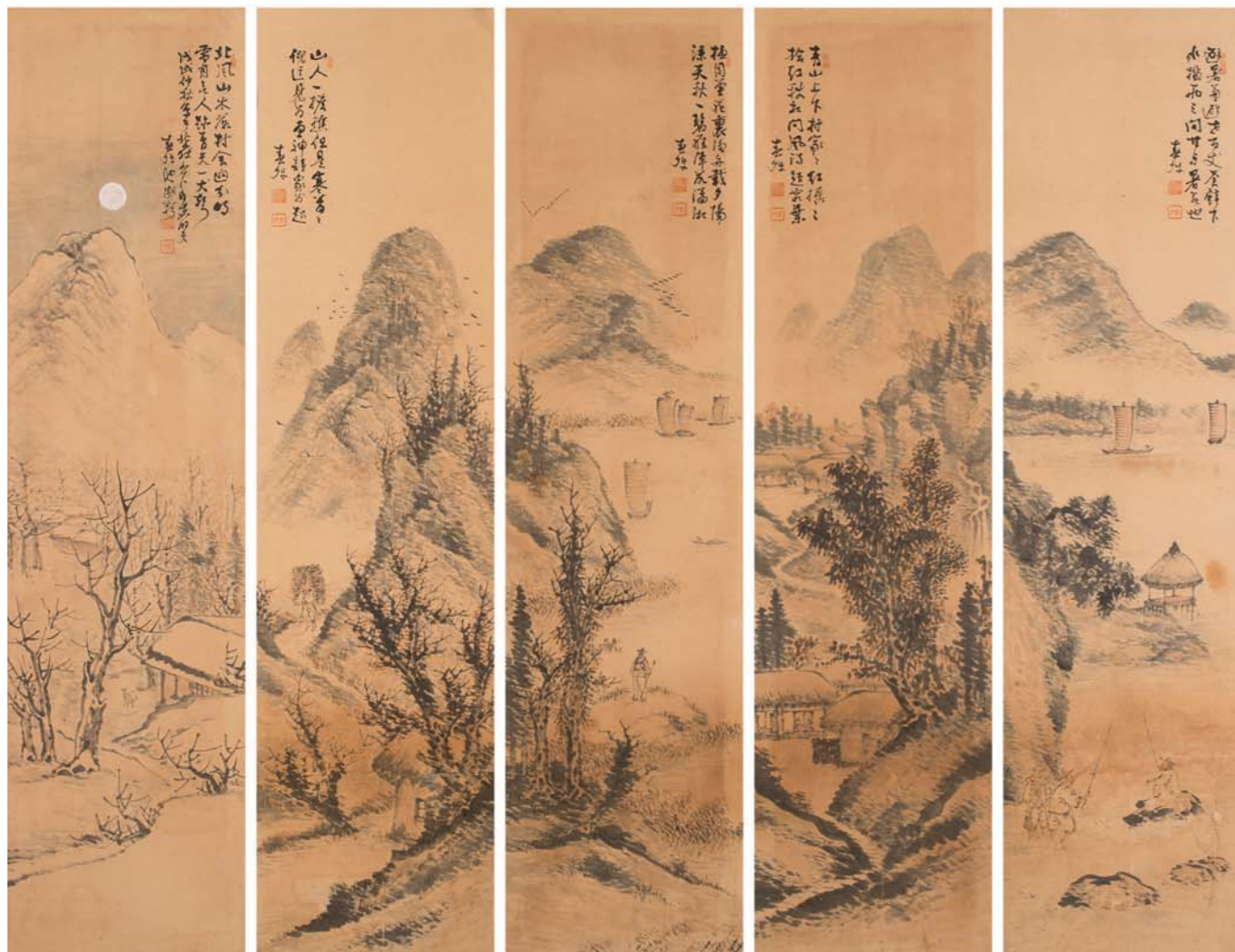
춘초 지성채 春艸 池盛彩

충주忠州/ 1899-1980

사계산수 10폭병풍 四季山水十幅屏風

종이에 수묵담채/ 병풍
127x31.9cmx10

₩ 1,000,000-2,500,000



093

이왈중 李曰鍾

1945-

장미 薔薇

1976년(병진)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67.4x61.2cm

₩ 1,000,000-2,500,000

094

우하 김예식 又荷 金禮植

1897-?

금강산 12폭병풍 金剛山十二幅屏風

비단에 수묵담채/ 병풍
117.5x34.3cmx12

₩ 3,000,000-6,500,000

김예식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화가이자 독립운동가이다. 개성 출신으로, 1919년 황해도 평산군 인산면 일대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경성에서 서화가로 활동했으며,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여 화가로서 이름을 알렸다. 주로 금강산을 소재로 한 산수화를 남겼으나 현재 전하는 작품 수는 많지 않다.

출품작은 김예식이 금강산의 여러 경관을 12폭에 나누어 그린 병풍이다. 각 폭에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의 계곡과 폭포, 운무에 싸인 봉우리, 푸른 수면 위로 솟은 암봉과 해안 경관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금강산의 변화무쌍한 면모를 보여준다. 꽃이 핀 산중 풍경, 짙은 녹음 속 계곡과 폭포, 붉게 물든 단풍, 눈 덮인 산봉우리와 해금강의 일출 장면 등 춘하추동의 계절감이 두루 담겨 있어 금강산을 하나의 고정된 명승이 아니라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이상적 산수 공간으로 구성했다.

김예식의 금강산 그림은 조선시대 이래 이어져 온 금강산도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근대기 산수화의 새로운 시각을 함께 보여준다. 출품작에서도 봉우리와 암벽의 형태는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하였으며 폭포와 물길, 원경의 운무는 부드러운 채색과 명암 처리로 표현되었다. 실제 경관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듯한 구도와 사진적 시점이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화면 전체에는 관념산수의 이상화된 분위기가 남아 있다. 전통적 산수화와 근대적 실경 감각이 함께 드러나는 점에서 김예식 금강산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095

심산 노수현 心山 盧壽鉉
광주光州/ 1899-1978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64x33.7cm

₩ 1,000,000-2,500,000



096

오당 안동숙 吾堂 安東淑
1922-2016

시골 장날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3.5x59.7cm

₩ 300,000-800,000

097

심향 박승무 深香 朴勝武
반남潘南/ 1893-1980

설청 雪晴
1969년(기유)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2.5x64.8cm

₩ 500,000-1,300,000



098

묵로 이용우 墨鷺 李用雨 화
 경주慶州, 창운창潤 / 1902-1952
 위창 오세창 葦滄 吳世昌 서
 해주海州, 중명중銘 / 1864-1953

금준청가 琴尊淸暇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32.2x132cm

₩ 800,000-2,000,000



099

정재 최우석 鼎齋 崔禹錫
 1899-1964

노안도 6폭병풍 蘆雁圖六幅屏風
 1932년(임신)
 종이에 수묵담채 / 병풍
 133x33.3cmx6

₩ 1,200,000-2,500,000





100

책거리 冊巨里 2점

종이에 채색/ 액자
56.5x32.7cmx2

₩ 1,000,000-2,500,000



101

운계 조중묵 雲溪 趙重默

한양漢陽, 덕행惠符/ 1820-1888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22.4x33.9cm

₩ 4,000,000-10,000,000

운계 조중묵은 조선 말기 초상화로 이름을 날린 도화서 화원으로, 시문에 능했던 조수삼趙秀三의 손자이다. 태조太祖·철종哲宗 어진 등 여러 차례의 어진 도사에 참여하였으며 회원 이한철希園 李漢喆과 함께 당대 초상화의 쌍벽으로 불렸다.

출품작은 조중묵의 드문 산수화로, 가을날 산 속 집에 앉아 홀로 책을 읽은 선비의 모습을 담았다. 화면 상단에는 추사 김정희의 시를 화제로 적었다.

一院秋苔不掃除 風前紅葉漸飄疎
虛堂盡日無人過 老樹低頭聽讀書.

가을 이끼 쓸지 않아 온 뜰에 가득하고,
바람 앞에 붉은 잎은 성글어만 가네.
빈 집에는 종일 지나는 사람 없고,
늙은 나무 고개 숙여 글 읽는 소리 듣고 있네.

화면 구성이 면밀하고 맑은 색채를 써 담담하게 그린 그림으로 화제시와 어우러져 쓸쓸한 가을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며, 산수화에도 뛰어났던 조중묵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102

하산 유치봉 霞山 兪致鳳

기계杞溪/ 1826-?

산수 山水

1892년(임진)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7.3x113cm

₩ 1,000,000-2,500,000

夏木成帷晝日昏 水聲禽語靜中喧

여름 나무가 장막을 이루니 한낮에도 어둑하고,
물소리와 새소리는 조용한 가운데 서로 다투네.



103

傳 현재 심사정 玄齋 沈師正

청송靑松, 이숙顯叔/ 1707-1769

매죽 梅竹·석국 石菊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4.5x20.8cm, 12.5x22cm

₩ 5,000,000-13,000,000

백동자도 10폭병풍 百童子圖十幅屏風

종이에 수묵채색/ 가병풍
104.2x38cmx10

₩ 10,000,000-23,000,000

백동자도는 화려한 정원과 전각을 배경으로 여러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모습을 그린 길상화이다. 아이들의 놀이 장면은 단순한 풍속 묘사를 넘어, 다남 多男과 자손 번창, 집안의 복락福樂, 나아가 임신출세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다. '백동자'의 '백百'은 실제 아이의 수를 엄밀히 가리키기보다 많음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백동자도는 이러한 의미를 병풍 형식으로 펼쳐낸 그림이다.

출품작은 10폭으로 이루어진 백동자도 병풍으로, 화면 전체가 정원과 전각을 따라 이어지는 하나의 긴 서사처럼 구성되어 있다. 각 폭에는 누각과 담장, 굽이진 언덕, 괴석과 수목이 배치되어 공간을 나누고, 그 사이사이로 아이들이 놀이를 즐기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붉은 기둥과 청록색 지붕으로 표현된 건물, 바위와 언덕에 더해진 채색은 화면에 장식적인 효과를 부여하며, 곳곳에 배치된 꽃과 나무는 계절감과 길상적 분위기를 더한다. 넓은 정원을 따라 시선이 이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병풍을 펼쳤을 때 각 공간에서 활기 있게 어울리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화면 속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행차놀이, 활쏘기, 연날리기, 닭싸움, 연꽃 빼앗기, 원숭이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들 놀이 장면은 각각 길상적 의미와 연결된다. 연꽃 빼앗기는 다산과 풍요에 대한 기원을 의미하며, 행차놀이는 아이가 장차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원숭이 놀이 역시 벼슬에 오르거나 좋은 관직에 임명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화면 곳곳에 배치된 소나무와 오동나무를 비롯한 수목과 꽃들도 길상적 의미를 더하는 요소이다. 이처럼 출품작은 아이들의 활기찬 놀이 장면과 상서로운 자연물을 함께 구성하여, 백동자도가 지닌 다산과 풍요, 자손 번영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105

창랑 홍세태 滄浪 洪世泰

남양南陽, 도장道長/ 1653-1725

괴석화훼 怪石花卉

종이에 수묵담채/ 축자
114.1x28.1cm

₩ 1,200,000-2,500,000



106

호생관 최북 毫生館 崔北

무주茂朱, 성기聖器/ 1712-1786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8.3x38cm

₩ 10,000,000-23,000,000

출품작은 호생관 최북(毫生館 崔北)이 그린 산수도이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호생관(毫生館)'이라는 관서와 함께 '칠칠(七七) 백문방인(白文방인)'이 적었다.

넓은 강변을 배경으로 근경에는 몇 그루의 나무와 바위, 왼쪽 아래에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인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경에는 띠집이, 원경에는 낮게 이어지는 산세가 펼쳐져 있다.

구성은 강변의 나무와 인물, 초가, 먼 산을 배치한 소경산수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지만, 화면 전체를 뽁뽁하게 채우기보다 넓은 여백을 두어 한적한 강변의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산과 물가는 열은 담채와 간략한 선으로 처리하고, 근경의 나무에는 비교적 짙은 먹을 더해 화면의 중심을 잡았다. 특히 잎과 가지를 빠르고 거칠게 찍어낸 필치는 최북 산수화에서 보이는 자유로운 운필 감각을 잘 보여준다.

최북은 정형화된 산수 구도를 따르면서도 거친 필선과 습윤한 먹의 사용, 간결한 화면 구성으로 개성적인 산수 세계를 이루었다. 이 작품 역시 특별한 고사나 장대한 경관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담담한 소재와 절제된 표현 속에 최북 특유의 소탈하고 자유로운 필치로 한적한 자연 속에 머무는 고요한 정취를 잘 드러낸 작품이다.



신현은 조선 후기의 무신이자 개항기 외교가로, 금위대장·훈련대장·진무사 등을 역임하였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과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추금 강위(姜緯·姜璋)·환재 박규수(朴圭壽) 등 개화와 인물들과도 교류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총융사(總戎使)로 강화도(강화염창(鹽倉)을 수비하였으며, 1876년 전권대관으로 강화도조약 체결에 참여하고 1882년 조미수호조약 체결에도 관여하는 등 개항기 조선 외교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문장과 서화에도 능했으며, 특히 묵란을 잘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명은 신관호(申觀浩), 1868년 신현으로 공식 개명하였다.

출품작은 신현이 수묵으로 그린 8폭의 묵란도 병풍으로, 난초만을 간결하게 그린 폭과 괴석을 함께 배치한 석란도(石蘭圖) 형식의 폭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폭마다 변화 있는 화면을 이룬다. 난엽은 먹의 농담과 필획의 강약을 달리하여 유연한 움직임을 살렸고, 괴석은 굵은 필획으로 처리하여 난잎의 부드러운 기운과 대비된다.

각 폭에는 '칠십구묵초당(七十九墨草堂)', '위당(威堂)', '류경도인(劉耕道人)', '향금당(香琴堂)', '난석도인(蘭石道人)', '국빈(國賓)' 등 신현이 사용한 여러 호와 자자를 달리 써 서명하였으며, '수졸당(守拙堂)' 백문방인과 '신현사인(申櫛私印)' 주문방인을 함께 찍었다. 이처럼 폭마다 서로 다른 별호를 사용한 점은 신현의 서화가적 면모와 자의식을 보여준다.

신현은 묵란에 능했다는 기록이 전하지만, 현재 전하는 작품은 화첩이나 소품이 많고 병풍 형식의 대작은 드문 편이다. 이 작품은 신현 묵란의 필치와 구성 방식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로서, 그의 서화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107

위당 신현 威堂 申櫛

평산(平山), 국빈(國賓) / 1810-1884

석란 8폭 병풍 石蘭八幅屏風

종이에 수묵 / 병풍
105.3x28.2cmx8

₩ 25,000,000-55,000,000

호생관 최북 毫生館 崔北
무주茂朱, 성기聖器 / 1712-1786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92.7x48.5cm

₩ 25,000,000-50,000,000

江村烟外雨絲絲 綠笠漁翁捲釣遲
日暮得魚歸細逕 屋頭紅杏映疎籬

강마을은 안개 너머에 있고 비는 실처럼 내리는데,
푸른 삿갓 쓴 어부는 낚싯대를 더디 거두네.
날 저물어 물고기를 얻고 좁은 길로 돌아가니,
집머리 붉은 살구꽃은 성긴 울타리에 비치네.

右 先人江村詩
子思質書
崔北畫

오른쪽은 선친의 「강촌시」이다.
아들 사질이 쓰고, 최북이 그렸다.



출품작은 호생관 최북 毫生館 崔北이 강촌의 저녁 풍경을 그린 산수 화이다. 화면 왼쪽 상단에는 “毫生館寫”라고 적혀 있어 최북의 작품임을 밝히고 있으며, 오른쪽 상단에는 칠언절구의 화제시와 함께 “右 先人江村詩 子思質書 崔北畫”라는 관지가 적혀 있다. 여기서 ‘先人先人’은 돌아가신 부친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이 시는 사질 思質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부친이 지은 「강촌시江村詩」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은 최북이 그린 강촌 산수에, 훗날 사질이 부친의 시를 덧붙여 써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북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직업화가로, 산수에 능해 ‘최산수’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이 작품은 웅장한 산악을 그린 산수화라기보다, 한적한 강촌의 정경을 간략하고 담담하게 포착한 산수화에 가깝다. 넓은 여백 속에 강과 산, 마을과 인물을 단정하게 배치하고, 안개가 낀 듯한 분위기를 열어 먹과 간결한 필선으로 표현하였다.

화제시는 비 내리는 강마을에서 낚시를 마친 어부가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읊은 것이다. 가는 비는 실처럼 내리고, 강마을은 안개 너머로 흐릿하게 잠겨 있다. 푸른 삿갓을 쓴 어부는 낚싯대를 거두어 돌아가고, 집머리에는 붉은 살구꽃이 울타리 너머로 비친다. 비 내리는 강촌의 정경과 그 속을 지나는 인물의 모습이 간결하면서도 서정적으로 드러난다.

화면의 정경은 뒤에 더해진 화제시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화면 하단에는 낚싯대를 둘러맨 인물이 작은 다리를 건너고 있으며, 그 뒤로 물길과 언덕이 이어진다. 중경에는 강가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희미하게 보이고, 뒤편으로는 낮은 산줄기가 넓게 펼쳐져 있다. 산과 수목은 열은 먹으로 간략하게 처리되어, 비안개 속에 잠긴 강촌의 고요한 분위기를 이룬다.

출품작은 최북이 그린 강촌 산수에 사질이 자신의 부친이 지은 시를 더해 완성한 작품이다. 화면의 산수와 화제시는 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비 내리는 강촌의 정경과 낚시를 마치고 돌아가는 어부의 모습을 한층 또렷하게 환기한다. 열은 먹과 간략한 필선으로 이루어진 최북의 담담한 산수 표현에, 강촌의 정취를 읊은 시가 더해지면서 그림과 시가 함께 서정적인 분위기를 이루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09

소치 허련 小癡 許鍊

양천 陽川, 정일 精一 / 1808-1893

산수 山水·시고 詩稿

종이에 수묵담채 먹/액자
24.2x32.6cm

₩ 3,500,000-8,000,000

迴聳霄漢外 雲裡路峒峒
瀑布千丈流 如鋪練一條
下有樓心窟 橫安定命橋
雄鎮世界 天台名獨超

아득히 솟은 봉우리는 하늘 밖에 우뚝하고, 구름 속 길은 높고도 험하네.
천 길 폭포가 흘러내리니, 한 줄기 흰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구나.
그 아래에는 마을을 깃들일 굴이 있고, 옆으로는 정명교가 가로놓여 있네.
웅장하게 세상을 진압하듯 서 있으니, 천태산의 이름 홀로 뛰어나네.



110

미산 허형 米山 許瀾
양천 陽川 / 1862-1938

산수 10폭 병풍 山水十幅 屏風
종이에 수묵담채 / 병풍
100.5x32.2cmx10

₩ 1,500,000-4,000,000



111

소치 허련 小癡 許鍊
양천 陽川, 정일 精一 / 1808-1893

괴석 怪石
종이에 수묵 / 액자
68.8x35cm

₩ 800,000-2,200,000



112

소치 허련 小癡 許鍊
양천 陽川, 정일 精一 / 1808-1893

괴석묵죽 怪石墨竹
종이에 수묵 / 액자
89.5x29.5cm

₩ 1,000,000-2,300,000



113

남농 허건 南農 許楗

양천陽川/ 1907-1987

추강독조 秋江獨釣

1939년(기묘)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3x134cm

₩ 1,000,000-2,700,000

작품수록처 | 「남농 허건」(국립현대미술관, 2007), pp.36-37

114

남농 허건 南農 許楗

양천陽川/ 1907-1987

송수천년 松壽千年

1946년(병술)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1x126.5cm

₩ 800,000-1,800,000

작품수록처 | 「남농 허건」(국립현대미술관, 2007), p.54



115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양천陽川/ 1891-1977

노안 蘆雁: 수국추향 水國秋響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21x30.8cm

₩ 700,000-1,500,000



116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양천陽川/ 1891-1977

사계산수 四季山水
1956년(병신)
종이에 수묵담채/ 가배첩
88.4x34.8cmx4

₩ 2,500,000-5,500,000

117

남농 허건 南農 許健

양천關川/ 1907-1987

사계산수 10폭병풍 四季山水十幅屏風

1955년(을미)

종이에 수묵담채/ 병풍

65.5x33.5cmx10

₩ 4,000,000-9,000,000





118

미산 허형 米山 許滢
양천陽川/ 1862-1938

산수 山水 2점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13.5x46.5cmx2

₩ 1,000,000-2,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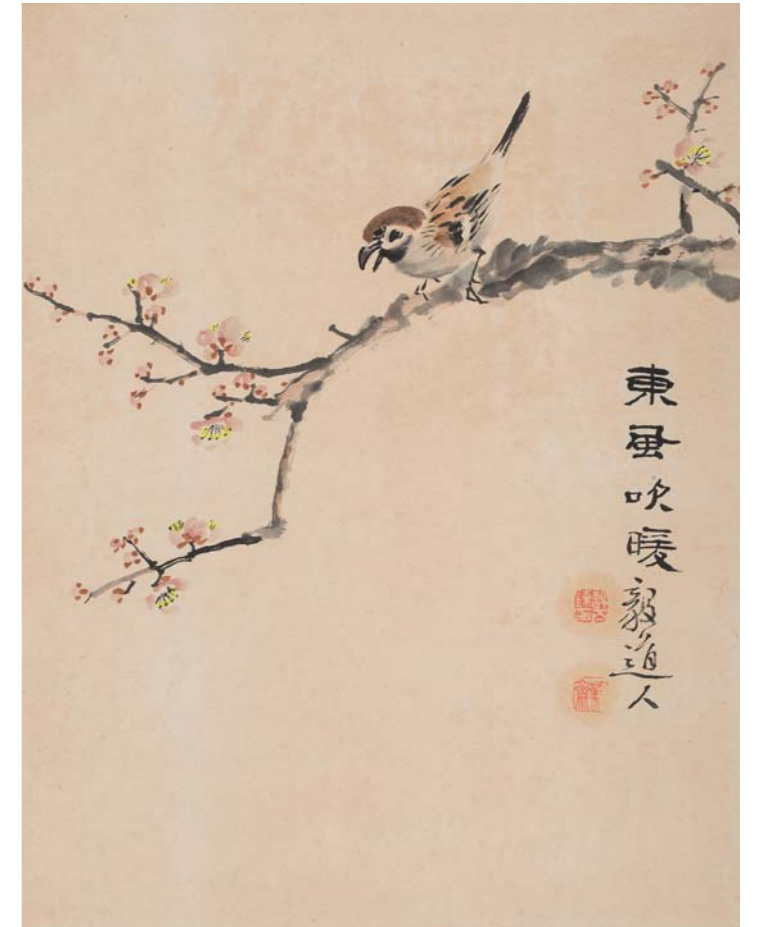


119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양천陽川/ 1891-1977

매작 梅雀: 동풍취난 東風吹暖
종이에 수묵담채/ 가배접
42.5x33cm

₩ 600,000-1,500,000



120

남농 허건 南農 許健
양천陽川/ 1907-1987

산사호 山寺曉
1977년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2.8x33.2cm

₩ 500,000-1,200,000





121

남농 허건 南農 許楨
양천陽川/ 1907-1987

추산여정 秋山餘情
종이에 수묵담채/ 가배접
21.8x134cm

₩ 800,000-2,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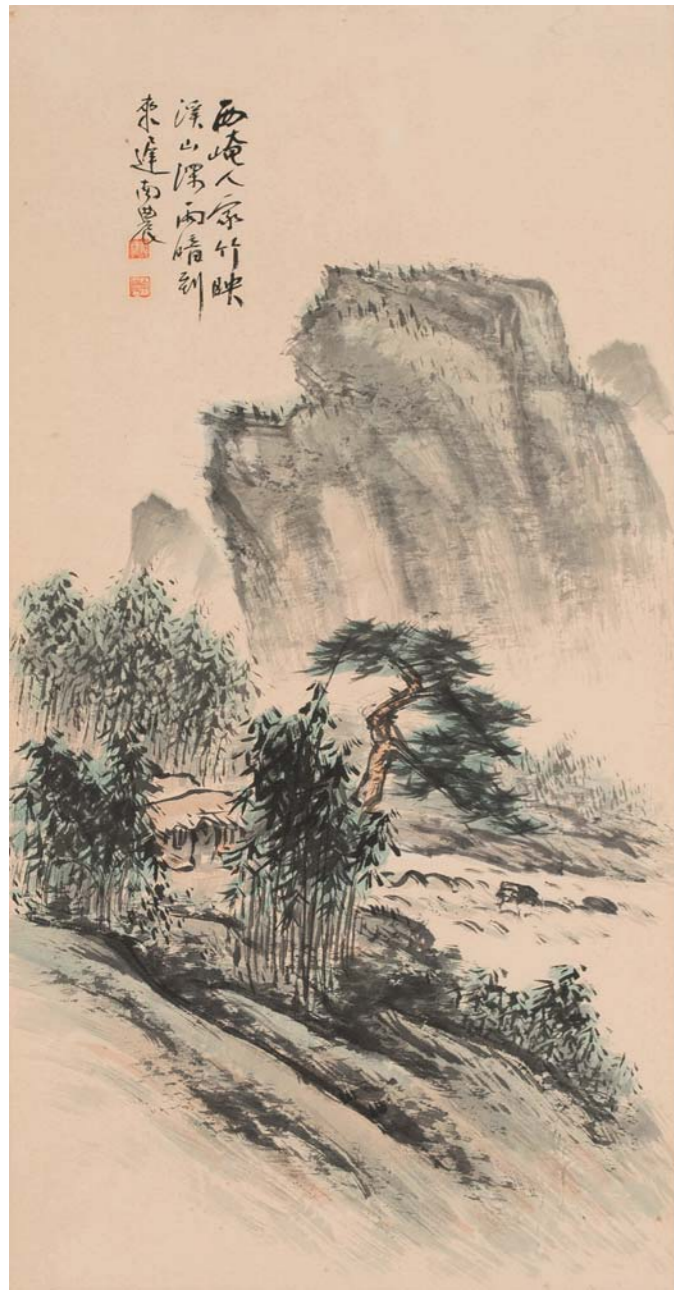
122

남농 허건 南農 許楨
양천陽川/ 1907-1987

소제춘효 蘇堤春曉
1946년(병술)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1.8x135.4cm

₩ 800,000-2,000,000





123

남농 허건 南農 許健
양천(陽川) 1907-1987

춘경 春景·하경 夏景
종이에 수묵담채/가배접
69.8x36.3cmx2

₩ 600,000-1,500,000



124

취당 홍순인 翠堂 洪淳仁
1888-1962

금강산 8폭 병풍 金剛山 八幅 屏風
비단에 수묵담채/병풍
116.4x27.9cmx8

₩ 1,000,000-3,000,000

빈풍칠월도 8폭병풍 幽風七月圖八幅屏風

종이에 수묵담채/ 병풍
120.5x59.3cmx8

₩ 10,000,000-25,000,000

출품작은 『시경詩經』 「국풍國風」의 빈풍幽風 제1편 '칠월팔장七月八章'의 내용을 화제로 삼아 그린 8폭 병풍이다. '칠월팔장'은 주나라 빈幽 지역의 농가 생활을 노래한 시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농사와 누에치기, 길쌈, 수확, 사냥, 겨울 준비, 제사와 잔치가 이어지는 한 해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각 폭 상단에 '칠월팔장' 구절을 나누어 적고, 그 아래에 시의 내용과 대응되는 농촌 풍경을 펼쳐 보인다.

화면에는 산과 강, 마을과 들판이 폭마다 이어지듯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밭을 가는 사람, 짐을 나르는 인물, 물가에 모인 사람들, 집과 울타리, 배와 다리, 누각과 초가 등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봄의 농사 준비와 뿔잎 따기, 여름의 들일, 가을의 수확과 저장, 겨울을 앞둔 생활의 모습이 산수 속에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화제에 나타난 계절별 생업의 장면을 시각화하고 있다. 넓은 여백을 둔 산수 구도 안에 농경과 생활 장면을 작게 배치하여, 화면은 한층 차분해지면서도 각 장면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하였다.

그림은 담묵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전개되지만, 수목과 가옥, 인물의 움직임 등 세부 묘사에서는 비교적 세심한 필치가 드러난다. 특히 화면 곳곳에 배치된 절벽과 바위는 짧고 단단한 선묘와 먹의 농담으로 굴곡을 살려 표현하였는데, 이는 산수 공간에 깊이를 더해준다. 멀리 이어지는 산세와 물가의 공간감 역시 간결한 선과 엷은 먹빛으로 처리하면서도 화면이 지나치게 단순해지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각 폭의 장면은 소박한 정취를 지니면서도 산수와 풍속의 요소가 안정적으로 어우러져 있어, 시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완결된 회화적 장면으로 완성하였다.

'칠월팔장'은 단순히 농가의 풍속을 읊은 시가 아니라, 농업과 양잠, 수렵, 제향 등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질서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이 병풍 역시 자연 속 한가로운 풍경을 그린 산수 도에 그치지 않고, 『시경』의 고전적 내용을 바탕으로 근면한 농사, 백성의 생업, 계절의 순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그림을 그린 인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마지막 폭에 "芝園題"라는 관지가 있어 '지원芝園'이라는 인물이 화제를 쓴 사실을 알 수 있다.





號風何日過馮橋 壯氣完如霜月精

을부짓는 바람은 어느 날 풍교를 지나갔던가,
장한 기운은 서릿달 맑은 정기처럼 온전하구나!

126

석하 김우범 石下 金愚範

1890년 이전-1934년 이후

호랑이

1934년(갑술)
비단에 수묵담채/ 족자
121x41cm

₩ 400,000-1,200,000



127

화조민화 8폭병풍 花鳥民畫八幅屏風

종이에 수묵채색/ 병풍
63.5x35.4cmx8

₩ 2,000,000-5,000,000

128

무위당 장일순 無爲堂 張一淳
인동仁同/ 1928-1994

묵란 墨蘭: 무소유 無所有
종이에 수묵/ 액자
34x44.5cm

₩ 300,000-8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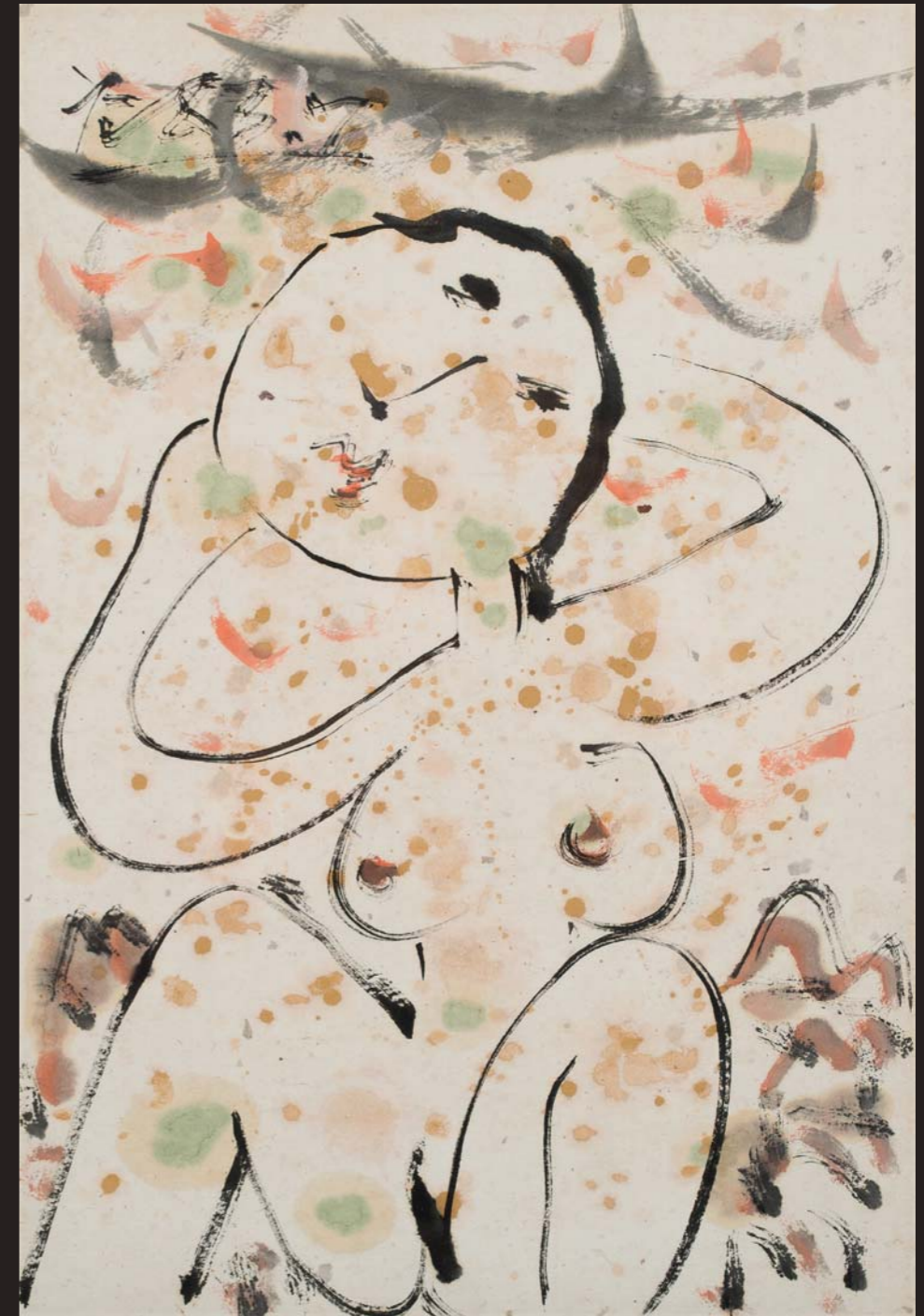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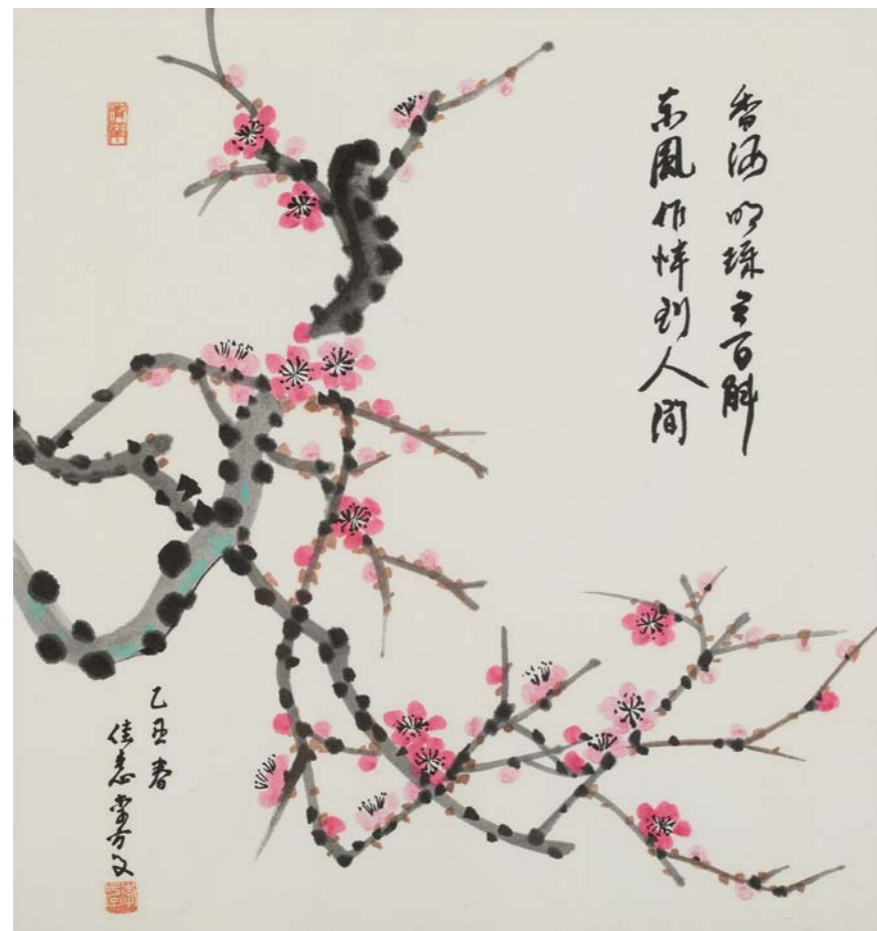


129

가혜 이방자 佳惠 李方子
1901-1989

홍매 紅梅
1985년(음축)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4x41cm

₩ 300,000-8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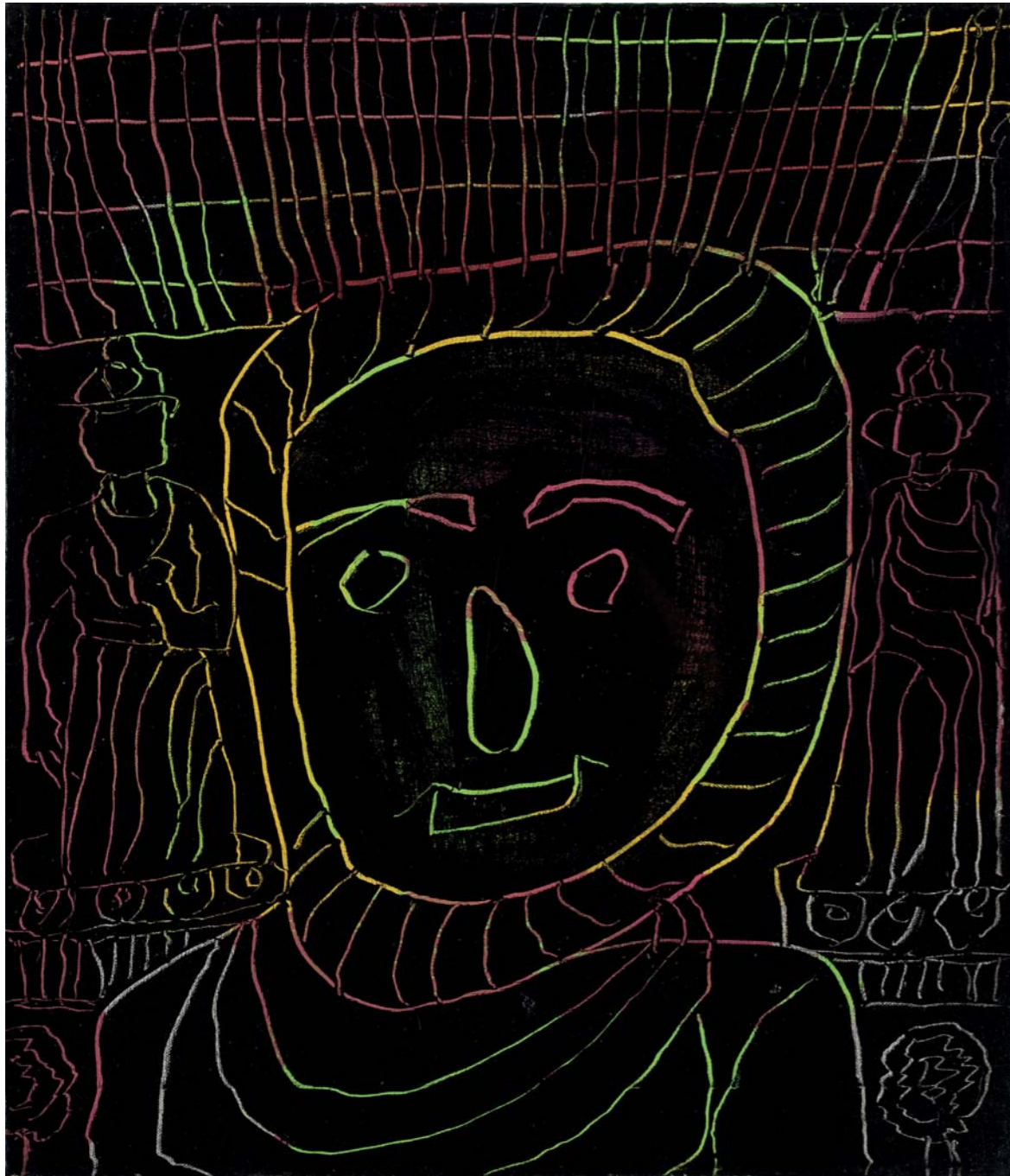


130

최영림 崔榮林
1916-1985

여인 女人
1983년
종이에 유화물감/ 액자
50x34cm

₩ 1,000,000-2,500,000



131

남관 南寬
영양英陽 / 1911-1990

무제 無題
캔버스에 아크릴/ 액자
52.5x45cm

₩ 2,700,000-5,000,000

132

송남 신상호 松南 申相浩
1947-

닭 : 도자화
백자에 안료
36.5x18.5x17.5cm

₩ 1,300,000-3,200,000



133

가혜 이방자 佳惠 李方子
1901-1989

청자나비형수저받침 靑磁蝶形匙箸臺 2점 세트
오동상자
1.5x4.1x7.1cmx2

₩ 400,000-1,000,000





134

붓걸이 筆架

나무에 조각
30x37.5cm

₩ 600,000-1,400,000

135

세한삼우일월연 歲寒三友日月硯

돌에 조각
1.7x24.8x15cm

₩ 2,000,000-4,500,000



주식회사 칸옥션 제43회 미술품경매

전시

기획·총괄 고은비
자료정리 고은솔
대외협력 김봉수
전시·진행 이정현, 임예흔, 임유지, 임재현

도록

편집·해설 고은비, 고은솔
사진 Lighthouse Studio 010.9050.7056
디자인 디자인숲 02.323.8147

경매 2026년 6월 25일(목) 오후4시
칸옥션 전시장

전시 2026년 6월 15일(월) - 6월 24일(수) 오전10시-오후7시
칸옥션 전시장
* 토·일요일도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1일 인쇄
2026년 6월 25일 발행

발행처·인  KAN Auction

0314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4길 17, 107호(건국빌딩 건국관)
☎ 02.730.8542 Fax 02.735.2566
e-mail kan@kanauction.kr
www.kanauction.kr

Copyright©2026 KAN Auction Inc.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글은 주식회사 칸옥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오류를 알려 주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 이 도록은 회원에게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칸옥션 제44회 미술품경매 작품 위탁안내

경매일정 2026년 9월 4일(금) 예정
작품위탁일정 2026년 8월 7일(금) 까지
문의 02.730.8542
kan@kanauction.kr



사람과 역사, 문화의 빛, 예술의 향기

미술품경매 칸옥션에서는
한국 미술을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